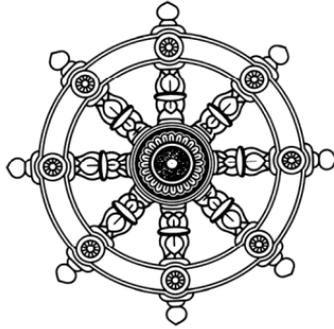


불 교 성 전



법륜에 대해서

법륜은 다르마차크라(Dharmachakra)라고 하는 산스크리트를 한문으로 옮긴 말입니다. 수레바퀴가 쉬지 않고 굴러가듯이 미래를 향해서 영원토록 퍼져나갈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사형의 여덟 개 바퀴살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덕목인 여덟 가지 올바른 길(팔정도, 즉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마음통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법륜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 불자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전세계 불자들의 상징이 되어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Copyright © 1982, 2007 by **BUKKYO DENDO KYOKAI**

Any part of this book may be quoted without permission.
We only ask that **Bukkyo Dendo Kyokai**, Tokyo, be
credited and that a copy of the publication sent to us.
Thank you.

BUKKYO DENDO KYOKAI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Buddhism)

3-14, Shiba 4-chome,

Minato-ku, Tokyo, Japan, 108-0014

Phone: (03) 3455-5851

Fax: (03) 3798-2758

E-mail: bdk@bdk.or.jp <http://www.bdk.or.jp>

Thirteenth Printing, 2018

Printed by
Kosaido Co., Ltd.
Tokyo, Japan

부처님의 지혜는 바다처럼 넓고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대비하시다.

부처님은 형체가 없으면서 미묘한 모습을 보이시고 온 몸과 마음으로 가르침을 베푸셨다.

이 책은 2500 여 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5 천 여 권에 이르는 가르침의 정수이다.

이 속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응축되어 있고 사람들이 현실에서 부딪치는 모든 일들이 다루어져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답해주고 있다.

법 구 경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5)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현명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63)

전장에 나아가서 수 천 명의 적과 싸워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전사이다.

(103)

백년을 살더라도 위 없는 진리를 만나지 못한다면 진리를 만난 사람의 단 하루의 삶만도 못하리라.

(115)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어렵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시는 일은 매우 어렵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보통의 인연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182)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183)

자식도, 부모도, 일가 친척들조차도 죽음에 이른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88)

차 례

붓다

제 1 장	석가모니 부처님	2
제 1 절	위대한 생애	2
제 2 절	최후의 가르침	10
제 2 장	영원한 부처님	16
제 1 절	자비와 서원	16
제 2 절	구원과 그 수단	20
제 3 절	영원한 부처님	24
제 3 장	부처의 모습과 공덕	28
제 1 절	세 가지 모습	28
제 2 절	부처님과의 만남	32
제 3 절	훌륭한 공덕	35

가르침

제 1 장	인연	42
제 1 절	네 가지 진리	42
제 2 절	불가사의한 인연	45
제 3 절	서로 의지하며	47
제 2 장	사람의 마음과 실상	51
제 1 절	변해가는 것에는 실체가 없다	51
제 2 절	마음의 구조	54

제 3 절	진실한 모습	58
제 4 절	치우지지 않는 길	62
제 3 장	깨달음의 씨앗	70
제 1 절	청정한 마음	70
제 2 절	숨은 보물	76
제 3 절	집착을 떠나서	81
제 4 장	번뇌	86
제 1 절	마음의 티끌	86
제 2 절	사람의 성질	93
제 3 절	현실의 인생	95
제 4 절	미혹의 모습	102
제 5 장	부처님의 구원	110
제 1 절	부처님의 서원	110
제 2 절	청정한 국토	120

정진

제 1 장	깨달음의 길	126
제 1 절	마음을 청정하게 하다	126
제 2 절	선행	133
제 3 절	부처님의 비유	145
제 2 장	실천의 길	161
제 1 절	도(道)를 구하여	161
제 2 절	여러 가지 길	175
제 3 절	신앙의 길	190
제 4 절	부처님의 말씀	198

승가

제 1 장	사람의 본분	210
제 1 절	출가의 생활	210
제 2 절	불자의 길	216
제 3 절	생활의 지침	228
제 2 장	불국토의 건설	244
제 1 절	화합하는 범우들	244
제 2 절	부처님의 나라	254
제 3 절	불국토를 떠받치는 것	259
양국따라 니카야.....		265
각 장절의 전거		267
불교통사		281
1. 인도		281
2. 대승불교의 흥기		283
3. 서역		284
4. 중국		284
5. 일본		287
한국불교		291
불교성전 유전사(流傳史)		294
불교성전의 역사		298
생활색인		301
불교 용어 풀이		309
불교전도협회에 대하여		318

붓다

제 1 장 석가모니 부처님

제 1 절 위대한 생애

1. 히말라야 산의 남쪽 기슭을 흐르는 로히니 강가에 석가족의 수도 카필라가 있었다. 왕의 이름은 숲도다나인데, 대대로 순수하고 반듯한 혈통을 이어온 자로서 튼튼하게 성을 쌓고 선정을 베푸니 백성은 기뻐하며 그를 따르고 있었다. 왕의 성은 고타마였다.

왕비 마야부인은 같은 석가족의 일족으로 고리야족이라 불리는 데바다하성의 공주이며 왕의 사촌 누이 동생이었다.

결혼 후,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여 20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밤 하얀 코끼리 한 마리가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태내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하였다. 왕의 일족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한결같이 손꼽아 태자의 탄생을 기다렸는데 산달이 다가오자 왕비는 나라의 관습에 따라 친가로 돌아가다가 룸비니동산에서 휴식을 하였다. 때마침 봄별은 따뜻하여 아쇼카의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왕비는 오른손을 들어올려 그 가지를 꺾

으려 할 찰라에 태자를 낳았다. 온 세상이 기쁨에 휩싸여 그 모자를 경축하였다. 때는 마침 4월 8일이었다.

숫도다나왕의 기쁨은 이를 데 없어 일체의 원이 성취되었다는 뜻의 ‘śīdarta’라는 이름을 태자에게 지어 주었다.

2.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고 슬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자를 낳은 마야부인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태자는 마야부인의 누이동생인 마하프라자파티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그 무렵 아시타라는 선인이 산 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성근방에 떠도는 길상을 보고 “이 아이가 장성해서 집에 계속 머물면 세계를 통일하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며, 만일 출가하여 도를 닦으면 세상을 구하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왕이 이 예언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였으나 점차로 혹시나 출가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게 되었다.

태자는 일곱 살 때부터 문무의 도를 배웠다. 어느 봄날에 태자는 부왕을 따라 전원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참석하였다. 그곳

석가모니 부처님

에서 농부들이 밭갈이 하는 광경을 보고 있을 때에 가래 끝에 갈려 나온 벌레를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는 것을 보고 “가없어라!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죽이는구나.”라고 중얼거리며 홀로 나무 그늘 밑에 앉아 깊은 사색에 빠져들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되어 어머니와 사별하였고 이제 또 살아 있는 것들이 서로 죽이는 광경을 보자 태자의 마음 속에는 벌써 인생의 고뇌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어린 나무에 새겨진 상처처럼 날로 성장하여 태자를 더욱 어두운 생각으로 몰고 갔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왕은 크게 걱정하였고, 예전에 선인이 말했던 예언을 떠올리며 태자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여러모로 꾀를 내었다. 드디어 태자가 19 세가 되던 해, 태자의 외삼촌으로 데바다하성의 왕 수프라붓다의 딸 야쇼다라를 비로 맞이하여 혼례를 올려주었다.

3. 그 후 10 년간 태자는 춘계, 추계, 우계에 궁전에서 춤과 노래와 악기 소리에 휘감겨 즐거운 생활을 보냈으나, 그 쾌락 속에서도 늘 마음 속으로 깊이 사색하며 인생을 알아보려고 고

심하였다.

“궁전의 영화도 건강한 이 육체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이 젊음도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은 병들고 언젠가는 늙는다.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 젊음도, 건강도, 산다는 것도 어떠한 의미를 갖는단 말인가.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구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과 바른 것을 구하는 두 가지가 있다.

잘못된 것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바른 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 잘못을 깨달아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초월한 인간의 고뇌의 모든 것을 여윈 경지를 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

4. 이와 같이 마음을 괴롭히며 지내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태자의 나이가 29 세 되던 해, 아들 라후라가 태어나자 태자는

석가모니 부처님

드디어 출가의 결심을 했다. 태자는 마부 찬다카를 데리고 흰 말 칸타카에 올라타고서 정들었던 궁전을 떠났다. 그리하여 속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출가의 몸이 되었다.

이 때에 악마가 재빨리 태자에게 달라 붙었다. “궁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때를 기다리는 게 좋다. 이 세계는 전부 네 것이 되는 것이다.” 태자는 꾸짖었다. “악마여! 없어져라. 모든 지상의 것은 내가 구하는 바가 아니다.” 태자는 악마를 쫓아버리고 머리를 깎은 뒤에 발우를 손에 들고 결식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태자는 처음에 바가바 선인을 찾아가서 그가 닦고 있는 고행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아라다 칼라마와 우드라카 라마푸트라를 찾아가 그들의 수행을 보고서 몸소 그것을 실행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깨달은 태자는 마가다국으로 가서 가야 마을 옆을 흐르는 나이란자나 강가의 우루빌바 숲 속에서 격렬한 고행을 했던 것이다.

5. 그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고행이었다. 부처님 스스로가 “과거의 어떤 수행자도 현재의 어떠한 고행자도 또 미래의 어떤

한 출가자도 이 이상의 고행을 한 자는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극심한 고행이었다.

그러나 이 고행도 태자가 구하는 것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태자는 6 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친 이 고행을 미련없이 던져 버렸다. 나이란자나 강에서 목욕하여 몸의 더러움을 씻어낸 뒤에 수자타라는 아가씨로부터 우유죽을 받아 마시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 때 지금까지 태자와 함께 같은 숲 속에서 고행해 왔던 출가자들은 태자가 타락했다고 여기고서 그를 버리고 딴 곳으로 떠나버렸다.

그리하여 이 세상 천지에 태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조용히 나무 밑에 단정히 앉아 목숨을 걸고 최후의 사유에 들어갔다. “피가 마르고 살이 찢기고 뼈가 썩을지언정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라고 태자는 굳게 결심하였다.

그 날 태자의 마음 속에서는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다. 흐트러진 마음, 들뜬 마음, 검은 마음의 그림

석가모니 부처님

자, 추한 생각의 모습 이런 온갖 것들이 악마의 군대처럼 총공세를 펼치며 공격해왔다. 태자는 마음의 구석구석에서까지 그것들을 찾아내어서 갈가리 찢어 버렸다. 그야말로 피가 튀고 살이 벗겨지며 뼈가 부수어지는 악전고투였다.

그러나 그 싸움도 끝이 나고 동틀 무렵 새벽의 명성을 쳐다봤을 때 태자의 마음은 찬란히 빛났다. 깨달음을 열어 부처가 된 것이다. 그것은 태자가 35세가 되던 해의 12월 8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다.

6. 이때부터 태자는 붓다, 무상각자, 여래, 석가모니, 석존, 세존 등의 여러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세존은 먼저 6년 동안 한마음으로 고행하며 지냈던 다섯 사람의 출가자들에게 도를 설하고자 그들이 사는 바라나시의 트리가다바(녹야원)로 갔다. 그들은 처음에는 세존을 피하려고 했으나, 가르침을 들은 뒤에는 석존을 믿는 최초의 제자가 되었다. 또 라자그리하(왕사성)에 들어가서 빔비사라 왕을 교화하여 그곳을 근거지로 삼아 열심히 가르침을 펼쳤다.

사람들은 마치 목마른 자가 물을 찾고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구하듯이 세존에게로 모여 들었다. 큰 제자인 샬리푸트라(사리불)와 마우드갈야야나(목건련)를 비롯한 2000 여명의 제자들은 세존을 우러르며 그에게 귀의하였다.

아들이 출가할까 걱정하며 애써 말려 왔고 그러다 결국 아들이 출가하자 이로 인해 쓰디쓴 괴로움을 맛본 아버지 숫도다나 왕과 그를 길러주신 양모인 마하프라자파티, 태자비인 야쇼다라를 비롯한 석가족의 사람들도 모두 세존에게 귀의하여 제자가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

7. 이렇게 전도의 여행을 계속하시기 45 년, 세존은 80 세를 맞이하셨다. 라자그리하로부터 슈라바스티(사위성)로 가는 도중에 바이살리에서 병이 드신 석존은 “석달 뒤에는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다. 그리고 전법의 여행을 계속하여 파바에 이르셨을 때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한 음식물에 체하여 병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아픔을 참으시며 쿠시나가라로 들어가셨다.

세존은 성 밖의 사라나무 숲 속으로 가셔서 커다란 사라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는 사이에 누우셨다. 세존은 간곡하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일깨우시며 최후의 순간까지 가르침을 설하

석가모니 부처님

셨다. 그리고 세간의 대도사인 부처로서 해야할 일을 다 마치신 뒤에 고요히 열반에 드셨다.

8. 쿠시나가라의 사람들은 세존이 열반에 드신 것을 비통해 하며 아난다의 지시에 따라서 법도에 맞게 세존의 유해를 화장 하였다.

이 때에 마가다국왕 아자타샤트루를 비롯한 8 대국의 왕들은 서로 세존의 유골을 나누어 줄 것을 바랐으나 쿠시나가라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였다. 유해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자 현자 드로나가 재치있게 유골을 팔등분하여 8 대국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 밖에 유해의 단지와 화장한 재를 받아간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에 봉안하였으므로 이 세상에는 부처님의 10 대탑이 세워지게 되었다.

제 2 절 최후의 가르침

1. 세존은 쿠시나가라의 교외 사라나무 숲 속에서 최후의 가르침을 설하였다.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각자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남을 의지해서는 안된다. 이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다른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서 안된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여 얼마나 더러운가 깊이 깨달아서 몸을 탐하지 말며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여 집착하지 말며,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해서 그 속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생각하여 그것들에 미혹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면 모든 괴로움을 끊을 수가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와 같이 가르침을 지킨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실한 제자이다.”

2. “제자들이여!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설한 나의 가르침을 늘 떠올리고 늘 생각하고 늘 닦아서 저버려서는 안된다. 만약에 가르침대로 행하면 늘 행복에 넘칠 것이다.

가르침의 요점은 마음을 닦는 데 있다. 그러므로 탐욕을 억제하여 스스로를 이기고자 노력해야만 된다. 탐욕을 멈추고, 화를 내지 않으며, 악을 멀리하고, 늘 덧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석가모니 부처님

만일, 마음이 사악함에 이끌려 탐욕에 사로잡히려고 한다면 이것을 억누르고 다스려라. 마음에 이끌리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마음은 사람을 부처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짐승으로 만들기도 한다. 미혹하여서 귀신이 되거나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은 모두가 이 마음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화합하고 존경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라. 물과 젓처럼 화합하라. 물과 기름처럼 상극해서는 안된다.

모두 함께 나의 가르침을 지키고 함께 배우고 함께 닦으며 서로 노력하여 도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 부질없는 일에 마음을 쓰거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며, 깨달음의 꽃을 따고 도의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스스로 이 도를 깨달아 그대들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하였다. 그대들은 이것을 지켜서 매사에 이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를 마주하고 있어도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요, 나와 함께 있어도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이다. 또 이 가르침대로 행한다면 비록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와 함께 있는 자이다.”

4. “제자들이여! 나의 종말은 이미 가까워졌다. 이별도 멀지 않다. 그러나 부질없이 슬퍼 말라. 세상은 무상하니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없다. 지금 내 몸이 낡은 수레처럼 부서지는 것도 이 무상의 도리를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부질없이 슬퍼하지 말 것이며, 이 무상의 도리를 알아서 인간 세상의 진실한 모습에 눈을 뜨지 않으면 안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은 무리한 바람이다.

번뇌라는 적은 항상 그대들의 약점을 엿보며 그대를 쓰러 뜨리려고 하고 있다. 만일 그대들의 방에 독사가 있다면 그 독사를 내쫓지 않고는 마음 놓고 그 방에서 잘 수는 없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번뇌의 적을 쫓아버려야 한다. 번뇌의 독사를 내쫓아야 한다. 그대들은 삼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

5. “제자들이여! 지금은 최후의 시간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육신은 부모로부터 생겨나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병들고 상처 나고 부서지는 것이다.

육신이 부처의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깨달음이다. 육체는 여기서 멀해도 깨달음은 영원히 법과 도에 살아 있다. 그러므로 나의 육신을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르침을 아는 자만이 나를 본다.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남겨놓은 법이 그대들의 스승이다. 나를 섬기듯 이 법을 잘 지키고 소중히 지녀야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이 인생의 후반 45 년 동안 설해야 할 것은 모두 다 설했으며 해야 할 일은 다 하였다. 나에게에는 이제 아무런 비밀도 없다. 안도 없고 밖도 없고 모두 다 완전히 설해 버렸다. 제자들이여! 이제야말로 나의 최후의 시간이 다가 왔다.

석가모니 부처님

나는 지금부터 열반에 들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다.”

제 2 장 영원한 부처님

제 1 절 자비와 서원

1.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대비하시다. 대자심은 온갖 수단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하려는 마음이고, 대비심은 다른 사람과 함께 앓고 함께 괴로워하는 마음이다.

마치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잠깐 동안이라도 버리는 일이 없이 지키고 키우고 구해내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너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며 잠시도 버리는 일이 없다.

부처님의 대비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생기고, 이 대비를 느낀 자에게는 믿는 마음이 생기며, 믿는 마음에 의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어머니임을 자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느껴서 자식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 무지로부

터 애착을 일으켜 괴로워하고, 번뇌에 휘감긴 채 괴로워한다. 죄업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미혹의 이 산 저 산을 힘겹게 타고 오른다.

2. 부처님의 자비가 오직 이번 한 생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이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며 이렇게 미혹을 거듭해 온 태초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자비는 이어오고 있다.

부처님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가장 친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들을 구제한다.

석가족의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하여 고행을 하고, 도를 깨치고 가르침을 설하고 죽음을 나타내 보였다.

사람들의 미혹은 한이 없으므로 부처님의 일도 한이 없고,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깊어 바닥이 없으므로 부처님의 자비에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네 가지 큰 서원

영원한 부처님

을 세웠다. (1)은 모든 사람들을 건지기를 서원하고 (2)는 모든 번뇌를 끊을 것을 서원하고 (3)은 모든 가르침을 배울 것을 서원하고 (4)는 위 없는 깨달음을 얻기를 서원하였다. 이 네 가지 서원을 바탕으로 부처님은 수행하셨다. 부처님의 수행의 근본이 바로 이 서원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온 마음이 그대로 사람들을 구하려는 대자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위하여 살아있는 목숨을 빼앗지 않는 수행을 하셨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장수하기를 원하였다.

부처님은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않는 수행을 하셨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였다.

부처님은 문란한 짓을 하지 않는 수행을 하셨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고, 또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셨다.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수행을 하셨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고요

함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

남을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을 닦으시며 사람들이 항상 화합하고 서로 도를 말하기를 원하셨다.

또 거친 말을 멀리하는 수행을 닦아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갈팡질팡하며 떠들어대는 일이 없기를 원하셨다.

번드레하게 꾸미는 말을 떠나는 수행을 닦아 사람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원하셨다.

또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 위하여 탐욕을 떠나는 수행을 닦고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이 없어지기를 원하셨다.

증오하는 마음을 떠나는 수행을 하여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넘치기를 원하셨다.

어리석음을 떠나는 수행을 닦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인과의 도리를 무시하는 그릇된 생각이 없어지기를 원하셨다.

영원한 부처님

이와 같이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만을 생각하셨다. 부처님은 마치 부모와 같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그들이 어서 미혹의 바다를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제 2 절 구원과 그 수단

1. 깨달음의 언덕에 서있는 부처님은 미혹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들의 귀에는 쉽게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미혹의 바다로 뛰어들어가 그들을 구원할 온갖 수단을 강구하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리라. 어떤 마을에 장자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 불이 났다. 때마침 외출했다가 돌아온 장자는 너무나 놀라서 어린 자식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불 난 지도 모르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을 향하여 “얘들아! 모두 나오너라. 어서 도망쳐라.”라고 소리쳤으나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이들의 안부를 걱정한 아버지는 피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여기 재미있는 장남감이 있다. 어서 나와 받아라.” 어

린 아이들은 장난감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불 난 집에서 뛰어나왔다. 그렇게 해서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화택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이 타고 있는 것을 모르고 타 죽을 지도 모를 공포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비심으로 한없는 여러 수단을 써서 사람들을 구원한다.

2.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리라. “옛날 어떤 장자에게 외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아들이 집을 나가 이리 저리 방랑하다 급기야 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느라 고향을 떠나 온갖 곳을 수소문 하였지만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몇 십 년이 흘러 이제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아들이 때마침 아버지가 살고 있는 마을로 떠돌아 왔다.

아들은 제 아버지도 몰라본 채 웅장한 저택을 보고 질려 있었다. 한눈에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머슴을

영원한 부처님

보내서 방랑하는 아들을 데려 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혹시나 속임수가 있을까 의심하며 겁에 질려 오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머슴을 아들 옆으로 보내어 이렇게 넌지시 이르라고 하였다. 저 부잣집에 품삯을 두둑하게 받을 만한 일이 있다. 아들은 그 말에 솔깃해져 집으로 왔고 머슴이 되어 품삯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기 집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들의 지위를 점차로 끌어 올려서 마침내 금은재보가 들어있는 창고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그래도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몰라 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반듯하게 성숙한 아들의 모습에 기뻐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자기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수많은 친척과 친지들을 불러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아들이요. 이제부터 나의 모든 재산은 전부 이 사람의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고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나는

아버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이 모든 재산까지도 내 것이 될 줄이야.”

여기서 말하는 장자란 부처님을 말한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던 아들은 중생을 말한다. 외아들에 향하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식으로 여기며 가르치고 안내하고 깨달음의 보물을 주어 그들을 부유하게 해준다.

3. 모든 사람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부처님의 대비는 오직 한 가지 맛이다. 하지만 사람마다 성질이 다르니 그들을 구원할 수단에도 상위가 있다. 내리는 비는 한 가지 맛이나 그 비를 맞는 초목에 따라 다른 혜택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다.

4. 아버이는 자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앓는 아이가 있으면 아버이의 마음은 유독 그 애에게만 쏠린다.

부처님의 대비도 그와 같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향해 지나 특히 죄가 무거운 자, 어리석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에게

영원한 부처님

더욱 큰 자비를 베푼다.

그리고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올라 어둠을 없애고 만물을 키우는 것과 같이 부처님은 사람들 사이에 나서서 악을 멸하고 선을 키우며 지혜의 빛을 비추어 무지의 어둠을 없애고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부처님은 자의 아버지며 비의 어머니다. 부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의 마음으로부터 오로지 사람들을 위해서만 힘쓰신다. 그들은 부처님의 자비없이 구원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불자로서 부처님이 베푸는 구원의 수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절 영원한 부처님

1.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믿고 있으나, 실은 성불한 이후 지금까지 한없는 시일이 경과하였다.

끝없는 시간 동안 부처님은 항상 이 세상에 계셨으며, 영원한 부처님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성질을 다 아시고 모든 수단을 다

하여 구원하셨다.

부처님이 설하신 영원의 법 가운데는 거짓은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밝게 아시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다 안다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세상사란 진실한 것인 줄 알고 보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인 줄 알고 보면 거짓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세상사를 알 수가 없다.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이 세상사가 진실하다거나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좋다거나 나쁘다고도 말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 가르치신다.

부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성질과 행위, 신심에 따라서 선근을 심어야 한다.”

2. 부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 가르치시지 않고 몸으로도 가르치신다. 부처님은 본래 수명에 끝이 없으나 탐욕으로 만족할

영원한 부처님

줄 모르는 사람들을 눈뜨게 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서 죽음을 나타내셨다.

비유하면 많은 자식을 둔 의사가 타국으로 여행을 떠난 사이에 아이들이 독을 마시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자. 집으로 돌아온 의사는 이 광경을 보고 놀라 약을 먹일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 제정신을 잃지 않고 있는 아이는 그 약을 먹고 병을 고칠 수가 있었으나, 이미 정신과 마음이 혼미해진 아이는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인 의사는 그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최후수단을 써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또다시 긴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이미 늙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여기에 남기고 간 약을 마시고 각자 건강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먼 여행에 나섰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그 죽음을 알리게 했다.

자식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깊이 슬퍼하며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라며 한탄하였

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여 비통과 절망 속에서 그 약을 먹고 회복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버지인 의사의 거짓말을 탓해야 할 것인가. 부처님도 또한 이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 부처님은 욕망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나타내신 것이다.

제 3 장 부처의 모습과 공덕

제 1 절 세 가지 모습

1. 모습이나 형상으로 부처를 구해서는 안 된다. 모습이나 형상은 참된 부처가 아니다. 참된 부처는 깨달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는 자가 참된 부처를 본다.

세상에서 훌륭한 불상을 보고 부처님을 봤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지한 눈의 탓이다. 부처의 참된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볼 수가 없다. 아무리 훌륭히 묘사하여도 부처님을 알 수는 없고, 어떠한 말로써도 부처님의 모습을 다 말할 수 없다.

참 모습이라고는 하나 실은 모습이 있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님에게는 모습이 없다. 그러면서도 마음대로 묘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명확히 보고 그러면서도 그 모습에 얽매이지 않으면 자재로운 힘을 얻어 부처님을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2. 부처님의 몸은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깨어지는 일이 없다. 음식물에 의하여 유지되는 육신이 아니라 지혜로 이루어진 금강의 몸이므로 두려움도 없고 병도 없는 영원불멸의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깨달음이 지혜의 빛으로 나타나 이 빛이 사람을 깨우치고 불국토에 태어나게 한다.

이 도리를 깨달은 자는 불자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서 후세에 전한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힘보다 더 불가사의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3. 부처님에게는 세 가지 몸이 갖추어져 있다. 하나는 법신, 둘째는 보신, 셋째는 응신이다.

법신이란 법 그 자체를 몸으로 삼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도리와 그것을 깨달는 지혜가 하나가 된 진리의 몸을 말한다.

부처의 모습과 공덕

법 그 자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에게는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다. 색깔도 형체도 없으므로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다. 오는 곳도 가는 곳도 없는 까닭에 충만하지 않는 곳이 없고 허공처럼 만물 위에 널리 퍼져 있다.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잊어 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 기뻐할 때에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게으를 때에 떠나가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이란 존재는 사람의 마음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초월하여 계신다.

부처님의 몸은 모든 세계에 가득 찼으며 모든 곳에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부처님과는 관계없이 영원히 머무신다.

4. 보신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가 융합한 형체가 없는 법신불로서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형상을 나타내서 원을 일으키고 행을 쌓아 이름을 나타내어 가르치고 인도하는 부처님이다.

자비가 육신의 정수이신 이 부처님은 대비를 바탕으로 여러 방편으로 한없는 사람들을 건지고, 마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사람들의 번뇌라는 장작을 태우고, 먼지를 날리는 바람처럼 사람들의 번뇌라는 티끌을 날려 버린다.

응신불은 부처의 구원을 온전히 다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성품에 따라 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낸 분이다. 태어나서 출가하고 성도하여 여러 방편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며,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을 일깨우는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몸은 원래 하나의 법신이나 사람들의 성질이 다른 까닭에 그 몸을 다양하게 나타내신다. 비록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행위와 그 능력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부처님의 모습을 보겠지만 부처님은 오직 하나의 진리를 보일 뿐이다.

부처님의 몸은 셋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의 일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 한 가지의 일이란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는 일이다.

한없이 수승한 몸으로써 모든 경계에 나타난다 해도 그 몸은

부처의 모습과 공덕

부처님이 아니다.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깨달음을 몸체로 하여 모든 것들에 넘쳐서 진리를 보는 사람 앞에 부처님은 항상 나타난다.

제2절 부처님과의 만남

1. 부처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다. 부처님은 지금 이 세계에 있어서 깨달음을 열고 법을 설하며 의심의 그물을 끊어 애욕의 뿌리를 뽑고 악의 근원을 막아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이 세상을 다니신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을 경배하는 일보다 더 훌륭한 선은 없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법을 설하여 사람들에게 참된 복리를 베풀기 위함이다.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부처님은 이 고난의 세계에 나타나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바른 이치가 사라졌고 그릇된 견해가 만연하고 사람들은 탐욕을 그치지 못하여 심신 모두가 타락하여 수명이 짧아졌다. 이런 세상에서 법을 펴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오직 대비심만으로 부처님은 이 곤란을 이겨 나가신다.

2.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착한 벗이다. 무거운 번뇌를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자가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은 그를 대신하여 그 무거운 짐을 진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참된 스승이다. 어리석고 미혹하여 괴로워하는 자가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은 지혜의 빛으로 그 어둠을 없애주신다.

송아지가 잠시라도 어미 소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는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다. 가르침을 듣는 것은 항상 즐겁기 때문이다.

3. 달이 구름에 가려지면 사람들은 달이 졌다고 말하고, 달이 구름 밖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달이 떴다고 말한다. 그러나 달은 항상 하늘에 머물렀으며 출몰하는 일이 없다. 부처님도 그와 같이 상주하여 생멸하지 않는 것인데 오직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다.

사람들은 달이 찬다든가 달이 기운다고 말하지만 달은 항상 차 있고 불어나거나 이지러지는 일이 없다. 부처님도 그와같이 상주하며 생멸하지 않는 것인데 오직 사람들의 보는 바에 따라서 생멸이 있을 뿐이다.

부처의 모습과 공덕

달은 또 온 세상 만물에 모습을 드러낸다. 거리와 마을, 산과 강, 연못과 물 향아리 속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풀잎사귀에 매달린 이슬에도 드러낸다. 나그네가 백리 길을 가든 천리 길을 가든 달은 항상 그를 따른다. 달 그것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나 달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달은 달라진다. 부처님도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숫자 만큼 많은 모습을 보이시지만 부처님은 상주하여 변하는 일이 없다.

4.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일들은 무턱대고 아무런 인연도 없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구하는데 좋은 때가 오면 이 세상에도 나타나고 그 인연이 다하면 이 세상에서 숨어 버린다.

부처님에게 생멸의 상은 있으나 실제로 생멸하는 일은 없다. 이 도리를 알아서 부처님이 보이는 생멸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며, 참된 깨달음을 열어서 위없는 지혜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은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라고 이미 설하였다. 육신은 그야말로 그릇이며 그 속에 깨달음의 담아야지만 부처님

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신에 얽매어 부처님이 열반하셨다고 슬퍼하는 자는 진정한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원래 모든 것의 참 모습은 생멸, 오고 감, 선악의 차별을 떠난 공이며 평등한 것이다.

그 차별은 보는 자의 치우친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며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도 실은 나타나거나 숨는 일이 없다.

제3절 훌륭한 공덕

1. 부처님은 훌륭한 다섯 가지의 덕을 갖추셨기에 존경을 받는다. 바른 행동, 바른 견해, 바른 지혜, 깨달음의 도를 밝게 설하는 것, 사람들이 가르침대로 잘 닦도록 이끄는 일이 다섯 가지 덕이다.

또 부처님에게는 뛰어난 능력이 여덟가지 있다. (1)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베푼다. (2)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있어서 곧 이익이 된다. (3)세상의 선악과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친다. (4)바른 도를 가르쳐서 깨달음에 들게 한다. (5)어떤 사람이든지 하나의 도로 인도한다. (6)부처님에게는 오만심이 없다. (7)말한대로 실행하며, 실행한대로 말한다. (8)미혹없이

부처의 모습과 공덕

서원을 채워 완전히 행을 이룬다.

또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 고요함과 평화를 얻어, 모든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마음, 어여빠 여기는 마음을 갖고, 마음의 모든 오욕을 씻어버려 평등하게 사랑하시며 청정한 자만이 갖는 기쁨을 갖는다.

2.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다. 아이를 낳고 열여섯 달 동안 부모는 아기의 소리에 맞춰 갓난아이처럼 말하다가 제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어 천천히 말을 가르치는 것처럼 부처님도 사람들의 말에 따라 가르침을 설하고, 그들의 소망에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이 평안하고 흔들림이 없는 경지에서 살도록 한다.

또 부처님은 한 가지의 말로써 가르침을 설하나, 사람들은 모두 그 성품에 따라서 그것을 듣고, 부처님은 지금 나를 위해 가르침을 설했다고 기뻐한다.

부처님의 경지는 미혹한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 있고,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으나, 굳이 그 경지를 나타내려면 비유를 들

어서 말할 수 밖에 없다.

갠지스강물은 항상 거북이나 물고기, 말이나 코끼리들에 의해 더럽혀지지만 언제나 맑기만 하다. 부처님도 이 강처럼 외도나 이단의 물고기들이 다투어 와서 어지럽히지만 조금도 생각의 흐트러짐이 없이 청정하기만 하다.

3.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도리를 알고, 치우쳐진 양극단을 떠나 중도에 서서, 또 모든 문자나 말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알며, 한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고요한 큰 바다에 넓은 하늘의 별들이 고스란히 제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 그 밖의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일체지자(一切智者)라고 말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빛을 주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의미와 성쇠인과의 도리를 명백하게 알려준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알 수 있다.

부처의 모습과 공덕

4. 부처님은 오직 부처로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악마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여자의 모습으로 되고, 신들의 모습으로 되며, 국왕이나 대신으로도 되고, 또는 창부의 집이나 도박장에도 나타난다.

질병이 들 때 병자에게는 의사가 되어 약을 주고 가르침을 설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관용과 자비의 바른 가르침을 설하여 재난을 벗어나게 하고, 상주의 생각에 얽매어 있는 자에게는 무상의 도리를 설하고, 자아와 자만에 구애되어 있는 자에게는 무아를 설하며, 세속적 기쁨의 그물에 걸려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쓰러린 광경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부처님의 활동은 이와같이 세상 만물 위에 나타나나, 그것은 모두가 법신의 구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한 없는 생명, 한 없는 빛의 구원도 그 근원은 법신불이다.

5. 이 세상은 불난 집과 같아 평은 하지 않다. 사람들은 어리석음의 어둠에 싸여 성냄과 시기, 질투 등 모든 번뇌에 미쳐 있다. 갓난아기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은 실로 성자들 가운데 존귀한 성자이며, 이 세상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그저 이 세상의 즐거움에만 빠져 그 재난을 내다보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세상은 괴로움에 가득찬 무서운 곳이며, 늙음과 질병과 죽음의 불길이 그치지 않고 타오른다.

그런데 부처님은 미혹의 세계라는 화택을 떠나 정적인 숲속에 머물며, 불쌍히 여기는 대자비심으로 “지금 이 세계는 내 것이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은 모두가 내 자식이다. 오직 나만이 그들을 한없는 고뇌와 어둠에서 건져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

부처님은 실로 위대한 진리의 왕이시니 바라는 대로 가르침을 설한다. 부처님은 오직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났다. 사람들을 괴로움으로 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부처님은 법을 설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에 끌려 들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마음에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다시는 미혹한 세계로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놓이기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은 오

부처의 모습과 공덕

직 믿음으로써만 들어갈 수 있다. 즉 부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가르침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 자신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가르침

제 1 장 인연

제 1 절 네 가지 진리

1. 인간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며,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다 괴로움이다. 원한이 있는 자가 서로 만나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요, 또한 구하나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야말로 집착을 떠나지 못하는 인생은 모두 괴로움이다. 이것을 ‘괴로움이라는 진리(苦聖諦)’라고 한다.

인생의 괴로움이 어째서 생기는가 하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붙어다니는 번뇌로부터 생긴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도 없다. 그 번뇌를 파고 들어가 보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격한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욕망은 생에 대한 격렬한 집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탐하게 된다. 나아가 그 욕망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불사한다. 이것을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진리(集聖諦)’이라 말한다.

이 번뇌의 근본을 남김없이 멸해버리고 모든 집착을 여의면, 인간의 괴로움도 없어진다. 이것을 ‘괴로움을 멸하는 진리(苦滅

聖諦)라고 말한다.

이 괴로움을 멀어버리는 경지에 들려면, 여덟 가지 바른 길(八正道)을 닦지 않으면 안된다. 여덟 가지 바른 길이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마음의 통일이다. 이들 여덟 가지는 욕망을 없애기 위한 ‘바른 길이라는 진리(道聖諦)’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진리를 완전히 제 것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는 누구나 번뇌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번뇌와 괴로움이 없어진 경지는 깨달음으로써만 도달할 수 있다. 깨달음은 이 여덟 가지 바른 길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

2. 도에 마음을 두는 사람도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미혹의 길을 잠시도 쉬지않고 헤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아는 사람을 깨달음의 눈을 얻은 사람이라 한다.

인연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도리를 바른 지혜로 명백히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세상 어떤 성자도 바른 성자라면 모두가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며,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밝게 이해했을 때, 여덟 가지 바른 길에 힘입어 사람은 비로소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세간과 다투지 않으며,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으며, 아첨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인생의 무상함을 잊지 않고, 도에 어긋나는 일이 없어진다.

3. 도를 행하는 자는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어둠은 곧 사라지고 온 방안이 환하게 밝아진다.

도를 배워서 명확하게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알게 되면 지혜의 등불을 얻어 무지의 어둠은 소멸한다.

부처님은 오직 이 네 가지 진리를 보여서 사람들을 인도한다.

가르침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의하여 속절없는 이 세상에서 참다운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고, 의지처가 된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밝게 이해하면 모든 번뇌의 근원인 무명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불제자들은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의하여 모든 가르침에 통달하고 모든 도리를 아는 지혜와 공덕을 갖추어 누구에게라도 거침없이 가르침을 설할 수가 있다.

제 2 절 불가사의한 인연

1. 사람들의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사람들의 깨달음에는 길이 있듯이 모든 것은 모두 그 연에 따라 생기고 연에 따라 멸하는 것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잎이 지는 일은 모두 연에 의해서 생기고 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다.

세상의 이 모든 현상은 연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에 의해 생겨나고 그러한 연이 변하면 멸한다.

인연

이 몸은 부모를 연으로 하여 태어났으며 음식물에 의하여 유지되며, 또 그 마음도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길러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과 마음은 둘 다 연에 의하여 성립되어 연에 의하여 변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물의 눈이 서로 이어져서 그물을 이루듯이 모든 것은 서로 이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그물의 눈이 그것만으로 그물의 눈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그물의 눈은 다른 그물의 눈과 서로 이어져서 비로소 하나의 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각의 그물의 눈은 다른 그물이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

2. 꽃은 피는 연이 모임으로써 꽃은 피어나고, 잎이 지는 연이 모여서 낙엽이 진다. 홀로 피고 홀로 지는 것은 아니다. 연에 의하여 피고, 연에 의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해가는 법이다. 홀로 존재하는 것도, 항상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연에 의하여 생기고 연에 의하여 멸하는 것은 영원 불멸의 도리이다. 그러므로 변하고 항상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천지간에 움직일 수 없는 진실한 도리이며, 이것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제3절 서로 의지하며

1. 그러면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 괴로움과 번뇌는 어째서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부에 집착하고,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자아에 집착한다. 이 집착으로부터 고뇌가 생긴다.

태초부터 이 세계에는 여러가지 재앙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도 따지고 보면 집착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나 괴로움이 되는 것이며, 집착만 떠나게 되면 모든 고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인연

또 이 집착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연속하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명과 탐욕을 볼 수가 있다.

무명은 변하는 것들의 모습에 눈이 뜨이지 않고, 사물의 도리에 어두운 것이다. 탐욕은 얻을 수 없는 것을 탐내고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다.

본디 사물에는 차별이 없는 것인데, 차별을 인정하는 것은 이 무명과 탐욕의 작용이다. 본디 사물에는 선악이 없는 것인데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이 무명과 탐욕의 작용이다.

모든 사람들은 항상 빼돌어진 생각을 일으켜 어리석음 때문에 바르게 볼 수 없게 되고, 자아에 얽매어 잘 못된 행동을 하고 그 결과 미혹의 몸을 낳게 된다.

행위라는 밭에 마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무명의 흙으로 덮은 뒤에 탐욕의 비로 골고루 적시며 자아라는 물을 주고 사건을 더 하여 이 미혹을 낳는 것이다.

2. 그러므로 결국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과 번민이 있는 미혹의 세계를 낳는 것은 이 마음인 것이다.

미혹의 이 세상은 오직 이 마음으로부터 나타난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깨달음의 세계도 또한 이 마음에서 나타난다.

3. 이 세상에는 그릇된 견해 세 가지가 있다. 만약 이런 견해에 따라가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부정하게 된다.

첫째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은 모두가 운명이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그것은 모두가 신이 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셋째는 모든 것은 인과 연이 없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만약에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을 하는 것도 모두가 운명이며 행복과 불행도 모두 운명일 뿐이어서 운명 외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진보하고 발전하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이 모두 공허한 일이 되어서 이 세상

인연

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다.

또한 신의 뜻이라고 하는 주장이나 인과 연도 없다는 우연설과 같은 주장도 같은 논리로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그러면 악을 떠나 선한 일을 행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견해는 모두 잘못된 것이다. 그 어떠한 일도 연에 의하여 생기고, 연에 의하여 멸하는 것이다.

제 2 장 사람의 마음과 실상

제 1 절 변해가는 것에는 실체가 없다

1. 몸과 마음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몸에는 실체는 없다. 이 몸은 인연의 더미인 까닭에 무상한 것이다.

만약 이 몸에 실체가 있다면 내 몸은 ‘이렇게 해라’ 혹은 ‘저렇게 해라’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벌할 것은 벌하고 상줄 것은 상주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병들거나 바라지도 않는데 늙어가니 한 가지도 내 몸에 대하여는 의도나 소망과는 상관없이 생각하는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도 실체가 없다. 마음도 또한 인연의 더미이며 항상 변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에 실체가 있다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든가 저렇

사람의 마음과 실상

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대로 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바라지 않는데 악을 생각하고, 원치 않는데 선에서 멀어지니 어느 한가지도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

2. 이 몸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인가, 아니면 무상한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무상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라고 묻는다면, 태어난 자는 누구나 머지 않아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안다면 누구나 괴로움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와 같이 무상하고 변해가고 괴로움인 것을 ‘실체다’, ‘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음도 또한 그와 같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실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몸과 마음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나라든가 ‘내것’이라는 관념을 떠나 있는 것이다.

*지혜가 없는 마음이 ‘나’다 혹은 ‘내것’이다 라고 집착하는 것

에 지나지 않는다.

몸과 그것을 둘러싼 것도 연에 의하여 생긴 것이므로 끊임없이 변하여 잠시도 머무는 일이 없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또는 타오르는 등불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또 마음은 마치 원숭이처럼 잠시도 조용하게 머물러 있지 못할 것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움직인다.

지혜있는 자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들어서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몸과 마음이 함께 집착을 떠났을 때에 깨달음이 얻어진다.

3.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성취할 수 없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늙어가는 몸이면서 늙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둘째, 병든 몸이면서 병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셋째, 죽어야 할 사람이면서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넷째, 멀해야 할 것을 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다섯째, 다해야 할 것을 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과 실상

세상의 범인들은 이 피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여 부질없이 고뇌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피하기 어려운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는다.

또 이 세상에 네 가지 진실이 있다. 첫째,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무명으로부터 생겨나는 것. 둘째,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변하는 것이라는 것. 셋째,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변하는 것이라는 것. 넷째, 자아도 자신의 소유도 세상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은 모두가 무상하며 변하는 것이라는 것. 어떠한 것에도 자아가 없다는 것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고 안하고에 관계없이 언제나 정해져 있는 참된 이치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알고, 이런 일을 깨달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제2절 마음의 구조

1. 미혹함도 깨달음도 마음에서 나타나며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마치 요술쟁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한 없이 변해가고, 그 작용도 한이 없다. 더럽혀진 마음으로부터는 더럽혀진 세계가 나타나고, 맑은 마음으로부터는 맑은 세계가 나타나므로 마음 밖의 세계도 마음에 따라 한 없이 변화한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은 바깥 세계를 만들어 낸다. 부처님이 만드는 세계는 번뇌를 떠나서 청정하고, 사람이 만든 세계는 번뇌에 의하여 더럽혀져 있다.

마음은 숨씨 좋은 화가처럼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 이 세상에 마음의 작용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마음처럼 부처님도 그러하고, 부처님처럼 사람들도 그러하다. 따라서 모든 것을 그려내는 데에 있어서 마음과 부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부처님은 바르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는 사람은 진실한 부처를 보게 되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마음은 늘 추억하고 두려워 하고 슬퍼한다. 이

사람의 마음과 실상

미 일어난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도 추억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한다. 왜냐하면 이 마음 속에는 무명과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무명과 탐욕으로부터 미혹한 세계가 생겨나며, 미혹한 세계의 여러 인연도 결국은 모두 마음 한가운데에 있다.

삶과 죽음도 오직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므로, 미혹된 삶과 죽음에 관계되는 마음이 멀하면, 미혹된 삶과 죽음도 사라진다.

미혹한 세계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며, 미혹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미혹한 세계가 된다. 마음을 떠나서 미혹한 세계가 없음을 알면, 더러움을 떠나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세계는 마음에 의해 인도되고, 마음에 이끌리며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 미혹된 마음에 의하여 괴로움에 가득 찬 세상이 나타난다.

3. 모든 것들이 모두 마음에 의해 이끌리고, 마음으로 이루

어져 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마치 소에게 수레가 이끌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만약 착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악한 행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악한 일을 했기에 괴롭고 다음 세상에서는 그 악의 과보를 받아서 더욱 괴로워 한다. 착한 행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했기에 즐거워 하고, 다음 세상에서는 그 착한 과보를 받아서 더욱 즐겁게 살아간다.

이 마음이 흐리면 그 길은 평탄해지지 않아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고통을 받기 마련이다. 하지만 마음이 청정하면 그 길은 평탄하고 평안해진다.

티없이 청정한 몸과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본위의 불순한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악마의 그물을 벗어나 부처님의 대지를 걷는 자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평안을 얻어서 더욱 노력하여 밤낮없이 마음을 닦을 것이다.

제3절 진실한 모습

1.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인연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차별은 없다. 차별을 보는 것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편견 때문이다.

넓은 하늘에는 동서의 구별이 없는데 사람들이 동서로 차별하여 ‘동쪽이다 서쪽이다.’ 라며 집착한다.

수는 본래 하나부터 무한의 수에 이르기까지 각기 완전한 수이고, 양에는 많고 적음의 차별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욕심으로 재서 많고 적음의 차별을 한다.

본래 생도 없고 멸도 없는데 생사의 차별을 하며, 또 인간의 행위 그 자체에는 선도 없고 악고 없는데 선악의 차별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은 이런 차별을 떠나셨기에 세상은 하늘에 뜬 구름과 같고 허깨비와 같은 것이어서, 버리는 것이나 취하는 것이나 다 부질없다고 보시며, 외형의 유희와 마음이 짓는 모습을 여의고

있다.

2. 사람은 마음으로 헤아려서 모든 것에 집착한다. 부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수명에 집착한다.

있음과 없음, 선과 악, 율음과 그림 모든 것에 집착하여 미혹을 거듭하며 고뇌를 불러온다.

어떤 사람이 오랜 여행 끝에 어느 곳에서 큰 강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강의 이쪽 언덕은 위험하나 저쪽 언덕은 안전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여 뗏목을 만들어 타고, 안전하게 저쪽 언덕에 이를 수가 있었다. 도착한 뒤에 그는 ‘이 뗏목은 나를 안전하게 이쪽 언덕으로 건네 주었다. 이 얼마나 고마운 뗏목인가. 그러니 이 뗏목을 버리지 말고, 짊어지고 목적지까지 가지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였다. 이 때 이 사람은 뗏목에 대하여 해야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않을 것이다.

이 비유는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집착할 것이 아니라,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 하물며 바르지 못하고 소용없는 일을 버리는 것이야 새삼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

사람의 마음과 실상

다.

3. 모든 것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따라서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있고 없음의 범주를 떠나 있으므로,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며, 생기는 일도 없고 멸하는 일도 없다.”라고 설한다. 즉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물 그 자체의 본성은 실재성이 없으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물의 모습을 보고 이것에 집착하는 것은 미혹한 마음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만약에 사물의 모습을 보아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미혹은 생기지 않는다. 깨달음은 이 참된 도리를 보고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진실로 세상은 꿈과 같고, 재물도 또한 환상과 같은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높고 낮음과 같이 보이기는 하나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4. 무량한 인연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 영구히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상견이라하며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또한 완전히 없어 진다고 믿는 것은 단견이라하며 이것도 잘못된 견해이다.

이 단(斷), 상(常), 유(有), 무(無)는 사물 자체의 모습은 아니고, 사람의 집착으로 본 모습이다. 모든 것은 본래 이런 구별과 집착의 모습을 떠나 있다.

사물은 모두 인연에 의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변한다. 실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다. 변하기 때문에 환상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으나 그 모습 그대로 진실하다. 변하는 그대로 영원불변한 것이다.

하천은 사람에게는 하천으로 보이나, 물을 불로 보는 아귀에게는 하천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천은 아귀에 있어서는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사람에게는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모두 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허깨비와 같은 것이다.

사람의 마음과 실상

그렇지만 이 허깨비와 같은 세계를 떠나서 진실한 세상도 영원불변한 세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짜라고 보는 것도 잘못이요, 실제의 세상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잘못의 근원은 세계 위에 있다고 보고 있으나, 세계가 이미 환상이라면 환상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에게 잘못을 생기게 할 리가 없다. 잘못은 이 도리를 모르므로 가짜 세상이라 생각하고 실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지혜있는 사람은 이런 도리를 깨달아서 환상을 환상으로 보기 때문에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난다.

제 4 절 치우치지 않는 길

1. 도를 닦는 자로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치우친 삶이 있다. 첫째, 욕망에 저서 탐욕에 빠진 비천한 삶이며, 둘째 부질없이 자신의 심신을 괴롭히는 고행의 삶이다.

이 두 가지 치우친 삶을 떠나서 마음의 눈을 열고 지혜로 나아가며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도의 삶이 있다. 이 중도의 생활이

란 무엇인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노력, 바른 생활, 바른 기억, 바른 마음의 통일이라고 하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생멸하는 것이므로 유와 무를 떠나 있다. 어리석은 자는 유로보고 혹은 무로 보나, 바른 지혜로 보면 유와 무를 떠나 있다. 이것이 중도의 바른 견해이다.

2. 나무 도막 하나가 큰 강을 떠다니고 있다고 하자. 그 나무가 좌우의 언덕에 접근하지 않고, 종류에 가라 앉지도 않고, 육지로 올라오지도 않고, 사람에게 건져지지도 않고, 소용돌이에도 말려들지 않고, 안에서부터 썩지도 않는다면 언젠가 그 나무 도막은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 나무도막의 비유처럼 안에도 밖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유나 무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율음과 그림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미혹을 떠나 깨달음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중도를 따르는 것이다.

도를 닦는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양극단을 떠나 항상 중도를 걷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과 실상

모든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꿈과 같이 정해진 성질이 없는 것임을 알아서 집착하지 말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느 것에도 속박되어서는 안된다.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움켜쥐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도를 닦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태어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있음과 없음, 안과 밖, 선과 악, 참과 거짓을 가리는 그 어떤 견해의 뒤도 쫓지 않는다.

사람이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곧 미혹한 삶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자는 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공정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 삶인 것이다.

3. 깨달음도 그 자체로 본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깨달는다는 것은 있지만 깨달아지는 것은 없다.

미혹이 있으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미혹이 없어지면 깨달음도 없어진다. 미혹을 떠나서 깨달음은 없고 깨달음을 떠나서도 미혹은 없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은 더욱 장애가 된다. 어둠이 있기에 비추는 것이 있고, 어둠이 없어진다면 비추는 것도 없어진다. 비추는 것과 비추어지는 것이 다같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도를 닦는 자는 깨달았으면서도 깨달음에 머물지 않는다. 깨달음에 집착한다는 것은 여전히 미혹하기 때문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은 미혹한 그대로 깨달음이며, 어둠 그대로 빛이다. 모든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 될 때까지 완전히 깨달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4. 사물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것을 공이라 한다.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은 실체가 없고,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고, 어떤 이원성도 없고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므로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서로 관계하여 성립되고, 서로 모여 존재하는 것이다. 홀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과 실상

사물에는 빛과 그림자, 길고 짧음, 흑과 백이 있는 것처럼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이 오직 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이라 한다.

또 미혹을 떠나서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을 떠나서 미혹이 없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다.

5. 사람은 언제나 사물의 생하는 것과 멸하는 것을 보고 있으나, 사물에는 본래 생한다는 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멸하는 일도 없다.

사물의 이런 진실한 모습을 보는 눈을 얻어서 사물에 생멸의 둘이 없음을 알고 둘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

사람은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것에 집착한다. 그러나 원래 자아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것이 있을 리가 없다. 자아와 내것이 없음을 알아서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청정함과 오염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두 가지에 집착한다. 그러나 사물에는 본래 청정한 것도 없고, 오염된 것도 없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집착하여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선과 악을 본래 별도로 생각하여 선악에 얽매이고 있다. 그러나 오직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깨달음의 도에 든 사람은 이 선악은 본래 따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는 것이다.

사람은 불행을 두려워하여 행복을 바란다. 그러나 진실한 지혜를 갖고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불행의 상태가 그대로 행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불행이 그대로 행복이라고 깨달아서 심신에 엉겨붙어 자유를 속박하는 미혹도 진실한 자유도 특별히 없음을 알면, 이런 사람은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 미혹과 깨달음, 진실과 거짓, 옳음과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상반된 두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에는 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알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실상

다. 사람이 이런 말이나 분별하는 바를 떠났을 때, 진실한 공을 깨칠 수가 있다.

6. 이를테면 연꽃이 맑은 고원이나 물에서는 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미혹을 떠나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견해나 미혹에서 부처의 씨앗이 생겨나는 것이다.

잠수부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의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값도 알 수 없는 진귀한 보물을 얻을 수가 없듯이, 미혹이라는 진흙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깨달음이라는 보물을 얻을 수가 없다. 산과 같이 큰 자아에 대한 집착을 갖는 자야말로 비로소 도를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그러다 마침내 깨달음도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선인이 칼산에 올라도 다치지 않고, 자기의 몸을 불 속에 던져도 타기는 커녕 상쾌함을 느꼈다고 하는 것처럼 도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명예와 이익과 욕망의 칼산이나 증오의 불 속에서도 깨달음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 올 것이다.

7.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반되는 두 가지 것을 떠나서 그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닫는 것이다. 만약에 상반되는 둘 중의 하나를 취하여 집착하면 비록 그것이 선하고 바르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된다.

만약에 사람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생각에 빠진다면, 이것도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것이며, 또 만약에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것도 당초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만일에 또 사람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영원히 괴로움을 떠날 수가 없다. 만약에 자아가 없다고 집착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며 도를 닦아도 효과가 없다. 또 모든 것은 오직 괴로움이라고만 사로잡혀도 잘못된 생각이며, 모든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이고, 이 두 가지 치우침에서 떠나 있다.

제 3 장 깨달음의 씨앗

제 1 절 청정한 마음

1. 사람에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마음의 흐름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현명한 사람도 있으며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착한 성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악한 성질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가르치기 쉬운 사람도 있고 가르치기 힘든 사람도 있다. 이를테면, 청, 적, 황, 백의 가지각색의 연못이 있는데, 물 속에서 나서 물 속에서 커서 물 표면에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수면에 머물러 있는 연도 있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물에 젖지 않는 연이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차별 위에 또 남녀의 구별이 있으나 사람의 본성으로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자가 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이 여자도 또한 도를 닦으면 해야 할 마음의 길을 거쳐서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코끼리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려면, 신념과 건강을 갖고 근면하며 거짓이 없고, 그 위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부처님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역시 이 다섯 가지가 없어서는 안된다.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남자도 여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

는데 긴 세월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에게서는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2.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부처님을 보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는다.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생사의 터전을 오늘날까지 떠돌아 다니게 만든 것도 또한 이 눈과 마음이다.

어떤 국왕이 침입한 적을 토벌하려 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적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하듯이, 이제 미혹함을 버리려 할 때도 먼저 그 원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이 실내에서 눈을 뜨면, 먼저 방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다음에 창을 통하여 밖의 경치를 본다. 방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밖에 있는 것만을 보는 눈은 없다.

그런데, 만일 이 몸 속에 마음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몸 속을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인데, 사람들은 몸 밖의 것만을 잘 알고 있고, 몸 속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깨달음의 씨앗

또 만약에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하면,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서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은 모르고, 몸이 아는 것을 마음은 모를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이 느끼고, 몸에 느끼는 것을 마음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마음의 본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3. 원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먼 옛날부터 업의 고삐에 묶여서 미혹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근본을 모르기 때문이다.

첫째, 생사의 근본인 미혹한 마음을 자기의 본성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둘째 깨달음의 본성인 청정한 마음이 미혹한 마음 뒤에 숨겨진 채, 자기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일이다.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들면, 눈은 이것을 보고, 마음은 이 일을 안다. 그러나 그 아는 마음은 진실한 마음은 아니고 분별하는 마음이다.

분별하는 마음은 욕망에서 생기고 자신의 형편을 분별하는 마

음이며, 연에 닿아서 생기는 마음이어서 진실한 본체가 없고 변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실체가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미혹이 생긴다.

다음에 이 주먹을 펴면 마음은 주먹이 펴져 있음을 안다. 움직이는 것은 손이겠는가, 마음이겠는가,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닌가.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고, 또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손도 움직인다. 그러나 움직이는 마음은 마음의 표면이지 마음의 근본은 아니다.

4. 모든 사람들에게는 청정한 본심이 있다. 그것이 밖의 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미혹의 티끌로 덮여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미혹한 마음은 객이지 주는 아니다.

달은 잠시 구름에 덮혀도 구름에 더럽혀지지도 않고, 또 움직여지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떠다니는 티끌과 같은 미혹한 마음을 자기의 본성이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또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깨달음의 본성에는 떠서 진실한 자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떠다니는 미혹

깨달음의 씨앗

한 마음에 사로잡혀 뒤바뀐 견해에 쫓겨 있으므로 사람은 미혹의 거리를 해매는 것이다.

마음의 미혹이나 오염은 욕망과 그 변화하는 외계의 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이 연의 가고 오에 관계없이 영구히 움직이지 않고, 멸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의 본체이고 주인인 것이다.

객이 떠났다고 해서 여관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연에 의하여 생멸하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해서 자기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외부의 연에 의하여 변해가는 분별하는 마음이 그 본체는 아니다.

5. 여기 태양이 솟으면 밝아지고 태양이 지면 어두워지는 강당을 생각해보자.

밝음은 태양에서 오고 어둠은 밤에서 온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밝음이나 어둠을 아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해야 할까. 그것은 마음의 본성이나 본체에서 온다고 할 수 밖에 다른

길은 없다.

태양이 떠올라서 밝다고 보는 것도 한 때의 마음이며, 태양이
저서 어둡다고 보는 것도 한 때의 마음이다.

이와 같이 명암이라는 밖의 연에 끌려서 명암을 아는 마음이
생기나 명암을 아는 마음은 한 때의 마음이지 마음의 본체는 아
니고, 그 명암을 아는 힘의 근본은 마음의 본체이다.

밖의 인연에 끌려 생멸하는 선악과 애증의 감정은 사람의 마
음에 쌓인 오염에 의하여 일어나는 한 때의 마음인 것이다.

번뇌의 티끌에 싸여 있으면서도 물들지도 더럽혀지지도 않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있다.

둥그런 그릇에 물을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네모가 된다. 그러나 본래 물에 둥글거나 네모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잊고 물의
형태에만 얽매어 있다.

깨달음의 씨앗

사람은 선과 악을 보고, 좋고 싫어함을 느끼고, 유과 무를 생각하며, 그 생각의 부림을 받고, 그 견해에 묶여 밖의 것을 쫓아다니며 괴로워 하는 것이다.

속박당한 가공적이고 거짓된 견해를 밖의 연에 돌리고, 속박당한 적이 없는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오면, 몸과 마음은 번뇌에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를 얻을 것이다.

제2절 숨은 보물

1. 청정한 본심이란 말을 바꿔서 말하면 불성이다. 즉 부처가 될 씨앗이다.

부싯풀에 렌즈를 들이대고 태양빛 아래에서 불을 일으킬 때 과연 그 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태양과 렌즈와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태양의 열기가 렌즈를 연으로 하여 부싯풀에 나타난 것만은 의심할 수가 없다. 또 아무리 태양이 내려 쪼여도 부싯풀에 불이 붙는 성질이 없다면 부싯풀에는 불이 붙지 않는다.

이제 부처를 낳는 근본인 불성 즉 부싯풀에 부처님의 지혜의

렌즈를 대면 부처의 불(火)은 불성이 열리는 믿음의 불로서 사람들 즉 부싯풀에 불길이 붙게 된다. 부처님은 그 지혜의 렌즈를 들어 세계에 대게 되므로 온 세상에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다.

2.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본래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의 불성에 등을 돌리고 번뇌의 티끌에 이끌려 사물의 선악의 모습에 얽매어 자유롭지 못하다며 괴로워하고 한탄한다.

왜 사람들은 본래 깨달음의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거짓을 낳고 불성의 빛을 감추며, 미혹의 세계를 헤매고 있는 것일까.

옛날에 어떤 사나이가 어느날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얼굴과 머리가 비치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것은 얼굴이나 머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거울을 뒤집어 놓고 이것들이 없어진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러 하나 이르지 못한다 해서 괴로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또 필요도 없는 일이다. 깨달음 속에는 미혹

깨달음의 씨앗

이 없지만 한 없이 길고 긴 시간 동안 밖의 탐욕의 티끌에 이끌려 망상을 그려내고 그 망상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쌓여온 망상이 그치면 깨달음은 스스로 돌아오며, 깨달음을 떠나서 망상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한번 깨닫기만 하면 본래 망상도 없고 또 깨달아 진 것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니 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3. 이 불성은 다하는 일이 없다. 가령 축생에 태어나고, 아귀가 되어 고통을 받거나 지옥에 떨어져도 이 불성은 다하는 일이 없다.

더러운 욕신 속에서도 더럽혀진 번뇌의 밑바닥에도 불성은 제 빛에 휩싸인 채 결코 소멸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이다.

4. 옛날에 어떤 사람이 친구집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들어 버렸다. 그 때 친구가 급한 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친구는 그 사람의 장래를 염려하여 값진 보석을 그 사람의 옷깃에 넣어 두었다. 그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술에서 깨어나 타국을 방랑

하다가 굶주리고 헐벗으며 몹시 힘들게 지냈다. 세월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는데, 그 때 그 친구는 “자네, 옷깃에 든 보석을 쓰도록 하게.” 라고 일러 주었다.

이 비유처럼 사람은 생사문제로 고통받으면서 헤메고 있지만 불성이라는 값진 보석은 탐, 진, 치라는 번뇌의 옷깃에 들어 있어도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든 부처의 지혜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는 까닭에 부처님은 사람들을 간파하여 “장한 일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부처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음에 뒤덮여 모든 것들을 거꾸로 보고 자기의 불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그 망상을 떠나게 하고, 본래 부처와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님을 가르치시고 알게 한다.

5. 여기서 말한 부처님이란 이미 완성된 부처이며, 사람들은 장차 이루게 될 부처일 뿐 그 밖에는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깨달음의 씨앗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부처라고 하여 이미 부처가 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미 도를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불성이 있다 하여도 닦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 옛날에 어떤 왕이 많은 소경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다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해 보도록 하였다. 그 때에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큰 당근처럼 생겼다고 말하고, 귀를 만져본 사람은 큰 부채처럼 생겼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절구통처럼 생겼다고 하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새끼줄처럼 생겼다고 하여 어느 한 사람도 코끼리를 알아 맞춘 사람이 없었다.

사람을 보는 데도 이와 같아서 사람의 한 쪽만 봐서 그 본성인 불성을 알아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죽음에 의해서도 없어지지 않고, 번뇌 속에 있어도 더럽혀지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멀하지 않는 불성을 찾기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는 찾을 길이 없다.

제3절 집착을 떠나서

1.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가르침에서 말하는 실체적인 자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그것은 잘못이다.

자아라는 생각은 집착심에 의하여 생각할 수 있기는 하나 깨달은 사람에게는 자아는 부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집착이며, 불성은 열어 나타내지 않으면 안되는 보화이다. 불성은 자아와 닮은 것 같으면서도 ‘내가 있다’ 라든가 ‘내것’ 이라든가 할 때의 자아는 아니다.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뒤바뀐 견해이고, 불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뒤바뀐 견해이다.

예를 들어 어린애가 병에 걸려 의사에게 보일 때, 의사는 약을 주며 이 약이 다 소화되기까지는 젖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처방한다고 하자.

깨달음의 씨앗

그러면 어머니는 젓꼭지에다 쓴 것을 발라 애기가 젓먹기를 싫어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에 약이 다 소화되면 젓꼭지를 씻어 버리고 애기에게 물린다.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은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영원불변하는 자아는 없다고 설했으며, 그런 잘못된 견해를 없앴으므로 다시금 불성이 있다고 설한 것이다.

자아에 대한 집착은 미혹을 부르는 것이며, 불성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집에 황금의 상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어렵게 사는 여인을 가엾게 여겨, 그 황금상자를 파내서 주는 것처럼 부처님은 사람들의 불성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인다.

2. 그렇다면 사람들은 모두 이 불성을 갖추고 있는데, 왜 빈 부귀천의 차별이 있으며 서로 죽이거나 속이는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궁궐에서 일하는 어떤 힘센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날 그가 미간에 자그마한 금강주옥을 장식한 채로 씨름을 하다가 상대방이 그 이마를 치는 바람에 주옥이 살 속으로 들어가 부스럼이 생겼다. 이 사람은 주옥이 있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그저 부스럼을 고치려고 의사에게 보였다. 의사는 한눈에 그 부스럼은 살 속에 박힌 주옥 때문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보여 주었다.

사람들의 불성도 번뇌의 티끌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으나, 좋은 스승에 의하여 다시금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성은 있어도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가려지고 업보에 묶여 미혹에 빠진다. 그러나 불성은 실제로는 잃어버리거나 파괴되지도 않아서 미혹만 제거하면 또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힘센 사람이 의사가 끄집어 낸 구슬을 본 것처럼 사람들도 불광에 의하여 불성을 보게 되는 것이다.

3. 적, 백, 흑과 여러 가지 털색을 가진 어미소들이 있다고

깨달음의 씨앗

하자. 하지만 젓을 짜면 모두가 흰색이듯이 아무리 서로 다른 처지에 놓여 있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업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같은 불성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에 귀한 약이 있는데, 그것은 깊은 수풀 속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옛날에 한 현인이 그 향기를 따라 있는 곳을 알고 통을 만들어 그 속에 담아 두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은 산사태로 샘물에 파묻혔고 통속에 든 약은 썩어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린 곳마다 맛이 뒤섞이는 바람에 그 맛은 제각각 달라졌다.

불성도 이 비유처럼 깊이 번뇌의 수풀에 덮여 있으므로 사람들은 이것을 손쉽게 찾아내지 못한다. 부처님이 처음으로 그 수풀을 헤치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불성의 맛은 한 가지인데, 번뇌때문에 여러 가지 맛을 내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4. 이 불성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므로 파괴할 수 없다. 차라리 모래나 자갈에 구멍을 낼수는 있을지언정 금강석에 구멍을 뚫을 수는 없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부서지는 일이 있어도 불성은 부서지지 않는다.

불성은 실로 가장 훌륭한 인간의 특질이다. 세상에는 남자는 훌륭하고 여자는 뒤떨어진다는 편견도 있으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그 불성에는 차이가 없다.

황금의 광석을 녹여서 그 찌꺼기를 버리고 잘 연금하면 귀한 황금이 된다. 마음의 광석을 녹여서 번뇌의 찌꺼기를 빼버리면,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다 동일한 불성을 열어 나타낼 수가 있다.

제 4 장 번뇌

제 1 절 마음의 티끌

1. 불성을 덮어버리는 번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도리에 미혹된 이지적인 측면의 번뇌이고, 둘째 실제에 미혹된 감정의 번뇌이다.

이 두 가지 번뇌는 모든 번뇌의 근본적인 분류이나, 이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무명과 애욕이다.

이 무명과 애욕은 모든 번뇌를 낳는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야말로 모든 번뇌의 원천인 것이다.

무명이란 무지를 말하는 것인데, 사물의 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애욕이란 격한 욕망으로 생에 대한 집착의 근본이며, 보거나 듣는 것의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죽음을 바라는 욕망이기도 하다.

이 무명과 욕망을 바탕으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 잘못된 견해, 원한, 질투, 아부, 자만, 오만, 비방, 방종 등 그 밖에 여러가지 번뇌가 생겨난다.

2. 탐욕이 생기는 것은 마음에 만족감을 채우려는 바르지 못한 생각을 품기 때문이다. 성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고, 바르지 않은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은 그 무명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모르는데서 일어난다.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세상의 세가지 불(火)이라 말한다. 탐욕의 불은 욕망에 빠져 진실한 마음을 잃은 사람을 태우고, 성냄의 불은 성을 내며 생명있는 것의 목숨을 해치는 사람을 태우며, 어리석음의 불은 마음이 미혹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을 태운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온갖 불로 타오르고 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 생로병사의 불, 걱정, 슬픔, 괴로움, 고통의 불 등 갖가지의 불에 의하여 활활 타고 있다. 이 번뇌의 불들은 자신을 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사람을

번뇌

몸, 입, 뜻의 세 가지 악행으로 이끌어 간다. 그리고 이 불들에 의하여 생긴 상처의 고름에 닿으면 독이 퍼져 끝내 악도에 떨어지고 만다.

3. 탐냄은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냄은 만족을 얻지 못하는 마음에서, 어리석음은 부정확한 생각으로부터 생겨난다. 탐냄은 허물은 적으나, 이것을 떠나기는 쉽지 않고, 성냄은 허물은 크나 이것을 떠나기는 쉬운 것이다. 어리석음은 허물도 크고, 여기서 떠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대상이 마음에 들어도 그 모습을 바르게 생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마음을 자제하여 부처님의 자비심을 키우며 이 세 가지 불을 꺼야만 한다. 사람들이 바르고 맑으며 사사로운 감정을 떠나 자비심으로 넘쳐 있다면, 번뇌에 미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4.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뜨거운 열과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열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넓고 아름다운 방안에 누워 있어도, 그 열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할

수 밖에 없다.

이 세 가지 번뇌가 없는 사람은 추운 겨울밤에 나무잎만 얇게 깔 침상에서도 기분 좋게 잘 수 있고, 무더운 여름밤에 문이 꼭 닫혀진 좁고 답답한 방안에서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다.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의 슬픔과 괴로움의 근원이다. 이 슬픔과 괴로움의 근원을 끊는 것은 계와 마음의 통일과 지혜이다. 계는 탐욕의 더러움을 없애버리고, 바른 마음의 통일은 성냄의 더러움을 없애고 지혜는 어리석음의 더러움을 없애버린다.

5.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그것은 꼭 짊어짐을 마신 사람이 오히려 갈증을 더 느끼는 것과 같다. 그는 언제까지나 만족하는 일이 없고, 갈증은 점점 더해갈 뿐이다.

사람은 그 욕망을 만족시키려 하나, 불만만이 쌓여서 초조하게만 된다.

사람은 결코 욕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거기에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어서 마음이 미칠 것만 같아 진다.

번뇌

사람은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고 욕심때문에 싸운다. 왕과 왕, 신하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 형과 아우, 언니와 누이, 친구와 동지끼리 이 욕망 때문에 서로 눈이 어두어져 서로 다투고 서로 죽인다.

또 사람은 욕심 때문에 몸을 망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간음한다. 때로는 잡혀가서 온갖 형벌을 받고 여러가지 고통을 받는다.

또 사람은 한 때의 만족이 종국에는 불행과 고통이 될 것을 잘 알면서도 욕망 때문에 몸과 입과 뜻으로 자꾸만 죄를 지으니 살아서도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죽어서 후세에도 암흑의 세계에 들어가 온갖 고통을 받는다.

6. 애욕은 번뇌의 왕이라 온갖 번뇌가 이를 따른다.

애욕은 번뇌의 새싹을 움트게 하는 습지이며, 여러 번뇌를 낳는다. 애욕은 선을 잡아먹는 귀녀(鬼女)여서 모든 선을 멸하게 한다. 애욕은 꽃밭에 숨어든 독사며, 욕망의 꽃을 탐내는 사람은 그 독사에 물려 죽는다. 애욕은 나무를 시들게 하는 덩굴이

니, 사람의 마음을 감아 사람의 마음 속의 선한 물을 빨아버린다. 애욕은 악마가 던진 먹이여서 사람은 이것에 걸려 악마의 길로 빠져든다.

끓주린 개에게 피를 바른 뼈다귀를 주면, 개는 그것을 뜯느라 애를 쓰다가 끝내 지쳐 쓰러지고 만다. 애욕에 빠진 사람도 뼈를 뜯는 개처럼 기진할 때까지 탐닉한다.

한 조각의 고기 덩어리 때문에 짐승들은 서로 다투고 물어 뜯는다. 횃불을 들고 바람을 마주보고 선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운다. 고기 조각을 놓고 싸우는 짐승처럼, 횃불로 제 스스로를 태우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제 몸을 태운다.

7. 밖에서 날아오는 독화살은 막을 수 있으나 안에서 자라나는 독화살은 막을 길이 없다.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오만은 모두 안에서 자라난 독화살이다. 이 독화살은 마음 속에서 생겨 제 마음을 치명적인 독으로 물들인다.

마음에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을 때에는 입으로는 거짓

번뇌

말과 욕설과 이간질하는 말과 진실이 담기지 않은 말을 하게 되고, 몸으로는 살생과 도둑질과 빼돌어진 애욕을 일으키게 된다.

뜻으로 행하는 세 가지 악한 업과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한 업 그리고 몸으로 행하는 세 가지 악한 업을 합하여 십악업이라 한다.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게 되면, 어떠한 나쁜 일이라도 범하게 된다. 나쁜 짓을 행하기에 앞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나쁜 짓을 보통으로 하게 된다.

사람의 탐냄과 애욕, 두려움과 성냄은 모두 어리석음에서 오며, 사람의 불행이나 어려움도 또한 어리석음에서 온다. 어리석음은 실로 이 세상의 가장 지독한 독이다.

8.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괴로움을 불러들인다. 번뇌와 업과 괴로움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바퀴와 같다.

이 바퀴의 회전에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윤회로부터 빠져나올 방법을 모른다. 영겁토록 빙빙도는 윤회의 수레바퀴에 실려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다음의 삶으로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해가는 것이다.

끝없는 윤회 사이에서 한 사람이 태워버린 자신의 뼈를 쌓아 올린다면 산보다도 높아지고, 또 그 동안에 먹은 어머니의 젖을 모은다면 바닷물보다도 더 많으리라.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고는 하나 번뇌의 진흙이 너무나도 깊어 그 새싹이 트기가 쉽지 않다. 불성의 싹이 트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통과 비참한 삶은 끝이 없다.

사람이 탐욕에 굴복하는 한 분노와 어리석음과 사악한 행위가 쌓이고 이런 상황이 끝없이 재생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악의 근원이 사라지고 이 괴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제2절 사람의 성질

1. 사람의 성질은 꼭 입구를 찾을 수 없는 대밭처럼 알기 어렵다. 이것에 비하면 짐승의 성질은 오히려 알기 쉽다. 이렇

번뇌

게 알기 어려운 사람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네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스스로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고행한다. 둘째, 남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거나 도둑질 한다거나 그 밖에 여러가지 잔혹한 일을 한다. 셋째, 스스로 괴로워함과 동시에 남도 괴롭히는 사람이다. 넷째, 자기 스스로도 괴로워하지 않고, 또 남도 괴롭히지 않는 사람으로 욕망을 떠나 평안하게 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 하지 않으며 맑은 행을 하는 사람이다.

2. 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바위에 새긴 글자와 같은 사람과 모래 위에 쓴 글자와 같은 사람과, 물 위에다가 쓴 글자와 같은 사람이다.

바위에 새긴 글자와 같은 사람이란 때때로 성을 내어, 그 성념을 오래 지속하고, 새겨놓은 글자처럼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다.

모래 위에 쓴 글자와 같은 사람이란 화를 종종내나 그 화가 모래 위에 쓴 글자처럼 빨리 없어지는 사람이다.

물 위에다가 쓴 글자와 같은 사람이란 물 위에 글자를 써도

흘러가버려 그 형태를 남기지 않듯이 남의 욕설이나 불쾌한 말을 들어도 조금도 마음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온화한 마음이 넘쳐있는 사람이다.

또 이 밖에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그 성질이 알기 쉽고, 오만하며, 경솔하여 항상 침착성이 없는 사람이다. 둘째, 그 성질을 알기 어렵고 겸손하여, 모든 일에 착실하며 욕망을 참는 사람이다. 셋째, 그 성질을 도저히 알 수 없고, 자신의 번뇌를 멸해버린 사람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으나, 실은 사람의 성질을 쉽게 알 수는 없다. 오직 부처님만이 이 성질들을 알아서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나타낸다.

제3절 현실의 인생

1. 여기에 인생을 비유한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강물의 흐름에 따라 배를 띄워 내려간다고 하자. 강 언덕에 선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물살을 타고 기분 좋게 내려가는 것을 멈추어라, 그 하류에는 물살이 세고 소용돌이가 있으며 악어와 무서운 두역시니(夜叉)가 사는 못이 있다. 그대로 흘러 내려가면 죽고

번뇌

말 것이요.”라고.

이 비유에서 ‘강물의 흐름’이란 애욕의 생활을 말하며, ‘기본 좋게 흘러 내려간다’ 함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며, ‘물살이 세다’라고 함은 성냄과 번뇌하는 생활을 나타내며, ‘소용돌이 친다’ 함은 쾌락을 나타내고, ‘악어와 무서운 두억시니가 사는 못’이라 함은 죄로 말미암아 파멸해버리는 생활을 가리키며, ‘강 언덕에 선 사람’이란 부처를 말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비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도망을 쳤다. 쫓아오는 사람들이 뒤에서 바짝 따라오자 그는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았다. 그러다가 문득 밀을 보니 오래 된 우물이 있고, 거기에는 등덩굴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등덩굴을 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려는데, 그 밑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등덩굴을 목숨줄로 하여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드디어 어깨가 빠질 것만큼 아파진다. 그 위에 흰 쥐와 검은 쥐 두마리가 나타나 그 덩굴을 갉기 시작한다.

등덩굴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밀으로 떨어져서 뱀의 먹이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때 문득 머리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입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자신이 위험한 지경에 놓였는 지는 까맣게 잊고 꿀맛에 정신이 팔리고 말았다.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이란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 고독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며, ‘쫓아오는 사람’이나 ‘독사’는 그 욕망의 근본이 되는 자신의 욕신을 말하며, ‘우물의 등덩굴’이라 함은 지속되는 사람의 생명을 말하며, ‘흑백의 두마리 쥐’는 세월을 나타내며, ‘꿀물’이란 눈 앞에 펼쳐지는 욕신의 쾌락을 뜻한다.

2.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자. 왕이 한 상자속에 독사 네 마리를 넣고, 한 사나이에게 그 독사를 키우도록 명하기를, 만일 한 마리라도 성내게 하면, 그 대신 사나이의 목숨을 빼기로 하였다. 사나이는 왕의 명령이 두려워 상자를 버리고 도망쳤다.

이것을 안 왕은 다섯의 신하에게 명하여, 그 뒤를 쫓게 하였다. 그 신하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달콤한 말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사나이는 이것을 믿지 않고, 또 다시 도망가서

번뇌

어떤 마을로 들어가 숨을 집을 찾았다.

그 때 하늘에서 들리는 말이 이 마을에는 사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오늘 밤에는 여섯의 도적이 와서 덮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놀라서 또 그곳으로부터 도망쳤다. 그의 앞 길에는 거센 물결을 일으키며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이 있었다. 강을 건너기가 여간 어렵지 않으나, 이쪽이 더 두려워서 뗏목을 만들어 타고 가까스로 건너가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네마리 독사가 든 상자’란 땅, 물, 불, 바람의 사대요소로 이루어진 육신을 말한다. 이 몸은 육망의 근본이며 마음의 적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 몸을 피하여 도망쳤던 것이다.

‘다섯의 신하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역시 육신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를 뜻한다. 즉 색깔과 형체, 감정, 지각, 의지, 의식 이라는 다섯 가지이다.

‘숨을 안전한 집’이란 인간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뜻하며, ‘여섯의 도적’이란 이 감각기관에 대한 여섯 가지 대상을 말한다. 이와 같이 관능의 위험한 것을 보고, 또 도망쳐서 ‘물결이

거센 강을 봤다' 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소용돌이 치는 생활을 말한다.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번뇌의 강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뗏목으로 삼아 평안한 피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세상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구할 수 없고, 자식도 어머니를 구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즉 큰 화재와 큰 수해와 큰 도난이다. 그러나 이 세 경우에도 때로는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러나 여기에 어머니와 자식이 서로 절대로 구해줄 수 없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것은 늙음의 두려움과 병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이다.

어머니가 늙어가는 것을 자식이 어떻게 이것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자식이 앓는 모습에 안타까워 우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의 대신에 앓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모자지간이라 해도 자식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은 대신할 수가 없는 법이다. 아무리 끈직하게 사랑하는 모자 사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서로

번뇌

도울 수가 없는 것이다.

4.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죄인과 염라대왕의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너는 인간세계에 있을 때에 세 사람의 천사를 만나지 않았더냐? 대왕이시여!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다면, 너는 늙어서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어정어정 걷는 사람을 못 보았느냐? 대왕이시여! 그런 인물들이라면 얼마든지 보았나이다. 너는 그 천사를 만나고서도 네 자신도 늙어가는 것이고, 서둘러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생각지 않았기에 오늘의 업보를 받게 되었다.

너는 병에 걸려 혼자서 눕지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보기에든 측은한 여위고 초라한 사람을 보지 않았더냐? 대왕이시여! 그런 병자라면 얼마든지 보았나이다. 너는 그 병자라는 천사를 만나고도 자기가 병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어리석었기에 이 지옥으로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 주위에서 죽은 사람을 보지 못했더냐? 대왕이 시여! 죽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보았나이다. 너는 죽음을 경고하는 천사를 만났으면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기를 게을리 했기에 이 업보를 받게 되었다. 네 자신이 지은 일은 네 스스로가 그 과보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5. 키사코타미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유복한 가정의 며느리였는데 어느 날 끔찍이도 사랑하던 어린 외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슬픔을 견디다 못해 반미치광이가 되어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를 안고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죽은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소연하였다.

이 미친 여자를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부처님의 신자가 그녀를 보고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라고 권하였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곧 아이의 주검을 안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다.

세존은 불쌍하게 여기시어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시다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인이여!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면 겨자씨가 필요하다. 마을에 가서 너댓알만 얻어 얻어 오도록 해라. 그런데, 그

번뇌

겨자씨는 아직까지 한번도 죽어 간 적이 없는 집에서만 얻어 와야 한다.”라고 하였다.

제정신이 아닌 어머니는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얻으려 했으나, 겨자씨는 많은데 아직까지 죽어서 나간 적이 없는 집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겨자씨를 구하지 못한 채, 세존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세존의 고요한 모습을 접하는 순간 그제서야 세존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식의 차디찬 주검을 땅에 묻고서 세존에게 귀의하여 제자가 되었다.

제 4 절 미혹의 모습

1. 이 세상 사람들은 인식하여 서로 가까이 지내거나 사랑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괜한 일로 서로 다투고, 지독한 해악과 괴로움 속에 놓인 채 겨우 그날 그날을 불행하게 살아간다.

신분의 고하와 부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가 돈 때문에 괴로워 한다. 없으면 없어서 괴로워 하고, 있으면 있어서 괴로워 하고, 오로지 욕망을 위해서만 마음을 쓰니 한시도 편안할 때가 없다.

부자는 재산 때문에 걱정한다.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걱정하고, 온갖 다른 소유물에 집착하고 또 집착하여 걱정만 쌓여간다. 때로는 재난을 만나 곤경에 빠질까봐 걱정하고, 도둑에게 빼앗기고 화마에 전 재산을 모조리 잃어버릴까봐, 유괴범에게 납치당할까봐 걱정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음과 재산처리 문제로 괴로워하다 목숨까지 잃게 된다. 하지만 죽음의 길은 저 혼자 가야할 뿐 따라가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부족하여 괴로워 하니, 집을 갖고 싶어하고, 논밭을 갖고 싶어한다. 이와 같은 욕망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 버린다. 이 때문에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죽어 버리는 수도 있다.

모든 세상이 자신을 적대시한다고 생각하다가 이윽고 저승가는 길에 들어서지만 함께 나서는 이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멀고 먼 길을 쓸쓸히 가야 한다.

2. 또 이 세상에는 다섯 가지 악이 있다. 첫째,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강한 것은 약한 것을 넘어뜨리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속이고 서로 영켜

번뇌

으르렁 대고 있다.

둘째, 아버지와 자식, 형제, 부부, 친족들 사이에 저마다 분별하고 지켜야 할 도덕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오직 자기만 중시하여 욕망을 채우고, 서로 속이며 진실함이 없다.

셋째, 누구나 다 샅된 마음과 음탕한 생각으로 마음을 태우며 남녀 간의 도가 없고 그 때문에 무리를 만들어서 다투기도 하며 늘 잘못된 길만을 걷고 있다.

넷째, 서로 착한 행동을 하려 들지 않고, 서로 가르쳐가며 악한 행위를 하며, 거짓말 하며 쓸데없는 말, 욕설, 이간질 하는 말을 하며 서로 중상을 하고 있다. 서로 존경할 줄은 모르고, 자기만이 훌륭하다고 으시대며 남에게 해를 입히고도 돌아보지 않는다.

다섯째, 모든 사람들이 게을러 착한 행위를 할 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의무도 모르며, 그저 욕심나는 대로 행동하여 남을 괴롭히고 결국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

3. 사람은 서로 경애하고 서로 베풀어 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만 한다. 때가 지나갈 수록 이것이 점점 커져서 큰 원한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

이 세상의 증오감은 서로 상처를 입히기는 해도 금방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독한 마음을 품고 화가 차곡차곡 쌓여 마음속 깊이 새겨져 버리면 수없이 생사를 윤회하면서 서로 해를 입히거나 죽고 죽인다.

사람은 이 애욕의 세계에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죽어간다. 미래의 업보를 대신하여 받아줄 사람도 없으니 자기 혼자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인과의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선과 악은 각각 그 과보가 다르니 선은 행복을 악은 재앙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업을 짊어지고, 과보가 정해진 곳을 향하여 홀로 나아간다.

4. 탐욕과 나쁜 버릇과 번뇌의 사슬에 매이면 오랜 세월이

번뇌

흘러도 낙담과 슬퍼하는 마음을 풀 수가 없다. 그러한 사슬에 빠지면 최악에 휘감겨 남과 다투게 되며, 진실한 도에 다가갈 수 없으며 사악한 행동으로 수명도 다 되기 전에 죽음을 맞고 영겁토록 괴로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자연의 도에 어긋나고 천지의 도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게 되며, 이 세상에서 처럼 저 세상에서도 괴로움을 시달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야말로 세속사는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의지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힘이 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런 속에서 모두가 다 쾌락의 불모가 되어 있는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이와 같은 상태가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습이며,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서 태어나서 그저 악한 일만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 그러므로 자연의 도리에 의하여 더욱 더 괴로운 업보를 피할 수가 없다.

오직 자기에게만 아낌없이 후하게 하고, 남에게 베풀 줄을 모

른다. 더우기 욕망에 물들어 모든 번뇌를 일으켜서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괴로워한다.

세상의 영화는 영속하지 않으며 속절없이 지나간다. 이 세상의 쾌락도 어느 한 가지도 영속하는 것은 없다.

6. 그러므로 사람들은 세속의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젊고 건강할 때에 도를 구하여 참된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도를 얻는 것을 제쳐놓고 무엇에 기대고 무엇에서 즐거워 할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기심과 탐욕의 습관에 젖어 착한 일을 하면 행복을 얻고, 악한 일을 하면 불행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또 사람이 현세에서 행한 과보에 따라 내세가 결정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이 행한 죄과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현재 하는 행동이 내세에 미치는 중요성과 지금 겪는 고통이 전생에서 한 행동의 결과라는 이치를 알지 못한 채 오직 눈 앞에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울며불며 한탄하고 매달린

변뇌

다.

영원히 지속되며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덧없고 예측할 수 없이 변해간다. 사람들은 무명에 빠져 자기만에 집착하고 덧없는 것에 매달려 괴로워할 줄만 알지 바른 가르침을 듣거나 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눈앞의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돈과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다.

7. 사람들이 먼 옛날부터 고통과 미혹의 세계에 태어났고 지금도 계속 태어난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거둬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탐욕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힘써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다행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청정한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이상은 남을

번뇌

따라서 번뇌나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만의 것으로 삼지 말고 실천하여 남에게도 가르치지 않으면 안된다.

제 5 장 부처님의 구원

제 1 절 부처님의 서원

1. 이미 설한 것처럼 사람들은 끊기 어려운 번뇌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아주 먼 옛날부터 태산 같은 죄업을 짊어진 채 미혹에 미혹을 거듭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비록 불성의 보물을 갖추고 있어도 번뇌를 없애고 참된 불성을 드러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부처님은 먼 옛날에 한 사람의 보살이 되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대자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많은 서원을 세웠다. 설령 이 몸이 어떠한 괴로움의 독 속에 놓여 있어도 반드시 노력하여 꼭 이루리라 맹세하였다.

(a)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내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성불한 몸이 되어 깨달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b)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나의 광명에 한계가 있어서 세계의 끝까지 비출 수가 없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c)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나의 수명에 한계가 있어 무한한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d)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가 모두 함께 찬탄하여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e)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시방의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깊은 신심을 일으켜 나의 나라에 태어나려고 열 번이나 내 이름을 염송하여도 나의 나라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f)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시방의 모든 사람들이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 많은 공덕을 쌓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을 세워 나의 나라에 태어나려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수

부처님의 구원

명이 다 할 때 나의 정토로 그들을 영접하는 위대한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g) 비록 내가 부처가 되어도 시방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고, 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많은 공덕의 근본을 심고 열심히 회향하여, 나의 나라에 태어나려 하는데,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h)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나의 나라에 와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음의 생애에 부처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다만, 스스로의 서원에 따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위대한 서원을 세우고,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위대한 자비의 덕을 베푸는 사람들은 예외이다.

(i)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광명에 닿아 몸도 마음도 화평해지고,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 훌륭하게 되고 싶어 할 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j) 비록 내가 부처가 되었다 하여도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듣고 생사에 얽매에는 일이 없는 깊은 신념과 거침없는 깊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나는 지금 이와 같은 맹세를 세운다. 만약에 이 서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맹세코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 끝 없는 광명의 주인이 되고, 모든 나라들을 비추어 세상의 고뇌를 없애주고, 사람들을 위하여 가르침의 창고를 활짝 열어 널리 공덕의 보화를 베풀 것이다.

2.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워서 다함 없는 긴 세월에 공덕을 쌓고, 청정한 나라를 만들어, 이미 옛날에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이신 아미타 부처가 되어 지금에는 저 극락세계에 머무시며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그 나라는 맑고 안락하여 고뇌를 여의고 깨달음의 즐거움이 넘치고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입는 옷과 먹는 음식, 그 밖의 온갖 좋은 물건들은 사람들이 속으로 바라기만 하면 그대로 나타나다. 상쾌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보석 나무들을 스쳐 지

부처님의 구원

나가면 거룩한 가르침의 소리가 음악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가서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마음의 때가 씻겨 나간다.

또 그 나라에는 여러 가지 색의 연꽃이 만발하여 꽃송이마다 헤아릴 수 없는 꽃잎이 있고, 그 꽃잎마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꽃빛을 눈부시게 비추는데 그 빛마다 제각기 지혜의 가르침을 설하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들은 이는 누구라도 평화롭고 안락해 진다.

3. 이제 시방의 모든 부처들이 무한한 빛과 끝없는 생명이신 이 부처님의 훌륭한 덕을 찬양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든 이 부처의 이름을 듣고서 찬송하고 한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 그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그 불국토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불국토에 이르는 사람들은 모두 수명에 끝이 없고, 또 스스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구하겠다는 서원에 따라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이 서원들을 세움으로써 세속에 대한 집착을 떠나 무상을 깨닫는다.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들이 감각적 세속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회향하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망상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자비심 속에서 살아가고 이 세속 생활에 속박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활이 얼마나 장애가 많고 괴로운지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처님의 자비가 무한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집착이 없어 너와 나라는 구별도 없고 마음먹은 대로 오고 가며, 마음먹은 대로 자유롭게 나아가고 멈춘다. 그들은 부처님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 자가 용기를 얻어 굳은 믿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을 염송하면 그 사람은 부처님의 자비를 얻으리라. 설령 이 세계를 태우고 있는 시뻘건 불 속에 뛰어 들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한다.

만약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면 아무래도

부처님의 구원

이 부처님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처님의 도움없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4. 지금 이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로부터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부처님 나라는 아주 먼 곳에 있으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송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도 있다.

먼저 이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 속에 생각해 보면 천만의 금빛으로 빛나며, 팔만사천의 모습과 특징이 있다. 그 하나 하나의 모습이나 특징에는 팔만사천의 빛이 있고, 그 하나하나의 빛은 염불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지 않고 포용하여 버리지 않는다.

이 부처님을 예배하는 자는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의 마음은 모든 중생에게 크나큰 자비를 갖고 계시니 신심을 갖고 있는 자는 물론이요 부처님의 자비를 전혀 모르거나 잊어버린 사람들까지도 구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부처와 하나가 될 기회를 준다. 이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며 모든 곳에 넘

쳐있는 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은 실로 순결
하고 행복하고 원만한 모습을 갖춘 부처인 것이요,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 것이다.

맑고 바른 신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부처의 마
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5. 부처님은 무수한 변용과 화신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여러 가지로 모습을 나타내신다

부처님은 몸을 크게 나타내 보이실 때는 온 하늘에 가득하며
모든 성좌를 감싸는 무한한 우주공간에 뻗치시고, 작게 나타나
보이실 때는 미세한 먼지와 같이 되신다. 때로는 형상으로, 때
로는 에너지로, 때로는 정신의 현상으로 때로는 인물로 나타내
보이신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지극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

부처님의 구원

는 사람 앞에 반드시 나타나신다. 그 때에는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과 지혜의 화신인 대세지보살을 거느리고 염불하는 사람을 맞이하러 온다. 부처님의 화신은 모든 세계에 넘쳐 있으나, 신심을 갖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화신으로 나타내신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생각만 하여도 한없는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참된 부처님을 친견한다면 그 기쁨과 평안의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6. 이 아미타 부처님의 마음은 오직 크나큰 자비와 지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구한다.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 속에서는 탐냄과 성냄과 이리석은 생각을 품고, 입으로는 거짓말, 쓸데없는 말, 욕설, 이간질 하는 말을 하고, 몸으로는 살생하고 도둑질과 간음을 범하는 십악업을 행하고 죽음에 임박한 자는 그 때문에 영원히 미래에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런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날 좋은 친구가 와서 간곡히 ‘그

대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평생에 저지른 죄업을 벗을 수 없지만 그저 이 부처님의 이름만이라도 소리내어 불러보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일러준다.

이런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한 소리 한 소리 속에 한량없는 미혹의 세계로 끌고 갈 수많은 죄가 깨끗이 씻겨나간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만 이 거룩한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계속 불러서 미혹한 세계로 끌고 갈 한없는 죄까지도 영원히 없앨 수 있다면, 하물며 일심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그 공덕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죽음에 임박해서 염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자비와 지혜의 두 보살이 그의 벗이 되어주니 그는 부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 마침내 백련화 정토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무아미타불 혹은 무량광무량수불께 귀의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몸에 간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절 청정한 국토

1. 이 무량광무량수 부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면서 진리의 광명을 끝없이 발산하고 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괴로움과 어둠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오직 즐거운 날만을 보내고 있으므로 극락정토라고 하는 것이다.

그 나라에는 일곱 개의 보물로 되어 있는 연못이 있고, 그 속에는 맑은 물이 고여 있고, 연못 밑에는 황금모래가 깔리고, 수레바퀴같은 큰 연꽃이 피어있다. 그 연꽃은 푸른 꽃에는 푸른 빛이 노란 꽃에는 노란빛이 붉은 꽃에는 붉은 빛이 흰꽃에는 흰 빛이 있어서 맑은 향기를 풍기고 있다.

또 연못의 주위에는 금, 은, 청옥, 수정의 네 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진 누각들이 여기 저기 서있는 데, 그 누각에는 대리석으로 만든 계단이 있다. 또 다른 장소에는 연못 위를 가로지르는 난간이 있는데, 보옥으로 장식된 막으로 둘러쳐져 있다. 또 그 사이에는 향긋한 나무들이나 꽃피는 관목이 뺨뺨이 우거진 숲이 있다.

하늘에는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대지에는 황금 빛이 영롱하게 비추며 밤낮으로 하루에 여섯 차례 하늘에서 우아한 색조를 띤 꽃잎이 비처럼 내린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화분에 담아 다른 모든 부처님의 나라로 가지고 가서 무수한 부처님들에게 공양한다.

2. 또 이 나라의 뜰에는 백조, 공작, 앵무새, 백설조, 가릉빈가 등 수많은 새들이 항상 우아하게 지저귀고 있다. 이 불국토에서 즐겁게 지저귀는 새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공덕을 찬송하고 있다.

이 새들의 음악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부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여 부처님을 향한 믿음과 가르침을 듣는 기쁨이 더욱 새로워지고 그 나라 모든 이들과의 우정이 한결 도타워 진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불국토의 보석나무 사이를 지나면 정자의 향기로운 장막을 흔들면서 미묘한 소리를 내고 일시에 백천의 음악이 연주된다.

이 소리를 듣는 자는 자연히 부처를 염송하게 되고 가르침을

부처님의 구원

생각하며 사람들의 화합을 꾀하게 된다. 그 불국토는 이와 같은 공덕과 아름다운 장식들을 갖추고 있다.

3. 어찌서 이 나라의 부처님은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 이름 지어져 있는가. 저 부처님의 빛은 한량이 없고, 시방의 나라들을 비추어 조금도 막히는 일이 없다. 또 수명도 한량이 없으므로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태어나 완전히 깨닫고 다시는 미혹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부처님의 광명에 의하여 새로운 생명에 눈뜨는 사람들의 수는 무량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 부처의 이름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하루 혹은 칠일 간에 걸쳐서 마음을 하나로 하여 동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 이 부처님은 많은 성자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를 부처님의 정토로 인도하시므로 그 사람의 마음은 전도되는 일이 없이 곧 그 나라에 태어날 수가 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이 가르침을 믿는다면, 여러 부처님들에게 수호되어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정진

제 1 장 깨달음의 길

제 1 절 마음을 청정하게 하다

1. 사람에게에는 미혹과 괴로움의 근본인 번뇌가 있다. 이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다섯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사물을 올바르게 보고, 그 원인과 결과를 잘 가린다.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마음속의 번뇌이기 때문에 그 번뇌가 없어지면, 괴로움이 없는 경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잘못된 견해 때문에 자아라는 생각과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는 생각이 생겨서 잘못된 견해에 빠져 번뇌를 일으키고 미혹되어 괴로워하게 된다.

둘째, 욕망을 억누르고 억제함으로써 번뇌를 가라 앉힌다. 밝은 마음에 의하여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 군데에 일어나는 욕망을 억제하여 번뇌가 일어나는 근원을 끊어버린다.

셋째, 물건을 쓸 때에 생각을 바르게 한다. 옷이나 음식물을 쓰는 것을 향락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옷은 덮고 추운

것을 막고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며, 먹는 것은 도를 닦는 근본이 되는 몸을 보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바른 생각 때문에 번뇌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넷째, 무슨 일이나 인내하는 일이다. 추위, 더위, 배고픔, 갈증을 참고 견디어 매도나 비방을 받아도 참고 견딘다. 이 인내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몸을 태워 없애는 번뇌의 불은 타오르지 않게 된다.

다섯째, 가서는 안될 곳, 어울려서는 안될 벗은 멀리한다. 이렇게 하면 번뇌의 불꽃은 꺼져버리는 것이다.

2. 세상에는 오욕이 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보는 맛, 몸에 닿는 느낌 이 다섯 가지를 기분 좋게 그리고 즐겁게 느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육체의 즐거움에 마음이 끌려,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재앙은 보지 않는다. 이것은 꼭 숲속의 사슴이 사냥꾼의 함정에 빠져 잡혀듯이 악마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린 것이다. 그야말로 이 오욕은 함정이며, 사람들은 이것에 걸려 번

깨달음의 길

뇌를 일으키고 괴로워 한다. 그러므로 이 오욕의 재난을 보고,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3. 그 방법은 한 가지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뱀과 악어, 새와 개, 여우와 원숭이 같은 그 습성을 달리하는 여섯 가지 동물을 잡아서 새끼줄로 묶어 그 줄들을 서로 묶어 놓아준다고 하자.

이 때에 여섯 가지 동물들은 그 나뉠대로의 습성에 따라 각각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려 한다. 뱀은 굴로, 악어는 물속으로, 새는 하늘로, 개는 마을로, 여우는 들로, 원숭이는 숲속으로 제 각기 갈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간다.

마치 이 비유처럼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맛본 맛, 몸에 닿는 느낌, 뜻으로 생각하는 것 등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센 유혹쪽으로 끌려가 그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섯 가지 동물들을 새끼줄로 묶어 그것을 튼튼한 기둥에 매어 둔다고 하자. 처음에는 그 동물들은 서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려고 하나, 드디어 힘이 빠져 그 기둥 옆에 지쳐서 눕게 된다.

이와 같이 만약에 사람이 그 마음을 닦고, 그 마음을 단련해 두면 다른 오욕에 끌려가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제어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행복을 얻을 것이다.

4. 사람들은 욕망의 불이 타는대로 화려한 명성을 구한다. 그것은 마치 향이 향대를 풍기며 스스로 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부질없이 명성을 구하고, 명예를 탐내고, 도를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몸은 위태롭고 마음은 뉘우침에 괴로워 할 것이다.

명예와 재물과 색향을 탐내는 것은 꼭 어린아이가 칼날에 발라진 꿀을 핥는 것과 같다. 달콤한 맛에 취해 있을 때, 혀를 베게 되는 위험을 당하게 된다. 애욕을 탐내어 만족을 모르는 자는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다. 손을 데이고 몸을 데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에 넘쳐있는 자신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된다. 자기의 마음을 아무렇게나 해서 안된다. 마음을 눌러 욕망에 기울지 않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깨달음의 길

다.

5. 깨달음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자는 욕망의 불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 마른 풀을 쫓아진 자가 들불을 보고 피하듯이 깨달음의 길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이 욕망의 불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그것에 마음이 쏠릴 것이 두려워 눈을 도려 파내려는 자는 어리석다. 마음이 주인인 까닭에 사악한 마음을 끊으면, 중에 불과한 눈의 끌림은 곧 멈춘다.

도를 구하기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도를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더욱 괴롭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고통은 끝이 없다.

도를 구해가는 것은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진흙 속을 갈 때에 아무리 지쳐도 옆눈을 팔지 않고 앞으로 나가다가 그 진흙 속을 벗어나서야 한숨을 내리쉬는 것과 같지 않으면 안된다. 욕망의 진흙은 더욱 깊으나 마음을 바르게 하여 도를 구해가면, 진흙 속을 떠나게 되며 고통은 없어질 것이다.

6. 도를 구해가는 사람은 마음의 오만을 없애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빛으로 몸을 치장해야 한다. 어떠한 금은보화의 장식도 지혜와 덕으로 장식한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몸을 건강히 하고, 한 가정을 번영시켜서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려면, 우선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된다. 마음을 가다듬으면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지혜와 덕은 스스로 그 몸에 배인다.

보석은 땅에서 나오며, 덕은 선으로부터 나타나며 지혜는 고요하고 맑은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광야와 같이 넓은 인생의 미로를 살아가려면, 이 지혜의 벼에 의지하여 가야할 길을 비추고 덕의 장식품으로써 몸을 주의해가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을 버리라고 설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훌륭한 가르침이며, 그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은 좋은 생활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7. 사람의 마음은 자칫하면 그가 구하는 쪽으로 기운다. 탐할 것을 생각하면 탐심이 생긴다. 성낼 것을 생각하면 성내는 마음이 더 강해진다. 어리석은 일들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마음

깨달음의 길

만 더욱 커진다.

소치기는 가을의 추수기가 되면 방목하는 소를 몰아 외양간에 가둔다. 이것은 소가 곡물들을 어질러서 향의를 받는다든지 또는 도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사람도 그와 같이 좋지 않은 일로부터 일어나는 재난을 보고 마음을 가다듬어 나쁜 생각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버려,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자선과 친절을 불러오는 마음을 기르지 않으면 안된다.

소치기는 봄이 되어서 들판의 풀이 싹트기 시작하면 소를 방목한다. 그러나 소의 무리들의 행방을 지켜보며 그들이 있는 곳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행방을 지켜보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세존이 코삼비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세존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거리의 악당들을 매수하여 세존의 욕을 하게 하였다. 세존의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 탁발하려 해도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었고, 오직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그 때에 아난다는 세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런 곳에 머무를 것이 아닙니다. 딴 곳에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난다여! 다른 곳도 이러하면 어쩔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러면 또 딴 곳으로 옮기지요.” “아난다여! 그렇다면 어디까지 가도 한이 없다. 나는 비방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을 꼭 참고 비방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딴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난다여! 부처는 이익, 해로움, 중상, 명예, 칭찬, 비방,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이 세상의 여덟 가지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일이 없다. 이런 일들은 얼마 뒤에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제 2 절 선행

1. 도를 구하는 자는 항상 몸, 입, 뜻의 세 가지 행을 맑게 할 것을 마음먹지 않으면 안된다. 몸의 행을 맑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이 있는 것을 죽이지 않으며, 도적질을 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입의 행을 맑게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욕설을 하지 않으며, 이간질을 하지 않으며,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뜻의 행을 맑게 한다는 것은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잘못된 견해를 갖지 않는 것이다.

깨달음의 길

마음이 흐리면 행하는 것도 더러워지고, 행하는 것이 더러워지면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맑게 하고 행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도의 요체이다.

2. 옛날에 어떤 돈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는 친절하고 정숙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 집에 하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녀는 영리하고 부지런히 일하였다.

어느 날 그 하녀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집 주인은 정말로 평판이 좋은 여자인데, 정말 본래부터 그렇게 생긴 사람일까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디 한 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하녀는 다음 날 일부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고, 낮이 되어서야 얼굴을 내밀었다. 주인은 기분이 나빠져서 왜! 이렇게 늦었는가? 라고 꾸짖었다. 그러자 하녀는 하루쯤 늦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꾸하니 주인은 벌컥 화를 냈다.

그런데 하녀는 다음 날도 늦게 일어났다. 주인은 화를 참지 못해 그녀를 때렸다. 이런 일이 소문이 나서 그 과부는 이제까지의 좋았던 평판을 한 번에 잃고 말았다.

3. 누구나 이 여주인과 마찬가지로이다. 환경이 모두 자신의 마음에 맞으면 친절하고 겸손하고 차분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자기에게 언짢은 말이 귀에 들려 왔거나 상대가 분명히 자기에게 적의를 품어 왔을 때 또는 의식주가 용의하게 얻어지지 않을 때, 이런 때에도 역시 고요한 마음과 선행을 지속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환경이 모두 자신의 마음에 들 때만 고요한 마음을 갖고 착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진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단련된 사람이야말로 고요하고 겸손하며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4. 사람이 하는 말은 대체로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이 경우에 맞는 말과 맞지 않는 말, 사실에 맞는 말과 맞지 않는 말, 상냥한 말과 거칠은 말, 유익한 말과 유해한 말, 자애로운 말과 증오의 말 등 이다.

깨달음의 길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그 말을 들을 사람과 그 말이 끼칠 영향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가려서 해야 한다. 동정심이 충만한 사람은 사악한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저항감이 생길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에 분노나 증오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언제나 동정심과 지혜를 담은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쟁기와 쟁이를 들고 이 대지의 흙을 없애려고 흙을 파헤치면서 ‘흙이여 없어져라!’ 라고 하여도 흙을 없앨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모든 말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바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을 하여도 마음을 가다듬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채워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또 물감으로 공중에다 그림을 그리려 해도 사물의 모습을 그려 낼 수가 없고, 또 마른 풀로 만든 햇불로 대하의 물을 마르게 하려 해도 할 수 없으며, 또 잘 다듬은 부드러운 가죽을 마찰하여 까실까실한 깨지는 소리를 내려고 해도 소리가 나지 않듯이,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마음을 키워가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은 마음을 대지와 같이 넓게 하늘과 같이 끝 없게 대화와

같이 깊게 다듬어진 가죽처럼 부드럽게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

비록 적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도, 그 때문에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킨 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미움이나 성내는 말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동정과 연민이 있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감싸야겠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5. 어떤 사람이 밤에는 연기가 나고 낮에는 타오르는 개미집을 발견하고서 현자에게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일러주었다. “그러면 칼로 깊이 파 들어가 보시오.” 그가 일러준 대로 그 개미집을 파보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장도리가 나오고, 다음에는 물거품, 다음에는 작살 그리고 상자, 거북이, 소잡는 칼 그리고 한조각의 고기덩이가 나오더니, 결국 용이 나왔다. 현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나온 물건들은 모두 버리고 용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였다.

이것은 비유이다. 여기에서 ‘개미집’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을 말한다. ‘밤에는 연기가 나다’라는 것은 낮에 한 일을 밤이

깨달음의 길

되면 여러가지로 생각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낮에는 타오른다’ 라는 것은 밤에 생각한 것을 낮이 되면 몸이나 입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 이라는 것은 도를 구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자’는 부처를 말한다. ‘칼’이라는 것은 맑은 지혜를 말하고, ‘깊이 파들어 간다’라는 것은 노력을 말한다.

‘장도리’란 무명을, ‘물거품’은 성냄과 괴로움을, ‘작살’은 초조와 불안을, ‘상자’는 탐냄, 성냄, 어리석음, 게으름, 들뜸, 뉘우침, 미혹을, ‘한 조각의 고깃덩이’는 쾌락을 탐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이 몸의 독이 되는 것이므로 ‘모두 버리라.’고 말한 것이다.

끝으로 ‘용’이라는 것은 번뇌가 다한 마음을 말한다. 자신의 몸을 지혜의 칼로 파내려 가면, 결국 이 용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용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말’은 자신을 점점 분석해 들어가서 번뇌로부터 해탈한 이 마음의 용을 발견하라는 의미이다.

6. 세존의 제자 핀돌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고향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코삼비로 돌아왔다. 그는 고향에서 부처의 씨앗을 뿌릴 논밭을 가꾸려 하였다.

그런데 코삼비의 교외에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 그곳은 야자수가 끝 없이 우거져 있고, 간지스의 양양한 물결은 신선한 바람을 끊임없이 불어 보내고 있었다.

어느 여름 날 한낮의 뜨거운 별을 피하여 핀돌라는 야자수 그늘 밑에서 좌선을 하고 있었다. 마침 그 날은 성주 우드야나 왕도 왕비와 시녀들을 거느리고 공원으로 소풍을 나왔다. 그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놀았는데, 왕은 어느덧 그늘 밑에서 잠시 잠이 들어 있었다.

왕비와 시녀들은 왕이 잠든 사이에 여기저기 노닐다가 나무 그늘 밑에서 좌선하는 핀돌라를 보았다. 그녀들은 그 모습에 마음이 끌려 도를 구할 마음을 일으키고 설법해 줄 것을 청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이 때 눈을 뜬 왕은 왕비와 시녀들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깨달음의 길

뒤를 쫓았는데, 때마침 나무 그늘 밑에서 왕비와 시녀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의 출가가를 보았다. 음욕에 빠져 있는 왕은 앞 뒤도 생각해 보지 않고,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 “나의 여자들을 가까이 불러들여 잡담을 일삼고 있는 놈은 무엄한 놈이다.”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핀돌라는 눈을 감은채,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가 치밀은 왕은 검을 뽑아들고, 핀돌라의 머리에 댔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더욱 화가 난 왕은 개미집을 부수어 수 많은 불개미들을 그 옆에 뿌렸으나 그래도 핀돌라는 단정히 앉은 채로 그것을 견디고 있었다.

일이 이쯤 되자 왕은 자기의 광포를 뉘우치고, 그 죄를 빌고 용서를 빌었다. 이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왕가에 들어왔으며 그 나라에 널리 퍼지는 실마리가 되었다.

7. 그 뒤로 며칠이 지나 우드야나 왕은 핀돌라가 머물고 있는 숲 속으로 찾아가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물었다. “대덕이여! 부처님의 제자들은 젊은 몸이면서 왜 음욕에 빠지지 않고 청정하게 그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핀돌라는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여인들에 대한 생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상의 여인을 어머니로 알라. 중년의 부인을 누나로 보고, 젊은 여인을 누이동생처럼 보라고, 이 가르침에 의하여 제자들은 젊은 몸이면서도 음욕에 빠지지 않고, 그 몸을 맑게 지닐 수 있습니다.”

왕은 또 물었다. “대덕이여! 그러나 사람은 어머니같은 사람에게도 누나같은 사람에게도 누이동생같은 사람에게도 음탕한 생각을 갖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음욕을 누를 수 있는가?”

“대왕이시여! 세존께서는 사람의 욕심은 여러 가지로 더럽혀져서 피, 고름, 땀, 기름같은 더러움에 넘쳐있음을 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봄으로써 우리들은 젊으면서도 마음을 맑게 가질 수 있습니다.”

“대덕이여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단련하여, 지혜를 연마한 불제자들에게는 용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불제자라하더라도 미숙한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럽혀진 것을 보려해도 어느덧 맑은 모습에 마음이 끌리고, 추한 것을 보려해도

깨달음의 길

어느덧 아름다운 것에 눈이 팔려간다. 불제자가 아름다운 행을 유지하려면, 보다 다른 곳에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오관의 문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눈으로 색깔과 형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에 사물이 닿았을 때에 그 좋은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말며, 좋지 않은 모습에 마음을 초조하게 하지 말며, 그래서 오관의 문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의하여 젊은 사람이지만, 심신을 맑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덕이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정코 훌륭하시다. 나의 경험으로도 꼭 그대로이다. 오관의 문을 단속하지 않고 일에 향하면, 곧 비굴한 마음에 사로잡힌다. 오관의 문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행을 맑게 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8. 사람이 마음 속에 생각하는 바를 행동으로 나타낼 때, 항상 거기에는 반작용이 생긴다. 사람은 구슬리면 말대답을 한다든지 양값음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이 반작용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바람을 향하여 침을 뱉는 것과 같

은 것이다. 그것은 바람을 향하여 먼지를 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먼지를 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양갓음 뒤에는 늘 재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9.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널리 남에게 베푸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나아가 부처님의 진리를 닦는 데에 전념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을 돕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이 베푸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행복은 그로부터 생긴다.

한 묶음의 햇불로부터 몇 천사람이 불을 붙여도 원래의 햇불은 그대로인 것처럼 행복은 아무리 나누어 줘도 없어지지 않는다.

도를 닦는 자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삼가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뜻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는 그날 그날의 생활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깨달음의 길

10. 이 세상에 깨달음의 도를 닦기 시작하는 데, 이루기 어려운 것이 스무 가지가 있다.

- (1) 빈한해서 베풀기가 어렵고,
- (2) 게을러서 도를 배우기가 어렵고,
- (3) 목숨을 바쳐 도를 구하기가 어렵고,
- (4) 부처님의 재세에 생을 받기가 어렵고,
- (5)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가 어렵고,
- (6) 색욕을 참고, 모든 욕망을 떠나기가 어렵고,
- (7) 좋은 것을 보고 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기가 어렵고,
- (8)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 힘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기가 어렵고,
- (9) 건들어서 노하지 않기가 어렵고,
- (10) 사건이 났는데 무심해하기가 어렵고,
- (11) 널리 배우고 깊이 구명해하기가 어렵고,
- (12) 초심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가 어렵고,
- (13) 자만심을 없애기가 어렵고,
- (14) 좋은 벗을 얻기가 어렵고,
- (15) 도를 배워서 깨달음에 들기가 어렵고,
- (16) 외계의 환경에 움직이지 않기가 어렵고,
- (17) 상대방의 능력을 알아서 가르침을 설하기가 어렵고,
- (18) 마음을 언제나 평안하게 갖기가 어렵고,
- (19) 옳고 그름을 들추지 않기가 어렵고,
- (20) 좋은 수단을 배워 알기는 어렵다.

11. 악인과 선인의 특질은 각기 다르다. 악인의 특질은 죄를 모르고, 그것을 그치려 하지 않고, 누가 죄라고 일러주는 것도 싫어한다. 선인의 특질은 선악을 알고, 악인줄 알면 곧 그만두고, 악을 가르쳐 준 사람을 고맙게 여긴다.

이와 같이 선인과 악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악한 사람이란 자기에게 보인 다른 사람의 친절에 감사할 줄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직접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제3절 부처님의 비유

1. 옛날에 기로국에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아주 멀리 떨어진 먼 산에다가 내다 버리는 기이한 관습이 있었다.

그 나라의 어떤 대신에게 늙은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아무리 관습이라고는 해도 아버지를 버릴 수가 없어서 깊이 땅속에 토굴을 파서 아버지를 숨겨 두고 봉양을 다하였다.

그런데 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났다. 신이 왕 앞에 나타나서 왕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던진 것이다. “여기에 뱀이 두 마리 있다. 이 뱀의 자웅을 가릴 수 없으면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라고 하였다.

깨달음의 길

왕은 말할 것도 없고, 궁전에 있는 어느 한 사람도 뱀의 자웅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왕은 나라안에 포고하여 그 자웅을 가릴 수 있는 자에게는 후하게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그 때 그 대신이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물으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부드러운 깔개 위에 뱀을 올려놓아 두어라. 그 때 이리 저리 움직이는 놈이 숫놈이고, 움직이지 않는 놈이 암놈이다.” 대신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왕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여 뱀의 자웅을 가려낼 수 있었다.

그러자 신은 더 어려운 문제를 냈다. 왕도 가신들도 대답할 수 없었으나, 대신은 남몰래 또 아버지에게 물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그 물음과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자고 있는 자에게는 깨어있다고 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은 깨달음을 얻기위해 지금 도를 닦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도를 모르고 자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것이고, 이미 도를 깨닫고 깨어있는 사람에 비하면 그 사

람은 잠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 바가지의 물이 큰 바닷물보다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맑은 마음으로 한 바가지의 물을 떠서 부모나 병자에게 베풀면 그 공덕은 영구히 없어지지 않는다. 큰 바다의 물은 많다고는 하나 언젠가는 다할 때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큰 코끼리의 무게는 어떻게 재는가? 코끼리를 배에 태워 배가 물속으로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표시해둔다. 다음에는 코끼리를 내려놓고 그 내려가도록 돌을 싣는다. 그래서 그 돌의 무게를 달아보면 그것이 코끼리의 무게다.”

다음에 신은 뼈와 가죽만 남은 굶주려서 말라빠진 사람을 내놓으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한다. “세상에 나보다 더 배고파 괴로워하는 자가 있을까?” “있다. 세상에 만약 마음이 비뚤어져 빈한하고 불법승의 삼보를 믿지 않고, 부모나 스승에게 공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굶주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보로 후세에는 아귀도에 떨어져 오랫동안 굶주림에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네모진 전단 판자가 있다. 이 판자의 어느 쪽이 뿌리 쪽이겠는가? 물속에 띄워보면 뿌리쪽이 조금이라도 더 가라앉게 된다. 그것으로써 뿌리쪽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 같은 모습 같은 형태의 어미와 새끼 두마리의 말이 있다. 어떻게 그 어미나 새끼를 구별할 수 있는가? 꼴을 보면 어미말은 반드시 새끼 말에게 꼴을 밀어준다. 이것으로 곧 알아볼 수가 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전부 신을 기쁘게 하였고, 또한 왕도 기뻐하였다. 그리고 왕은 이 지혜가 토굴 속에 있는 대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알고, 그로부터 노인을 버리는 인습을 없애고, 늙은이에게 효행을 다하도록 명하게 되었다.

2. 인도의 비데하국의 왕비는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하얀 코끼리의 꿈을 꾸었다. 왕비는 그 상아를 갖고 싶다고 청했다. 왕비를 사랑하는 왕은 이 무리한 청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코끼리를 아는 자가 있으면 말하도록 포상금을 내걸고 나라 안에 방을 붙였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의 깊은 곳에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코끼리가 있었다. 이 코끼리는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고 있었

는데, 어느날 한 포수를 위험에서 건져 주었다. 가까스로 나라에 돌아온 이 포수는 이 방을 보고 상금에 눈이 어두워져 은혜를 잊고, 이 코끼리를 잡으러 산으로 올라갔다.

포수는 그 코끼리가 부처가 되려고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를 걸치고 승려로 변장하였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 코끼리에게 가까이 가서 코끼리가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을 알자 독화살을 쏘았다.

독화살에 맞아 죽을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아차린 코끼리는 포수의 죄를 탓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번뇌의 잘못을 가엾게 여겨 포수를 그 네 발 사이에 감싸고, 보복하려는 많은 코끼리 떼로부터 지켜주면서 포수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를 물었다. 그가 여섯 개의 상아를 구하기 위하여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자, 스스로 이빨을 큰나무에 부딪쳐 부러뜨려서 그에게 주었다. 이 코끼리는 이 보시행에 의하여 불도수행을 성취하였다. “나는 불국토에 태어날 것이다. 앞으로 부처가 되면, 먼저 그대가 마음 속에 있는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독화살을 뽑아버리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맹세하였다.

3. 히말라야 산기슭에 있는 어떤 대밭에 많은 새들과 짐승들과 함께 앵무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대나무끼리 서로 마찰되어 불이 일어났다. 불은 바람을 타고 크게 번져, 새도 짐승도 도망칠 곳이 없어 울부짖고 있었다. 앵무새는 먼저 오랫동안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대밭의 은혜를 갚고자, 그리고 많은 새나 짐승들의 재난을 안타깝게 여겨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가까운 못으로 가서 날개에 물을 적서다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불길 위에도 물을 뿌렸다. 이처럼 대밭에 대한 은혜를 갚으려는 생각과 끝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하였다.

앵무새의 자비와 헌신의 마음은 천계의 신을 감동시켰다. 신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앵무새에게 말하였다. “너의 생각은 가특하나, 이렇게 큰 불을 어찌 그 날개에 적신 물로 끌 수 있겠느냐?” 앵무새는 대답했다.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과 자비의 마음에서 하는 일이 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합니다. 저 세상에 가서라도 하고야 말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신은 앵무새의 위대한 뜻에 감동되어 힘을 합쳐서 산불을 꺾다.

4. 히말라야 산에 공명조라는 새가 있었다. 몸은 하나이고 머리는 둘이었다. 어느 날 한 쪽 머리가 맛있는 과실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머리가 시샘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렇다면 나는 독있는 과실을 먹어 주겠다.”라며 독을 먹고 둘다 죽고 말았다.

5. 어떤 뱀의 머리와 꼬리가 어느 날 서로 앞으로 나가려고 다투었다. 꼬리가 말하기를, “머리야! 너는 언제나 앞에 있는데,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니야. 때로는 나를 앞에 두는 것이 좋아.” 머리가 대답하기를, “내가 언제나 앞에 있는 것은 옛날부터 그래 왔어. 너를 앞에 둘 수는 없어.”라고 하였다.

서로 앞장 서겠다고 다투었으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역시 머리가 앞에 있게 되자 꼬리는 화가 나서 꼬리를 나무에 감아 머리가 앞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머리는 힘이 빠져 기진맥진하자 꼬리는 나무에 감은 것을 풀고 자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결국은 불구멍으로 떨어져 타죽어 버렸다.

일에는 모두 순서가 있고, 각자 다른 일이 주어져 있다. 불평을 늘어놓아 그 순서를 어지럽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잃어

깨달음의 길

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멀어버리는 것이다.

6. 대단히 성질이 급해서 성을 잘내는 한 사나이가 있었다. 어느날 그 사나이의 집 앞에서 두 사람이 서로 흉을 보고 있었다. “이 집 사람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지만, 성질이 급한 것과 성을 잘내는 것이 흠이다.”라고 하였다. 그 소리를 들은 사나이는 곧 집에서 뛰쳐나와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치고 차고 때리는 행패를 부려 결국 이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과오를 지적당하면 반성하고 고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과오를 지적당하면 고치기는 커녕 오히려 잘못을 거듭하기만 한다.

7. 돈은 많으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남의 집이 삼층집으로 높이 솟아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나도 돈이 있으니 높은 집을 짓겠다고 마음먹었다. 목수를 불러다가 일켰다. 목수는 그대로 기초를 만들고 이층까지 올리고 삼층까지 올리려고 하였다. 그 때 주인이 황급히 소리를 지르며, “내가 지으려는 것은 기초도 아니고 일층도 아니고 이층도 아니고 삼층의 높은 누각이다. 어서 그것을 만들라.” 라고 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노력할 것을 모르고, 오직 좋은 결과만을 기대한다. 그러나 기초없는 삼층이 있을 수 없듯이,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8. 어떤 사람이 꿀을 달이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찾아왔다. 그래서 꿀을 대접하려고 불에 올려놓은 채로 부채로 부쳐서 식히려 하였다. 이와 같이 번뇌의 불을 끄지 않고 맑은 깨달음의 꿀을 얻으려 해도 얻어질 리가 없다.

9. 두마리의 도깨비가 상자 하나와 주렁 한 개와 신발 한 짝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투는데, 하루 종일 다투어도 끝이 없고, 계속 다투고 있었다.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다투고 있는가 이 물건들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그토록 다투느냐?”라고 물었다.

두 도깨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상자에는 먹을 것, 보물, 무엇이나 갖고 싶은 것을 맘대로 낼 수 있다. 또 이 주렁을 쥐면 곧 적도 부수어 이길 수 있다. 이 신발을 실으면 공중을 맘대로 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깨달음의 길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다툼 것 없다. 너희들은 여기서 물러가 있거라. 내가 똑같이 나누어 주마”라고 말하고, 두 마리의 도깨비를 떼어놓고 자기가 상자를 끼고 주령을 들고 신발을 신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도깨비’란 이교도를, ‘상자’는 보시를 말한다. 그들은 보시로부터 모든 보물이 나오는 줄을 모른다. 또 ‘주령’이란 마음의 통일을 말한다. 그들은 마음의 통일에 의하여 번뇌의 악마를 때려부수는 줄을 모른다. ‘신발’은 청정한 계를 말한다. 그들은 이 청정한 계에 의하여 모든 다툼을 초월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상자와 주령과 신발을 서로 가지려고 다툼 것이다.

10.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였다. 어느날 밤 홀로 쓸쓸히 여관방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귀신이 사람의 시체를 깊어지고 들어와 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또 다른 귀신이 쫓아와서, “이것은 내것이다” 라고 하며 서로 큰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자 먼저 온 귀신이 뒤에 온 귀신보고, “이렇게 싸움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어디 증인을 세워 결판을 내자.”라고 말했다. 뒤에 온 귀신도 이것을 승낙하여 뒤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나이를 불러놓고, 어느 쪽이 먼저 가지고 왔는가를 물었다. 이 때 사나이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한 쪽 귀신의 편을 들면 다른 쪽 귀신의 미움을 사서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하므로, 결심하여 정직하게 자기가 본대로 말하였다.

추측한 대로 한 쪽 귀신은 크게 화가나서 그 사나이의 손을 비틀어 뽑아버렸다. 이것을 본 앞의 귀신은 곧 시체의 손을 들고 와서 붙여주었다. 다른 귀신은 점점 화가나서 또 손을 뽑고, 다리도 뽑고, 몸통을 빼고 결국 머리까지 뽑아버렸다. 앞의 귀신은 차례차례로 시체의 손, 다리, 몸통, 머리를 가져다가 모두 붙여놓았다. 이리다가 두 귀신은 싸움을 그치고, 근방에 흩어진 손발들을 먹고, 배를 채우고 나서 입맛을 다시며 사라져 버렸다.

외딴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자려했던 나그네는 비참하게 낭패를 당했다. 부모로부터 받은 손발, 몸통, 머리를 귀신에게 먹혀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손도 발도 몸통도 머리도 시체의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 도대체 자기가 자기인가, 자기가 아닌가? 도무지 알 수 없게 된 사나이는 날쌔 무렵에는 반쯤 미치고 말았다. 그는 그 집을 나와 길을 걷다가 도중에서 짚을 발견하고 그

깨달음의 길

절로 들어가서 스님들께 어젯 밤에 당한 무서운 일들을 이야기 하였다. 이 이야기를 드는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아의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11. 어느날 어떤 집에 어떤 어여쁜 여인이 곱게 차리고 찾아왔다. 그 집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그 여인은 “저는 사람들에게 부를 갖다주는 복신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주인은 기뻐서 그 여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후하게 대접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곧 초라한 모습의 못생긴 여인이 들어왔다.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니 가난신이라고 대답하였다. 주인은 깜짝 놀라 그 여인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은 “좀 전의 복신은 나의 언니다. 우리 두 자매는 떨어져 산 일이 없으므로 나를 쫓아내면 언니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여인이 떠나버림에 복신도 역시 없어져 버렸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재난이 있다. 선한 일이 있으면 악한 일이 있다.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오직 부질없이 재난을 싫어하고, 행복만을 바라나 도를 구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초월하여 그 어느 것에도 집

착하면 안된다.

12. 옛날에 가난한 화가가 있었다. 아내를 고향에 남기고 여행을 떠나 3 년간의 고생끝에 많은 돈을 벌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도중에 대법회가 행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는 많은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는 법회였다. 그는 크게 감동하여, “나는 아직 복의 씨앗을 뿌린 일이 없다. 이제 복의 씨앗을 뿌릴 논밭을 만났는데, 어찌 이대로 지나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여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 많은 돈을 흔쾌히 공양하고 무일푼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빈 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본 아내는 대단히 화가 나서 다그쳐 묻자 불쌍한 남편이 대답하였다. “재물은 모두 견고한 창고 속에다가 쟁여놓았다.”라고 하였다. “대체 그 창고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라고 아내가 다그치자 남편은 “어느 절 스님들께 바쳤오.” 라고 실토했다.

화가 난 아내는 이런 일을 관청에 고발하여, 화가는 취조를 받게 되었다. 이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귀중한 노력에 의하여 얻은 재물을 괜히 소비한 것은

깨달음의 길

아니다. 나는 이제까지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을 모르고 지내왔으나, 복의 씨앗을 뿌릴 논밭이라 할 수 있는 공양의 기회를 보고, 신심이 생겨 가까운 생각을 버리고 베푸는 것이다.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라고 하였다.

관청에서는 화가의 마음을 칭찬하였고, 많은 사람들도 이 말을 듣고 감동하였다. 그로부터 그의 신용은 높아지고, 화가 부부는 이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었다.

13. 어떤 사나이가 묘지 옆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묘지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다. 날이 새자 그 일을 친구에게 말하니, 친구 중에서 용기있는 어떤 사람이 다음 날 저녁에도 또 그러면, 그 소리나는 곳을 찾아보리라 마음먹었다.

다음날 저녁에도 또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 그 사나이는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용기있는 친구가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서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땅속에서 하는 말이 “나는 땅속에 숨겨진 보물이다. 어젯밤 누군가에게 나를 주려고 했는데 그가 무서워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용기가

있으니 나를 가져갈 만하다. 내일 아침에 나는 일곱 명의 하인과 함께 너의 집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용기있는 친구는 이 말을 듣고, “우리 집에 온다면 기다리겠으나, 어떻게 대접하면 되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땅에서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출가자의 모습을 하고 갈 것이다. 우선 목욕을 하고 방을 깨끗이 치우고, 물을 준비하고 여덟 개의 그릇에 죽을 담아놓고 기다리면 된다. 식사가 끝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 따로 데려다가 칸이 막힌 방속에 넣어두면 우리들은 그대로 황금의 단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음날 아침에 이 사나이는 목욕을 하고,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기다리고 있으려니, 과연 여덟 명의 출가자들이 탁발하러 왔다. 방으로 들어서 물과 죽을 공양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칸이 막힌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여덟 사람이 다 황금이 가득 채워진 단지로 변해버렸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욕심쟁이가 그도 황금단지가 갖고 싶어서 똑같이 목욕을 하고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탁발하는 출가자 여덟 사람을 초대하여 공양하고 식사 한 뒤에 구석방에다 가두었

깨달음의 길

다. 그러나, 여덟 명의 출가자들은 황금단지가 되기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난동을 부려서 그 사나이는 고발되어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처음의 겁 많은 사나이라도 애초에 무덤에서 자기를 부르던 소리가 황금단지였음을 알고 욕심이 생겨, 저 소리는 원래 나를 불렀으니 자기 것이라고 하며, 그 집으로 들어가서 단지를 가지고 나오려 하였다. 그런데 그 단지 속에는 뱀이 가득 들어 있어, 뱀들이 고개를 쳐들고 그 사나이에게 달려들려고 할 뿐이었다.

그 나라의 왕이 이 말을 듣고 황금단지는 모두가 이 용기있는 사나이 것이라고 판결을 내리고, “이 세상의 일은 모두가 이런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오직 그 과보만을 바라나, 그것은 그것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길으로만 계를 지키고 있고, 마음 속에 참된 신심이 없으면 결코 참다운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유시를 내렸다.

제 2 장 실천의 길

제 1 절 도(道)를 구하여

1. 이 우주(宇宙)의 짜임새는 어떠한 것인가? 이 우주는 영원한 것인가? 드디어는 없어지는 것인가? 이 우주는 끝없이 넓은 것인가? 아니면 끝이 있는 것인가? 사회의 짜임새는 어떠한 것인가? 이 사회의 어떠한 형태가 이상적인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는 한, 도(道)를 닦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면, 누구나 도(도)를 닦기도 전에 죽음이 찾아 올 것이다.

이를 테면, 사람이 무서운 독화살에 맞았다고 하자.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모여, 급히 의사를 불러, 독화살을 뽑고 손을 쓰려고 한다.

그런데 그 때 그가 만류하면서 “잠깐만, 화살을 뽑지 말고 기다려 주시오. 대체 누가 이 화살을 쏘았는지 알고 싶소. 남잔지 여잔지 또는 어떤 집안 사람이 활을 쏘았는지, 귀족인지, 촌부인지, 알아야겠소. 그리고 활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오. 대궁인가, 소궁인가, 목궁인가, 죽궁인가, 활줄은 무엇으로 만들

실천의 길

어졌던가, 등덩굴이던가, 동물의 힘줄이던가, 화살은 등나무이던가, 갈대던가, 화살깃은 무엇이던가, 그런 것들을 확실히 알 때까지 화살을 뽑는 것을 기다려 주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도 전에 독은 전신에 퍼져 죽어버릴 것이 틀림없다. 이 경우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화살을 뽑고 독이 전신에 퍼지지 않게 손을 써야 하는 일이다.

욕정의 불로 세상이 위협할 때 이 우주가 어떤 구조이든지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떠한 형태가 이상적이든 아니든 자기 신상에 닥쳐오는 불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주가 영원하건 그렇지 않건 끝이 있든 없든 그런 문제는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의 불길을 끌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 지금 사람들의 머리 위를 덮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 길을 찾아 실천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전념해야 한다.

부처님은 반드시 설해야만 할 것을 설하고 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설하지 않는다. 즉 사람들에게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끊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끊어버리게 해주며, 깨달아야 할 것을 닦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무슨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절박한 것인가를 알아서 자기 마음을 훈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먼저 심성훈련을 받아야 한다.

2. 또 수목의 심을 구하기 위하여 숲 속으로 들어간 자가 가지나 잎사귀를 얻고 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나무의 심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그 외피나 내피 또는 나무의 살만을 얻고 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

사람의 신상에 다가온 생과 노와 병과 사와 걱정, 슬픔, 아픔과 괴로움을 여의기를 바라며 도를 구한다. 이것이 심인 것이다. 그것이 자그마한 존경과 명예를 얻어서 만족하여 마음이 오만해지고 자신을 추켜세우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지업을 얻었을 뿐인데 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천의 길

또 자신의 마음이 어느 만큼 안정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여 마음이 거만해져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나무의 내피만을 얻고 심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또 자신의 자그마한 노력에 만심하여 바라는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여 만족하여 마음이 오만해져서 자신을 추켜세우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나무의 외피만을 얻고 그 심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다.

또 사물을 직관하는 통찰력이 조금 생기자 이것에 눈이 어두워 마음이 거만해져서 자신만을 추켜세우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나무의 살만을 얻고 그 심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모두 기운이 늦추어져서 태만하여 또다시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도를 구하는 자에게는 존경과 명예와 공양을 받는 일이 그 목적이 아니다. 자그마한 노력이나 다소의 마음의 안정, 또는 알팍한 지식과 통찰력이 그 목적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생과 사의 근본적인 성질을 마음 속에 새겨두지 않으면 안된다.

3. 세계는 그 자체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 마음이 망상하는 것을 없애는 길을 얻어야만 된다. 외형에 미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심이 미혹을 낳게 하는 것이다.

마음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의 불길에 빠져서 고뇌하고 무명으로 말미암아 미혹의 어둠에 싸여 걱정하고 슬퍼한다. 미혹의 집을 짓는 것은 이 마음 밖에 없음을 알아 도를 구하는 자는 이 마음과 싸워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4. “내 마음이어! 너는 어이하여 무상한 생활환경에 불안하게 배회하는가? 어이하여 나를 당황스럽게 하고 고요히 머물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느냐? 어찌하여 부질없이 그토록 많은 것들을 모으게 하는가? 땅을 갈기도 전에 산산히 부서진 쟁기와 같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사의 미혹한 바다에 배를 띄울 순간에 제거해 놓은 방향키와 같구나. 우리가 이승의 생활을 보람있게 하지 못하면 수많은 생을 다시 태어난들 무엇하겠느냐.

마음이어! 너는 나를 왕으로 태어나게도 하였다. 또는 부랑자

실천의 길

로 태어나게 하여 이곳저곳으로 떠돌게 한 일도 있었다. 때로는 나를 신들의 나라에 태어나게 하여 영화의 꿈에 취하게도 했으며 또 지옥의 불길에 타게 한 일도 있었다.

어리석은 마음이어! 너는 나를 온갖 길로 인도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늘 너를 따랐을 뿐 한번도 거스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몸이 되었다. 이젠 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지 않게 해주게. 아무쪼록 내가 여러 가지 괴로움을 떠나 빨리 깨달음을 얻도록 힘써주게.

마음이어! 네가 모든 것은 모두 실체가 없고 공허하고 덧없음을 알면, 무엇이나 내 것이라 생각하는 일도 없고,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여의기만 하면 평안해질 것이다. 지혜의 검으로 애욕의 덩굴을 끊고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방에 괴로워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면 평안한 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어! 너는 나를 인도하여 도를 구할 것을 생각해 하였다. 그런데, 이제 어이하여 너는 또 이 세상의 이익과 욕망과 부귀영화에 이끌려 다니게 하는가?

아, 마음아! 너는 확실한 목표도 없이 우왕좌왕 내달리느냐? 제발 이 넘기 어려운 미혹의 거센 바다를 건너게 해다오. 이제 까지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왔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서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

내 마음이어! 산도 강도 바다도 모두가 다 변하고 재난에 가득차 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즐거움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빨리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구나.”

5. 이와 같이 마음과 싸워서 진정으로 도를 구하는 사람은 항상 굳센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므로, 깔보고 욕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없다. 주먹으로 때리고 돌을 던져 검으로써 베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때문에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양날의 톱으로 머리와 몸통이 잘린다 하여도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자다. 제 몸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의연

실천의 길

한 태도와 확고부동한 마음을 지니고 자비심과 자선심을 발휘해야 한다. 비난이여, 오라. 불운이여, 오라.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흩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 속에 가득해지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깨달음을 위해서는 이루기 어려운 일도 이루어 내고, 견디기 어려운 일도 능히 견디고, 최후로 남은 것도 선뜻 배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루에 한톨의 쌀을 먹고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그대로 할 것을 조금도 사양치 않는다.

그러나 그런 일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해서는 안 된다. 베풀고도 베풀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그 일이 현명하고 바른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머니가 한 벌의 옷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도 주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자식을 간호하고도 자식을 간호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일이 없는 어머니와 같은 자비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

6. 옛날 어떤 왕이 있었다. 왕은 지혜가 밝고 자비가 깊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풍요하고 안락하게 다스리고 있었다.

또 왕은 도를 구하는 마음이 두터워서 늘 재보를 갖추어놓고 누구든지 존귀한 가르침을 교시해 주는 자에게는 이 재보를 베풀었다고 포고하였다.

왕이 도를 구하는 지성에는 신의 세계도 감동하였다. 신은 왕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신의 모습으로 왕의 궁전 문 앞에 나타났다. “나는 존귀한 가르침을 알고 있다. 임금에게 가르치고 싶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여 공손히 내전으로 안내하여 그 가르침을 듣고 싶다고 원하였다. 그랬더니 귀신은 칼날 같은 무서운 이빨을 내밀면서 “지금 나는 대단히 배가 고프다. 이대로는 아무래도 가르침을 설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먹을 것을 드리지요.” 라고 말하니 “내가 먹을 것은 더운 인간의 피와 살이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때 왕의 태자는 스스로 몸을 버려 귀신의 허기를 채우겠다고 하였으며 왕비도 또한 스스로 그 몸을 그 먹이로 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귀신은 두 사람의 몸을 먹었으나 아직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 드디어 왕까지 먹겠다고 말한다.

실천의 길

드디어 왕은 조용히 말하였다.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오직 이 몸이 없어진다면 가르침을 들을 수가 없으므로 네가 가르침을 설하고 나면 내 몸을 바치리라.”

귀신은 그 때 “걱정은 애욕으로부터 생기고 애욕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긴다. 애욕을 떠난 사람에게는 걱정도 없고 또 어느 곳에 두려움이 있으리.” 라고 설하고 별안간에 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와 동시에 죽었어야 할 태자도 왕비도 모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7. 옛날 히말라야 산에 진실을 구하는 행자가 있었다. 오직 미혹을 여의는 가르침을 구할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구하는 것이 없이 지상에 가득찬 재보는 물론 신의 세계의 영화조차도 바라지 않았다.

신은 이 행자의 수행에 감동하여 그 마음의 진실을 시험하고자 귀신의 모습이 되어 히말라야 산에 나타나 “모든 것은 변하며 나타났다가는 사라진다.” 라고 노래하였다.

행자는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목마른 자가 물을 얻듯이 또 간혀

있던 자가 풀려나듯이 기뻐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오랫동안 내가 찾아오던 진실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는 주위를 둘러 보고 누가 이 존귀한 노래를 읊었는지를 찾고 있을 때, 무서운 귀신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괴이하게 여기면서도 귀신에게 가까이 가서 “조금 전의 노래는 그대가 부른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을 불러주게.”라고 부탁하였다.

귀신은 대답하였다. “그렇다. 그것은 나의 노래다. 그러나 나는 지금 굶주리고 있어서 무엇인가 먹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어.”

“아이 그러지 말고 다음을 들려주게. 그 노래에는 정말로 존귀한 의미가 있어 내가 구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말이 끝나지 않았어. 아무쪼록 끝까지 가르쳐주게.” 귀신은 또 말한다.

“지금 나는 공복으로 견딜 수가 없다. 만약에 사람의 뜨끈한 살코기를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다면 그 노래의 다음을 설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행자는 다음 노래를 들려주면 듣고나서 자기의 몸을 바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실천의 길

그러자 귀신은 다음을 불렀고 노래는 완전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진다. 생멸에 얽매이는 일이 없어지면 비로소 고요함과 평안함이 생긴다.”

행자는 이 노래를 나무나 돌에 새겨놓고 드디어 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귀신 앞에 던졌다. 그 순간 귀신은 신의 모습으로 변하여 행자의 몸을 안전하게 받쳐주었다.

8. 옛날에 사다프라루디타라는 구도자가 있었다. 오로지 진실한 깨달음을 구하고 명예와 이욕에는 조금도 유혹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공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사다프라루디타여! 동으로 가라. 옆눈 팔지 말고 더웁고 추운 것을 잊고 세상의 비방이나 칭찬에도 구애되지 말고, 선악에도 매이지 말고 오로지 동쪽으로 가라. 반드시 진실한 스승을 만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 라고 하였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여 가르침을 들은 대로 오직 동쪽으로만 달려가 도를 구했다. 들뜬에 앞드리고 산에서 자고 또 이국의 여행의 박해와 굴욕을 견디며 때로는 일손을 팔아 사람의 시중

을 들고 뼈를 깎는 생각으로 그날의 먹이를 얻었으며 마침내 진실한 스승에게 이르러 가르침을 청하였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가 생기는 법이다 사다프라루디타의 구도의 여행에서도 이 장애는 몇 번이고 나타났다. 스승에게 바칠 향과 꽃의 밑천을 얻고자 품을 팔아 사람의 시중을 듣고 품삯을 얻으려 하여도 그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악마의 방해의 손길은 그가 가는 곳 어디에나 뻗쳐있었다. 깨달음의 길은 정말로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고난의 길이었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존귀한 말씀을 기록하려해도 종이라도 먹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는 칼을 들어 자기의 팔을 찢러 피를 흘려서 스승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존귀한 깨달음의 말씀을 얻었던 것이다.

9. 옛날 수다나(선재)라는 동자가 있었다. 이 동자도 역시 오로지 도를 구하여 깨달음을 원하는 자였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찾아가서 바다의 신비로부터 얻은 가르침을 들었다. 사람의 병을 진단하는 의사로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자비

실천의 길

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 재산을 많이 가진 장자를 만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또 좌선하는 출가승을 찾아가서는 그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불사의한 힘을 주는 것을 보았다. 또 품위 높은 마음을 가진 부인을 만나서는 그 봉사의 정신에 감탄하고 자비심이 지혜의 열매임을 알았다. 또 한번은 치열하게 수행하는 방랑 노인을 만나서는 진실로 진리를 구하려면 칼날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산에라도 오르고 불 속이라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동자는 마음만 있으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두가 다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불쌍한 앓은뱅이 여인에게서 인내심을 배웠고,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순진한 행복의 세계가 있음을 보았다. 순박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서는 남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절대로 탐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태평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다.

향의 성분들이 섞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을 피우는 길에도 화합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음을 알았고, 꽃으로 잘 장식한 것을 보고 감사하는 예법의 교훈을 배웠다. 어느 날 숲속을 지나가는 도중에 성스러운 나무의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 그는 근처에 썩는 나무에서 새순 하나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생명의 덧없음을 배웠다.

한낮에 내려 쪼이는 눈부신 태양과 밤하늘을 수놓은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보면 깨달음을 구하는 선재동자의 마음을 가르침의 빗물로 촉촉하게 적셨다. 동자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진리를 물었고 이르는 곳마다 말씀을 들었으며 이렇게 긴 구도 여행에서 겪은 경험 하나 하나에서 깨달음의 이득을 얻었다.

정말로 깨달음을 구하려면 마음의 성을 지키고 마음의 성을 장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경건하게 이 마음의 성문을 열어 그 깊숙한 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심신의 꽃을 공양하여 환희의 향을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동자는 배웠던 것이다.

제2절 여러 가지 길

1. 깨달음을 구하는 자가 배워야 할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실천의 길

계율과 마음의 통일과 지혜의 삼학이다.

계란 무엇인가? 사람으로서 또 도를 닦는 자로서 지켜야 할 계를 지키고 심신을 통제하고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의 입구를 지켜서 작은 벌과 죄도 두려워하고 선행을 하며 노력하는 것이다.

마음의 통일이란 무엇인가? 탐욕을 여의고 악심을 여의고 차례로 마음의 안정에 드는 것이다.

지혜란 무엇인가? 네 가지 진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명백히 깨닫는 것이다.

이 삼학을 성실하게 배우는 자가 부처님의 제자라 불리운다.

겉모습은 전혀 소를 닮지 않고 소울음도 내지 않고 쇠뿔도 없는 당나귀가 소의 무리들을 따라다니며 나도 소라고 하여도 아무도 믿지 않듯이 이 계와 마음의 통일과 지혜의 삼학을 배우지 않으면서 나는 도를 구하는 사람이며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

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얻기 위하여, 먼저 봄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풀을 베어 가꾸듯이,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삼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오늘 중에 싹이 트고 내일 중에는 이삭이 패며 모레에는 수확할 수 있기를 원하여도 그렇게 할 수 없듯이, 깨달음을 구하는 자도 오늘 중으로 번뇌를 여의고 내일 중으로 집착을 없애고 모레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농부가 씨앗을 뿌린 뒤에는, 그의 인내심있는 고된 노동과 계절의 변화를 거친 후에 싹이 트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법이다. 깨달음을 얻는 것도 이와 같이 계와 마음의 통일과 지혜의 삼학을 닦고 있는 사이에 차례로 번뇌가 멀하고 집착이 떠나며 비로소 깨달음의 때가 오는 것이다.

2.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호사를 동경하여 감각적인 애욕에 마음이 어지러운 채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기란 어려운 일이다. 세상을 즐기는 것과 도를 즐기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실천의 길

이미 섰듯이 마음이 만사의 근본이다. 마음이 세상일을 즐기면 미혹과 고뇌가 생기고 마음이 도를 즐기면 깨달음과 즐거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마음을 맑게하여 가르침을 지키고 계를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계를 지키면 마음의 통일을 얻고 마음의 통일을 얻으면 지혜가 밝아져서 그 지혜야말로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정말로 이 삼학은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 삼학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래도록 방황을 거듭해왔다. 도에 들어서서 남과 다투지 않고 고요히 안에 마음을 간직하여 마음을 맑게 하여 빨리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3. 이 삼학은 열면 팔정도가 되고, 사념주, 사정근, 오력, 육바라밀이라고도 한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마음의 통일이다.

바른 견해란 네 개의 진리를 명백히 알고 원인과 결과의 도리를 믿고 외관과 욕망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바른 생각이란 애욕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탐내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바른 말이란 거짓말과 부질없는 말과 욕설과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바른 행동이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과 부정한 애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바른 생활이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다.

바른 노력이란 바른 일을 향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다.

바른 기억이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의식을 확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두는 것이다.

실천의 길

바른 마음의 통일이란 그릇된 목적을 갖지 않고 지혜를 밝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바르게 가라 앉혀서 마음의 통일을 하는 것이다.

4. 사념주란 다음의 네 가지다.

첫째, 내 몸은 더럽혀진 것으로 집착할 것은 못된다고 본다.

둘째, 어떠한 느낌을 받아도 그것은 모두 괴로움의 근본이라고 본다.

셋째, 내 마음은 항상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옮겨 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넷째, 모든 것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으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없다고 본다.

5. 사정근이란 다음의 네 가지다.

첫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기 전에 막는다.

둘째, 이미 생겨난 악은 끊어 버린다.

셋째,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어서 생기도록 한다.

넷째, 이미 생겨난 선은 더욱 더 커지도록 키운다.

이 네 가지에 꾸준히 힘써야 한다.

6. 오력이란 다음 다섯 가지다.

첫째, 믿는 것이다.

둘째, 힘쓰는 것이다.

셋째, 의식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넷째, 마음을 통일하는 것이다.

다섯째, 밝은 지혜를 갖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힘이다.

7. 육바라밀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여섯 가지이다. 이 여섯 가지를 닦으면 미혹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가 있다.

첫째, 보시는 아까워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물리치게 해준다.

둘째, 지계는 행을 바르게 해준다.

셋째, 인욕은 분노하기 쉬운 마음을 다스리게 해준다.

넷째, 정진은 게으른 마음을 없애준다.

다섯째, 선정은 흩어지기 쉬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여섯째, 지혜는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여 예리한 통찰력으로 바꿔준다.

실천의 길

보시와 지계는 큰 성을 쌓는 주춧돌과 같이 수행의 터가 되고, 인욕과 정진은 성벽처럼 외부의 적을 막아주고, 선정과 지혜는 몸을 지켜서 생사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이며 갑옷이다.

구걸하는 자를 보고 주는 것은 보시이지만, 그것은 최상의 보시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마음을 열고 스스로 나아가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최상의 보시이다. 또 간간히 베푸는 것이 최상의 보시는 아니다. 항상 베푸는 것이 최상의 보시인 것이다.

베풀고 난 뒤에 후회한다든지 베풀고 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상의 보시는 아니다. 베풀고 나서 즐거워하고 베풀 자기와 베풀을 받는 사람과 베풀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잊어 버리는 것이 최상의 보시다.

바른 보시는 그 보답을 바라지 않고 맑은 자비의 마음으로써 타인도 자신과 함께 깨달음에 들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세상에 무재(無財)의 칠시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재산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행을 말한다. 첫째는 신시 곧 육체에 의한 봉사이며 그 최고의 보시는 다음 항에서 말할 사신

행이다. 둘째는 심시, 곧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 주는 마음이다. 셋째는 안시 곧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는 일로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온화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화안시 곧 부드러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이다. 다섯째는 언시 곧 생각해주는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을 거는 일이다. 여섯째는 상좌시 곧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다. 일곱째는 방사시 곧 자기 집을 하룻밤의 숙소로 제공하는 일이다. 이상의 칠시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행할 수 있는 일이다.

8. 옛날에 살타라는 왕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두 형들과 숲 속에서 놀러 나갔을 때 일곱 마리의 새끼를 낳은 호랑이가 허기에 못이겨 급기야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두 형들은 두려워서 도망쳤으나 살타만은 새끼 호랑이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절벽 위로 기어올라가서 제 몸을 굶주린 호랑이에게 던졌다. 왕자를 먹은 어미 호랑이는 허기를 채우고 새끼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실천의 길

살타왕자는 이 자비행위를 자발적으로 하였고 마음은 오로지 도를 구하는 데에만 있었다. “이 몸은 부서지기 쉽고 변하기 쉽다. 이제까지 베풀 줄을 모르고 오직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데에만 힘써왔던 자신은 이제야말로 이 몸을 베풀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바치리라.” 살타왕자의 이런 결심은 깨달음을 위한 참된 결심을 보여준다.

9. 또 여기에 도를 구하는 자가 닦아야 할 네 가지 큰 마음이 있으니, 그것은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이다. 첫째, 자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를 닦으면 탐심이 끊어진다. 둘째, 비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비를 닦으면 성내는 마음이 끊어진다. 셋째, 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희를 닦으면 괴로움이 끊어진다. 넷째 사는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사를 닦으면 은혜와 원한의 어느 것에도 차별을 두지 않게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큰 자애(자)이고, 많은 사람들의 불행과 슬픔을 없애주는 것은 큰 가엾음(비)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환희의 마음으로써 대하는 것이 큰 기쁨(희)이고, 모든 사람을 차별을 두지 않고 것에 평등하게 대하여 행복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큰 평정함(사)이다.

이와 같이 자비회사의 네 가지 큰 마음을 조심해서 노력하여 키우면 탐욕과 성냄과 괴로움과 애증의 마음을 없앨 수 있다. 악한 마음은 좀처럼 버리기 어려우니 기르던 개를 버리기 쉽지 않은 것과 같고, 착한 마음은 쉽게 잃어버리니 숲속을 달리는 사슴을 놓치는 것과 같다. 또 악한 마음은 바위에 새긴 글자와 같아 지우기 어렵고, 착한 마음은 물위에 그린 글자와 같아 쉽게 지워진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위해 수행을 하는 일은 참 어렵다.

10. 세존의 제자 슈로나는 부호의 집에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 세존을 만나서 그 제자가 되어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뼈아픈 노력을 계속하여 도를 닦았으나 아직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세존은 슈로나를 가엾게 여겨 말씀하셨다. “슈로나여! 그대는 집에 있을 때에 가야금을 배운 일이 있었을 것이다. 줄을 뿔 때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하거나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가장 적절하게 매어졌을 때 비로소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다.

실천의 길

깨달음을 얻는 길도 이와 같아서 게으르면 도를 얻지 못하고 또 너무 다그쳐 노력해도 결코 도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노력을 할 때에도 그 정도를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 가르침을 받고 슈로나는 능히 터득하여 드디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

11. 옛날 오무기라 불리는 왕자가 있었다. 오종의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으므로 이런 이름을 얻은 것이다. 수행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광야 가운데서 살갓을 찢러도 상처를 입지 않는 지모라는 괴물을 만났다.

지모는 천천히 왕자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먼저 활을 쏘으나 화살은 지모에 맞아도 털에 들어붙을 뿐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다. 검도 창도 봉도 모두 빨려들어가 버려 아무 소용이 없다. 무기를 모조리 뺏긴 왕자는 주먹을 들어 치고 발길로 찼으나 주먹도 발도 다 털에 빨려버려 왕자의 몸은 지모의 몸에 들어붙어 공중에 매달린 꼴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로 지모의 가슴에 부딪쳐 보았지만 역시 허사였다.

지모는 말하였다. “이제 너는 내 손아귀에 있다. 아무리 버터도 소용없다. 이제 너를 먹어야겠다.” 라고 하니 왕자는 웃으며 “너는 내 무기가 다 없어져서 어쩔 수 없게 된 줄로 생각할지 모르나 아직도 나에게는 금강의 무기가 남아있다. 네가 만일 나를 먹으면 네 뱃 속에서 너를 찌를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지모는 왕자의 용기에 기가 꺾여져서 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묻자, “진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왕자는 대답하였다.

왕자의 대답이 나오자 마자 지모는 왕자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왕자에게 가르침을 설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우화는 불제자들에게 어떤 역경에 직면해도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고 용기를 북돋워 준다.

12. 자신에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에게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자는 세상 사람들을 헤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남에게도 부끄러운 줄 아는 자는 세상 사람들을 지킨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어른과 형제자매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실천의 길

남을 잘 관찰하여 그에 비추어 스스로 뉘우치는 일은 참으로 가치있는 일이다.

참회하는 마음이 일면 이미 죄는 소멸되지만, 참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죄는 죄로서 계속 남고 영원히 그 사람을 징계한다.

바른 가르침을 듣고 몇 번이고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닦으면 그 가르침은 내게 복을 준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고, 스스로 내것으로 터득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구할 수가 없다.

믿음과 겸손, 노력과 지혜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에게 커다란 힘이다. 이 가운데 지혜가 주된 힘이고, 다른 네 가지는 지혜를 따르는 힘이다. 도를 닦는 데 세상의 잡사에 얽매이고 잡담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며 잠자는 데서 헤어나지 못하면 깨달음의 길에서 퇴보하게 된다.

13. 함께 도를 닦아도 먼저 깨닫는 자도 있고 나중에 깨닫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타인이 도를 얻는 것을 보고 자기는 아직 도를 얻지 못하였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

활쏘기를 배울 때 처음에는 명중하는 일이 드무나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연습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명중하게 된다. 또 강물은 작은 시내에서 시작하지만 흘러가면서 점점 커져 마침내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도를 닦는데 쉬지 않으면 반드시 깨달음은 얻어진다.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두 눈을 뜨면 어디에나 가르침은 있다. 그와 같이 깨달음을 얻을 기회도 끝이 없고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한 사람이 향을 피우면서 향기가 풍겨날 때에 그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님을 보고 깨달음에 든 사람도 있다.

길을 걷느라 발에 가시가 박히면 콧콧 쭉시는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이 아픔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의 연에 닿아서 나타난 마음의 반응일 뿐이다. 하나의 마음도 관리를 잘못 하면 통제외의 손길을 벗어나 추하게 되지만 잘 조절하면 청정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깨달음에 든 사람도 있다.

실천의 길

너무나도 애욕이 많은 사람이 탐욕으로 가득찬 자신의 마음을 깊이 반성하다가 탐욕은 언젠가는 지혜의 불로 태워 없앨 수 있는 대팻밥이나 불쏘시개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 깨달음에 든 예도 있다.

“마음을 평안히 하라. 마음이 평안하면 온 세상이 모두 다 평안해진다.” 라는 가르침을 듣고, 이 세상의 차별은 보는 마음에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여 깨달음에 든 사람도 있다. 정말로 깨달음의 인연에는 한이 없다.

제3절 신앙의 길

1.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하는 자를 불제자라고 한다. 또 불제자는 다음에 설하는 계율과 믿음과 보시와 지혜를 갖고 있다.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뺏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 다섯 가지를 지키는 자가 부처님의 제자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것이 불자의 믿음이다. 불자는 욕심과

아까워하는 마음을 떠나서 남에게 베푸는 보시를 기쁘게 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인과 연의 도리를 이해하고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도리를 아는 것이 불자의 지혜다.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나무는 반드시 동쪽으로 넘어지듯이 평생 불법에 귀를 기울이는 신심이 두터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목숨이 끝나도 불국토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

2.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삼보를 믿는 사람을 불자라고 했다.

부처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하고 복되게 하시는 분을 말한다. 법이란 그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말한다. 승가란 부처님과 그 법에 따라 바르게 수행하는 화합의 단체를 말한다.

불법승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분리된 셋이 아니라 하나이다. 불은 법에 나타나고 법은 승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셋은 그대로 하나이다. 그러므로 법과 승을 믿는 것은 그대로 불을 믿는 것이고 불을 믿으면 스스로

실천의 길

법과 승을 믿는 것이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오직 부처님을 염하는 하나만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독자처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언젠가 부처를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지는 항상 부처님께서 지혜로 거두어 주시고 저절로 부처님의 향기에 젖어든다.

3. 세상에서 부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것은 없다. 만일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단 한 번이라도 믿어 기뻐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큰 이익을 얻는다.

그러므로 시냇길 화염이 이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어야 한다.

정말로 부처님을 만나기는 어렵고, 그 법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제 만나기 어려운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을 만나 듣기 어려운 이 법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크나큰 이익을 잃지 않게 부처님을 믿고 기뻐하지 않으면 안된다.

4. 인생이라는 긴 여로에서 믿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반려자요 청량제이며 더할 나위 없는 재산이다.

믿음은 부처님의 법을 받는 손이요, 모든 공덕을 받는 청정한 손이다. 믿음은 불이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이 태워 없애고, 행자의 짐을 벗어주고 한걸음 나아가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풍요하게 하고 탐욕과 두려움과 교만을 없애주며 겸손과 공경심을 가르친다. 이리하여 바깥 세상의 속박에 끌리지 않게 하며, 고난에 맞설 용기를 주고, 유혹을 이겨 낼 힘을 부며, 행동을 빛나고 밝게 해 주며 지혜로운 생각을 풍성하게 해준다.

믿음은 길이 멀어 지루할 때에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실천의 길

믿음은 항상 내가 부처님 앞에 있으며, 부처님에게 안겨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또한 믿음은 굳건하고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사람들에게 친숙해지는 덕을 길러준다.

5. 믿음이 있는 자는 귀에 들리는 어떠한 소리도 부처님의 법으로서 음미하고 기뻐하는 지혜가 얻어져 어떠한 사건도 모두가 다 인과 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서 정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얻어진다.

믿음은 인생이 무상함을 깨닫는 지혜와 주위의 조건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인생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알아서 영고성쇠의 어떠한 변화에도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는 지혜를 길러준다.

믿음에는 세 가지 의미있는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지은 죄과를 참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미덕을 보고 진실로 칭송하면서 기뻐하는 것이며, 셋째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특성을 길러야

한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서 참회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미덕과 선행을 행하면 내 일처럼 칭찬하여야 하고, 또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행동하며, 부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

이 믿는 마음은 지성스런 마음이요, 깊은 마음이며, 부처님의 힘에 의하여 불국토에 인도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화하여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고 다시는 미혹한 삶을 반복하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믿음의 힘을 주신다. 사람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부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칭송되는 말을 듣게 되면 부처님의 정토로 인도하신다.

6. 이 불심은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불성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부처를 아는 자는 부처이며, 부처를 믿는자는 부처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불성이 있어도 불성은 번뇌의 진흙 속으로 깊이 가리얏아, 성불의 싹이 터서 꽃을 피울 수는 없다. 탐냄과 성냄

실천의 길

이라는 번뇌의 회오리 속에 어찌 부처를 향하는 맑은 마음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에란다라는 독나무의 숲에는 에란다 싹만이 돋아나서 찬다나의 향나무는 생겨나지 않는다. 에란다의 숲속에 찬다나가 돌아난다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지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를 향하여 그를 믿는 마음이 생긴 것도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부처를 믿는 신심을 뿌리가 없는 믿음이라 한다. 뿌리가 없는 믿음이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 생기는 뿌리는 없으나,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 속에는 믿음의 뿌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7. 믿음은 이처럼 존귀하고, 정말로 도의 근본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도를 구하는 사람에게도 원만하게 얻어지지 않는 것은 다음의 다섯가지의 의심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부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것.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

셋째,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을 의심을 갖는 것.

넷째, 구도의 길에 종종 의심을 품는 것.

다섯째, 깊이 도를 구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마음으로 의심하는 것.

실로 세상에서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이란 갈라놓는 마음이고, 우정과 좋은 사이를 떼어놓는 독이며, 서로 생명을 상하게 하는 칼날이며,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가시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얻은 자는 그 믿음이 먼 옛날에 부처님의 자비에 의하여 이미 그 인연이 심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가슴 속에 숨어든 의심의 어둠을 뚫고,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부처님의 자비의 손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비를 기뻐하는 자는 믿음을 얻어, 먼 옛날에 부처님이 주신 깊은 인연으로 이 세상의 생활 그대로 불국토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실천의 길

정말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도 어렵고,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힘써 노력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도록 해야 한다.

제4절 부처님의 말씀

1.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였다. 나를 비웃었다. 나를 때렸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를 잊어야 분노가 사라진다.

지붕을 이는 방법이 잘못된 집에 비가 새듯이, 잘 닦지 않은 마음에 탐욕이 스며든다.

게으름을 피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삶의 길이다. 어리석은 자는 게으르고, 지혜있는 자는 노력한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깎아 곧게 하듯이, 현명한 사람은 그 마음을 바르게 한다.

들뜬 마음은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누르기 어렵지만 가라앉은 마음은 평온하다. 지혜롭게 이 마음을 안정시켜야만 평안함을 얻는다.

자신을 사악한 길로 유혹하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탐욕에서 지키고, 성냄에서 지키며, 모든 나쁜일로부터 지키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얻어진다.

2. 말만이 아름답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은 색깔은 좋고 향기없는 꽃과 같은 것이다.

꽃의 향기는 바람에 거슬러 풍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착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에 거슬러서도 세상에 퍼져간다.

잠을 못 이룬 자에게는 밤이 길고, 지친 자에게는 갈 길이 멀다. 바른 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 미혹과 고뇌의 시간은 길다.

실천의 길

먼 길을 가려면 자기와 같은 사람 혹은 더 나은 사람과 가는 것이 좋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만 못하다.

맹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나쁜 친구는 두려워 해야 한다. 맹수는 오직 몸만을 상하게 하지만, 나쁜 친구는 마음을 부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자식, 이것은 내 재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 한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어떻게 자식과 재물이 자기 것이겠는가!

어리석으면서 어리석음을 아는 자는 어리석으면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자 보다는 낫다.

어리석은 자는 현명한 사람과 어울려도 마치 수저가 맛을 모르듯 현명한 사람이 나타내는 가르침을 알 수가 없다.

신선한 젖은 쉽게 굳어지지 않는 것처럼, 악행도 바로 그 과보를 나타내지 않으나, 재에 덮힌 불처럼 잿속에서 타면서 그

사람에게 따른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승진이나 명예와 이익을 갈망한다. 그러나 그런 욕망들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다.

내 잘못과 불완전함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나의 악을 비난하는 사람을 우러러 모셔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있는 비밀장소를 가르쳐준 사람과 같다.

3. 좋은 가르침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져서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다. 가르침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냈기 때문이다.

목수가 나무를 곧게 다듬고, 궁사가 화살을 바르게 쏘며, 농부가 물도랑을 팔 때 곧게 내서 물을 순조롭게 흐르도록 하듯이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가다듬어 마음이 원만하고 진실하게 되도록 인도한다.

견고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은 비방과

실천의 길

칭찬에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이기는 것은 전장에서 천만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승리이다.

바른 법을 모르고 백 년을 살기보다는 바른 법을 듣고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훌륭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든 만약에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능히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켜라. 젊었을 때나, 한창 때나 혹은 늙은 뒤에라도 한 번은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

이 세상은 불타고 있다. 탐냄,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있다. 이 화택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이 세상은 거품 같고 허공에 매달린 거미줄 같고 더러운 빈병에 담긴 오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4.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해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이다.

참는다는 것은 이루기 어려운 수행 중의 하나이다. 그러니 잘 참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원한 속에 있으면서 원망하지 않고, 걱정 속에 있으면서 걱정하지 않고, 탐욕 속에 있으면서 탐내지 않아야 한다. 순수한 애타심을 갖고 살려면 내것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몸에 병이 없는 것은 제일의 이익이고, 족함을 아는 것은 제일의 부이며, 신뢰가 있는 것은 제일의 친함이고, 깨달음은 제일의 즐거움이다.

악을 멀리하고, 고요함을 즐기며,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의 맛을 아는 자에게 두려움은 없다.

마음속에 좋고 싫어함을 일으켜서, 거기에 집착에서는 안된다.

실천의 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서 슬픔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속박이 생긴다.

5. 죄의 늪은 죄에서 생겨서 죄를 갚아버리듯이, 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

경전이 있어도 성실하게 읽지 않으면 경전에 먼지가 끼고, 집이 있어도 손을 안 대고 방치하면 더러워진다.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면 몸과 마음이 더러워진다.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인색하면 보시를 더럽게 하고, 악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더럽힌다.

그러나 이 더러움들보다 무서워해야 할 더러움은 바로 무명의 더러움이다. 이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으면 사람은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할 수 없다.

무지한 사람은 자칫하면 후안무치하게 되어 까마귀처럼 뻔뻔하고, 남을 해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살아간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공경하고 남의 명예를 존중할 줄 알고, 집착을 떠나 생각과 행동을 맑고 깨끗하게 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남의 잘못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은 좀처럼 시인하지 않으며, 남의 죄를 요란하게 사방으로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죄는 노름꾼이 화투짝 감추듯 감춘다.

하늘에는 새와 연기와 폭풍의 자취가 생기지 않듯이 그릇된 가르침에 빠져서는 아무리 애써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공과 같아서 안정된 것이 없지만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동요가 없다.

6. 기사가 성문을 견고하게 지키듯이 마음의 문도 안팎의 위험들로부터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시라도 허술하게 해서는 안된다.

자기만이 진실한 주인이고, 자기만이 자신의 의지처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실천의 길

세속적 속박과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마음을 다스려서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명상해야 한다.

태양은 낮에 빛나고, 달은 밤에 비친다. 무사는 무장을 해야 빛나고, 도를 구하는 사람은 조용히 명상을 해야 빛난다.

눈, 귀, 코, 혀, 몸의 오관의 입구를 지키지 않고, 외계에 이끌리는 사람은 도를 닦는 사람이 아니다. 오관의 입구를 굳게 지켜서 마음을 철저히 단속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7. 집착이 있으면 그것에 도취되어, 사물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집착을 떠나면 사물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집착을 떠난 마음에 사물은 오히려 새롭게 보인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슬픔도 기쁨도 넘어서고, 선도 악도 없어져서 비로소 얽매임이 없어진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동경하여 부질없이 애쓰거나, 지난 날의 그림자를 쫓아 후회만 하고 있다면 베어놓은 갈대처럼 시들

어 버린다.

지나 간 일들을 후회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거나 불행을 부질없이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현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

과거를 쫓아서 안된다. 미래를 기다려서도 안된다. 오직 현재의 한 순간만을 굳세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해야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확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다. 당장 행하면 그것이 좋은 하루를 사는 길이다.

지혜는 훌륭한 안내자이고 믿음은 좋은 친구다. 깨달음의 빛을 찾아서 무지와 피로움의 암흑을 벗어나야만 한다.

심신을 잘 닦은 사람은 그것이 덕행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불제자의 신성한 의무이다. 믿음은 가장 든든한 재산이요, 성실은 가장 훌륭한 것이며, 공덕을 쌓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직무이다.

실천의 길

인생의 행로에서 믿음은 세상을 방랑하는 이의 양식이고, 공덕은 소중한 보금자리이며, 지혜는 낮을 밝혀주는 빛이며, 바른 생각은 야경꾼이다. 오욕이 없는 사람의 생활은 멀하지 않고, 욕망을 이겨야만이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

가족을 위해서 내 몸을 잊고, 내 마을을 위해서 내 집을 잊고, 나라를 위해서 고향도 잊으며, 깨달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잊으라.

모든 것은 변하며,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생과 멸을 떠날 수 있을 때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얻는다.

증가

제 1 장 사람의 본분

제 1 절 출가의 생활

1. 내 제자가 되려는 자는 가족과 세속적인 생활과 재산을 버려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나의 제자요, 출가자라고 불린다.

비록 나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와 내 발자국을 밟고 있어도, 욕망으로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그 사람은 나로부터는 멀다. 비록 걸모습은 출가자이나 그는 가르침을 보고 있지 않다. 가르침을 보지 않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록 나로부터 몇 천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르고 고요하며 욕망을 떠나 있으면, 그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자이다. 가르침을 따르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나를 보기 때문이다.

2. 출가자는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생활의 기본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형겹으로 이어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 둘째, 탁발에 의하여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 셋째, 나무 밑이나 돌위를 거처로 해야한다. 넷째, 형제들이 배설한 오줌으로 만든 약만을 써야 한다.

발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먹을 것을 탁발하는 결식의 수행은 타인이 시켜서 하거나 어려운 사정이 생기거나 핍에 빠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식 생활을 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면할 수 있고 미혹을 떠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출가하고 있으면서도 욕망을 떠나지 않고, 성냄으로 마음이 흐트러져 오관을 지킬 수가 없다면 그야말로 부질없는 일이다.

3. 스스로 출가자라고 믿고,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출가자라고 대답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출가자로서 해야할 일은 반드시 지킨다. 이 출가자의

사람의 본분

본분으로서 나에게 보시하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서 커다란 그들이 행복을 얻게 하고, 나 자신의 출가한 목적을 다하도록 하리라.”

그러면, 출가자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남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과 스스로 부끄러워 하는 것을 갖추어 몸, 입, 그리고 뜻에 의한 세가지 행위와 생활을 청정케 하고, 능히 오관의 입구를 지켜서 향락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또 자신을 추켜올리고 남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하여 잠만 자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저녁때는 고통히 앉아 참선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전에 보행을 하며, 밤중에는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두 발을 포개고 누워서 일찍 일어날 시간을 생각하며 조용히 잠들고, 새벽녘에 일어나 정좌한 채 고통히 참선을 하거나 보행을 해야 한다.

또 행주좌와가 늘 바른 마음이어야 한다. 조용한 곳을 찾아 자리를 하고, 몸과 마음을 똑바로 하고, 탐냄, 성냄, 어리석음, 잠, 들뜬 마음, 뉘우침, 의심을 떠나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마음을 통일하여 뛰어난 지혜를 일으켜 번뇌를 끊고 열심히 깨달음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다.

4. 만약에 출가자의 몸이면서 탐욕을 버리지 않고, 성냄을 떠나지 않으며, 원함과 질투, 자만과 오만 같은 과오를 감추는 것을 그만두지 못한다면 마치 양날의 칼을 옷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승복을 입고 있다하여 모두 출가자가 아니고, 탁발하고 있다하여 모두 출가자가 아니고, 경전을 읽고 있다하여 모두 출가자가 아니니, 그런 자는 그저 겉모습만의 출가자일 뿐 지푸라기보다도 더 나을 것이 없다.

출가자의 격식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겉모습만 승려일 뿐이라면 번뇌를 없앨 수는 없다. 갓난아에게 승복을 입혀도 출가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을 바르게 통일하여 제어할 수 있고, 지혜를 밝게 하고 번뇌를 없애서 오로지 깨달음으로만 향하는 사람이라야 출가자 본연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출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의 본분

진정한 출가자는 비록 피가 마르고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을 하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해 정진한다. 그런 사람은 마침내 출가의 목적을 이루고 청정한 행을 성취할 수가 있다.

5. 출가자의 사명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하고, 무지몽매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잘못된 견해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신명을 바쳐 가르침을 널리 베풀기 위해 어디든지 가야 한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설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르침을 설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

부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겸손하고 온화하게 참는 마음을 갖는 일이다. 부처님의 좌에 앉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한 것으로 보고, 집착을 갖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의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자비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6. 또 이 가르침을 만족스럽게 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네 가지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몸으로 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2) 대중들에게 하는 말에 대하여, (3) 가르침의 동기와 성취하려는 목적에 대하여, (4) 대비(大悲)에 대해서이다.

첫째, 가르침을 잘 설하기 위해 출가자는 무엇보다 인내의 대지에 머물러서 온화하여 거칠지 않고, 극단을 피하고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공한 것이어서 집착해야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마음자리를 두고 몸의 행을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둘째, 출가자는 온갖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골고루 마음을 쓰며 상황에 조심해서 대처해야 한다. 권세있는 자나 사악한 생활을 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이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모든 것들은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는 도리를 생각하여서 이것을 마음자리로 하고, 타인을 모욕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며 타인의 과오를 들추지 않도록 한다.

셋째,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고, 부처님을 대할 때는 자애로운 아버지로 대하고, 도를 닦는 사람들은 스승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비심을 일으켜 평등하게 가르침을 설하여

사람의 본분

야 한다.

넷째, 부처님과 같이 자비의 마음을 최대한 발휘하여 도를 구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을 추구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그들의 참된 이익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불자의 길

1. 불교를 믿는 자란 삼보 즉 불, 법, 승을 믿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 자는 부처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며, 계율을 지키며 승단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재가자로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의 계란 첫째, 살생하지 말것. 둘째, 도둑질하지 말것. 셋째, 간음하지 말것. 넷째, 거짓말하지 말것. 다섯째, 음주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가자는 스스로 삼보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재가자로서의 계

를 지킴과 동시에 타인에게도 이 믿음과 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친척과 친구, 지인들이 같은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도 또한 부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있다.

재가자가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재가자로서의 계를 지키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므로 재가의 애욕의 생활속에서도 애착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가자는 부모와도 결국 헤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가족과도 결국 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 세상도 결국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 헤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에 마음이 얽매이지 않고, 헤어짐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2.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이 두터워 물러나는 일이 없으면 즐거움은 자연스럽게 솟아난다. 이 경지에 들면 무엇에서나 빛을 찾고, 즐거움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믿는 마음은 맑고 부드러워, 늘 인내하고 다툼을 싫어

사람의 본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불법승을 생각하므로, 기쁨은 자연히 솟어나 깨달음을 위한 빛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믿음으로써 부처님과 일체가 되고, ‘나’라는 생각을 떠나 있고 내것을 탐하지 않으니 생활에 두려움이 없고, 비방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불국토에 태어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르침의 진실과 존귀함을 믿고 있으므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도 두려움없이 자기가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다.

또 불제자의 마음은 자비로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고 싫은 생각이 없이 대접하며 좋고 싫음을 떠나 있기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마음은 순수하고 정당하고 행복하다.

불제자는 순경을 만나든 역경을 만나든 믿음을 키우는 데는 상관없이 없다. 마음을 겸손하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말한대로 행하고, 행한대로 말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밝은 지혜로써 사물을 보고, 마음이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비록 탁한 세상에서 부정으로 더럽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서 어려운 경우에 처하여도 부처님을 믿는 마음을 가슴에 지닌
다면 그들이 악행을 떠나 선행을 쌓도록 인도 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가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
지 않으면 안된다.

누군가가 ‘이 타오르는 불속으로 들어가면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불 속으로 들어갈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온통 불타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도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흡족하고 불길 속에 뛰어들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방자
하면 안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고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며 깊은 자비의 마음으
로 타인을 대하여야 한다.

불제자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마음에 두지 말고 무
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의 본분

실천하며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으며,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좁고 작아서 언제나 안달한다. 그러나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큰 대비심으로 온갖 것을 포용하고 마음이 넓고 커서 사소한 일에 구애받지 않는다.

4.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일찍부터 이 몸을 무상한 것으로 보고, 괴로움이 생기는 근본으로 보며, 악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몸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몸을 귀중하게 보양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것은 쾌락을 탐하기 위한게 아니라, 도를 닦고 도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 몸을 잘 지키지 않으면 수명을 다할 수가 없으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면 가르침을 행할 수도 없고 또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도 없다.

강을 건너려는 자는 뗏목을 잘 돌봐야 하고, 먼 여행을 하려는 사람은 타고갈 말을 잘 돌봐야 하듯이, 가르침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 몸을 귀중하게 잘 지켜야 한다.

또한 부처님의 제자는 옷을 입을 때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으며, 몸의 치부를 가리거나 더위와 추위를 막기 위함이 아니면 안된다.

불제자는 음식을 들 때에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지탱하고 보양하여 가르침을 받아 남에게 설하기 위함 이어야 한다.

불제자는 집도 마찬가지로 몸 보호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가 사는 것일 뿐 허영 때문이어서는 안된다. 깨달음의 집에 살아야 하는데, 세속적 번뇌의 도적을 막고, 잘못된 가르침의 풍우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자는 이와 같이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사물의 가치를 잘 평가해서 오직 깨달음과 가르침을 위하고 타인을 위하여 불법을 전파할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사람의 본분

그러므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그 마음은 잠시도 가르침을 떠나서는 안 된다.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방편으로 믿음과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5. 또한 재가자에게는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에게 봉사하고, 자기를 보살피고 부처님을 시봉하는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있다.

즉 부모를 봉양할 때에는 모든 생명에 대해 자비를 베풀도록 해야 한다. 처자와 화평하게 살려면 애욕과 이기적인 안락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음악을 듣고 있을 때에는 더 즐거운 가르침의 노래를 생각하며, 편안히 방안에 있을 때는 현자가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소란을 피해서 안식을 구하는 참선하는 방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제자가 타인에게 보시할 때는 모든 것을 버려서 탐욕을 없애야 하며, 군중 속에 있을 때에는 마음이 현인들과 함께 해야 하며, 재난을 만났을 때에는 어떠한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평온

한 마음을 지녀야 하고 어떤 장애도 극복해야만 한다.

또 부처님에게 귀의할 때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애써야 한다.

불법에 귀의할 때에는 가르침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 바다와 같이 크고 넓은 지혜를 얻기를 원해야 한다.

승단에 귀의할 때에는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애정신을 구해야 한다.

또한 옷을 입을 때는 선과 겸양을 옷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소변을 할 때에는 탐냄,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의 오염을 없애기를 원해야 한다.

높은 곳을 오르는 길을 보면 위 없는 도에 올라 미혹의 세계를 넘는 것이라 생각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을 보면 상냥하고 겸손하게 심오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기로 원해야 한

사람의 본분

다.

또 다리를 보면 가르침의 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 것을 바라야 한다.

시름에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은 항상 변하고 바뀌어 비탄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슬퍼하는 마음으로 동정해야 한다.

쾌락의 생활에 빠진 사람을 보면 헛된 생활을 떠나 참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절제할 줄을 알고 욕심을 적게 하여 집착을 떠나기를 원하며, 맛없는 음식을 보면 세속의 욕심을 영원히 멀리하기를 원해야 한다.

또한 여름에 더위가 심할 때에는 세속적 욕망의 열기에서 벗어나 청량한 깨달음의 맛을 얻기를 원하며, 겨울에 추위가 심할 때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대비심을 원해야 한다.

경전을 읽을 때에는 모든 가르침을 간직하여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을 생각할 때에는 제 눈이 부처님의 눈과 같아지기를 원해야 한다.

밤에 잘 때에는 몸, 입, 그리고 뜻의 작용을 멈추어 마음을 청정하게 하기를 원하며,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날에 일어날 모든 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이 맑아지기를 원해야 한다.

6. 또한 불교를 믿는 자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공(空)’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므로 세상사나 인간들 사이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알맞은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의 세상사는 미혹이며 의미가 없고, 깨달음의 세계는 존귀하다고 하는 두 극단으로 나누지 말고,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깨달음의 길을 맛보아야 한다.

무명으로 뒤덮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의미없고 잘못된 것으로

사람의 본분

보이나 지혜를 가지고 밝게 바라보면 그대로가 깨달음의 세계가 된다.

사물 자체에는 의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없다. 둘로 나누는 것은 사람들이 차별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분별을 떠난 지혜로 비추면 모든 것은 다 존귀한 의미를 갖는 것이 된다.

7. 불교를 믿는 자는 모든 것에 두루 존재하는 순수한 단일성을 느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대비심을 베풀며 타인에게 봉사한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정중하게 남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간직한다. 그들은 풍요로운 대지와 같아서 모든 것을 차별없이 길러주고 모든 것에 봉사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온갖 괴로움을 끈기있게 참으며, 항상 게으리지 않고 모든 가난하고 험벗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씨앗을 뿌리는 데서 최상의 기쁨을 찾는 마음을 가진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벗으로 보며 부모처럼 공경한다.

그러므로 불교를 믿는 자에게 비록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서 적대시하며 해하려 해도 마음대로 해칠 수는 없다. 이를 테면 어떠한 독이라도 큰 바닷물을 전부 오염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8. 불교를 믿는 자는 명상과 반성과 감사하는 삶을 습관으로 하여 자신의 행복을 즐기게 된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곧 오로지 부처님의 자비의 힘에 의한 것이며 부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이다.

번뇌의 진흙 속에는 신심의 씨앗은 없으나, 이 진흙 속에 부처님의 자비로 믿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그 마음을 정화하고 마침내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난다.

에란다라는 독나무의 숲에 찬다나라는 향나무의 새싹이 날리가 없고, 번뇌의 가슴 속에 부처님을 믿는 씨앗이 싹틀 리가 없

사람의 본분

다.

그러나 실제로 환희의 꽃이 싹터서 번뇌의 가슴 속에 피어난다 해도 그 뿌리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니 바로 부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을 믿는 자도 ‘나’라는 생각이 앞서면, 탐냄,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남을 질투하고 증오하며 해롭게 한다. 그러나 부처님에게 귀의하면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위대한 불사(佛事)를 이룩하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가사의라 아니 할 수 없다.

제3절 생활의 지침

1. 재난이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은 모르고, 동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마음의 내부를 닦지 않고 외부로부터 재난이 온다고 밖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랜 옛날부터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동서남북 상하의 욕방에 절을 해서 어느 쪽에서도

재앙이 오지 말기를 빌며 하루가 안전하게 지나가기를 비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신다. 올바른 진리의 육방을 향하여 존경을 표하고 현명하고 덕있게 행동하여 재난을 막도록 가르치신다.

이 육방을 지키려면 먼저 네 가지 행의 더러움을 벗기고, 네 가지 악심을 그치고, 가옥이나 재산을 기울게 하는 육구(六口)를 막아버리지 않으면 안된다.

네 가지 행의 더러움이란 살생, 도둑질, 간음 그리고 거짓말이다.

네 가지 악심이란 탐냄, 성냄, 어리석음 그리고 두려움이다.

가옥이나 재산을 기울게 하는 육구란 ‘술을 마시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일, 밤새도록 놀고 돌아다니는 일, 음악이나 연극에 빠지는 일, 도박에 빠지는 일, 나쁜 친구와 사귀는 일, 그리고 업무를 태만히 하는 일’ 이다.

사람의 본분

이 네 가지 행위의 더러움을 벗기고, 네 가지 악심을 그치고, 가옥이나 재산을 기울게 하는 욕구를 막고, 그리고 진실한 욕망에 예배하는 것이다.

이 진실한 욕망이란 첫째, 동은 아버지와 자식의 도리이고, 둘째, 남은 사제간의 도리이고, 셋째, 서는 부부의 도리이고, 넷째, 북은 친구간의 도리이고, 다섯째, 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도리이고, 여섯째, 상은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로서의 도리이다.

우선 동방에서 부모와 자식의 도리라는 것은, 자식은 부모에게 다섯 가지의 것을 행해야만 한다. 즉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위해 일하고, 집안을 지키고, 집안의 대를 잇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한편, 부모는 자식에게 다섯 가지의 것을 행해야만 한다. 즉 악을 멀리하게 하고, 선을 행하도록 하고, 지혜와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결혼을 시키고, 적당한 시기에 집안의 대를 잇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 다섯 가지를 지키면 가정은 평화로워지며 풍파가 일지 않는다.

다음으로 남방에서 스승과 제자의 도리라는 것은, 제자는 스승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가까이서 잘 보필하고, 열심이 청해 듣고, 공양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공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한편 스승은 제자에게 스스로 몸을 바르게 하여 가르치고, 스스로 배우고 익힌 것을 전부 바르게 전수하고, 잘 터득한 것을 잊지 않도록 시키고, 잘 이끌어 주어 이름을 빛내도록 하고, 어디에서도 이익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행하면 사제간의 도리가 지켜져 사제간의 관계가 원만해진다.

다음으로 서방에서 부부간의 도리라는 것은,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심을 품고, 예절을 갖추며, 정조를 지키고, 가정을 맡기고, 때로는 살림에 필요한 도구나 장식품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편, 아내는 남편을 위해 애써서 가정을 보살피고, 친척들을 법도에 맞게 대접하고, 정조를 지키며, 집안의 재산을 잘 지키고,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해야만 한다. 부부가 이렇게 본분을 지키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북방에서 친구간의 도리라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한

사람의 본분

부분을 채워주고, 상냥한 어투로 말하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정직하게 대하여만 한다.

또한 친구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만일 나쁜 길로 빠질 경우에는 그의 재산을 지켜주고, 또 걱정이 있을 때에는 상담의 상대가 되어주고, 역경에 처했을 때에는 도움의 손길을 뻗쳐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부인과 자식을 보살피도록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친구간의 우정은 오래 지켜지고 행복은 더욱 커진다.

다음으로 하방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도리라는 것은,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다음의 다섯가지를 지켜야만 한다. 즉 그의 힘에 맞추어 일을 시키고, 좋은 음식과 급여를 제공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친절히 간병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며, 필요할 때에는 휴양을 시켜야만 한다.

한편,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다섯 가지의 마음가짐으로 봉사해야 한다. 즉 아침에는 고용주보다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고용주보다 늦게 잠들고, 어떠한 것에도 정직하고, 일에 잘 숙련되도록 하며, 고용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이에 분쟁이 사라지며 평화롭고 근심이 없다.

다음으로 상방에서 불제자의 도리라는 것은, 가르침을 준 스승에게 몸도 입도 마음도 인정으로 넘쳐서, 정중하게 스승을 대하며,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공양해야만 한다.

한편, 가르침을 설하는 자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사람의 길을 설하고, 가르침을 잘 이해시켜, 사람들이 평안의 경지에 들어 가도록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귀한 문중의 가풍에 중심이 서게 되어 아름답게 번창할 것이다.

육방을 예방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육방을 예방하여 재난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육방을 지켜서 안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스스로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사람은 친해야 할 사람과 친해서는 안될 사람을 잘 분별해야 한다.

사람의 본분

친해서는 안될 사람이란 탐심이 깊은자, 말이 교묘한 자, 아첨하는 자, 낭비하는 자이다.

친해야 할 사람이란 진실하게 도움이 되는 자,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 조언에 인색하지 않은 자, 동정심이 많은 자이다.

안전하게 사귄 만한 참된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정도를 철저히 고수하며, 뒤에서 걱정해 주고, 재난을 만났을 때에 위로해 주며, 필요할 때에는 조력을 아끼지 않고, 비밀을 지키고, 늘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스스로 이와 같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또한 자기도 이와 같은 친구가 되도록 마음먹지 않으면 안된다. 태양이 풍요로운 대지를 따뜻하게 하듯이 좋은 친구는 그 바른 행위로 세상을 비춘다.

3. 부모의 큰 은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 보답할 수 없다. 설령 백 년간 오른쪽 어깨에 아버지를 태우고,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녀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다.

또 백 년동안 밤낮없이 향기로운 목욕물로 부모의 몸을 씻어 드리고 모든 공양을 다한다 하여도, 또 부모에게 옥좌를 마련해 드리고 왕처럼 섬기며 이 세상의 모든 호사를 다 시켜드려도, 여전히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부모를 인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게 하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하고, 탐욕을 버리고 보시를 즐겨할 수 있게 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큰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 이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하고 즐겁게 헤드리는 집에는 부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4. 가정은 마음과 마음이 가장 가깝게 접촉하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화목하면 화원처럼 아름다우나, 만약에 마음과 마음의 조화를 잃으면 격한 풍파를 일으켜서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만약 가정에 풍파가 일면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먼저 자

사람의 본분

신의 마음을 반성해서 바르게 걸어가야 한다.

5. 옛날에 한 신심이 두터운 젊은이가 있었다. 어릴 때 부친이 세상을 떠나 모친과 함께 단란한 생활을 하던 중 새로 며느리를 들여 세 사람이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화목하고 평화스럽게 지냈지만 아주 자그마한 일로 오해가 생겨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풍파가 일기 시작했다. 갈등이 더욱 심해지자 결국 어머니는 젊은 두 사람을 뒤로 남긴 채 집을 떠나게 되었다.

어머니가 따로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는 잔소리만 들어 좋은 일이 별로 없었는데, 따로 사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라고 며느리가 말했다는 소문이 홀로 사는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갔다.

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대단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시어미를 쫓아내고도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 세상은 잘못된 게 아닌가! 요즘 세상은 정의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렇게 된 이상 정의를 장사 지내야겠다.”
라고 울부짖으며 미친 사람처럼 묘지로 달려 갔다.

이런 일을 알게 된 인드라신은 곧 시어머니 앞에 나타나서 자
초지종을 묻고 여러가지로 타일렀으나 시어머니는 마음의 화를
풀지 않았다.

인드라신은 마침내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이 후련해지도록 지
금부터 꼴도 보기 싫은 새 며느리와 손자를 태워 죽여 주겠다.
그래도 좋겠는가?”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놀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
고 화낸 것을 사죄하고 며느리와 손자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이
무렵 아들과 며느리도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뉘
우치고 어머니를 찾아 묘지로 달려오는 중이었다. 인드라신은
이 고부를 화해시켰고, 그 후로 가족이 다시 모여 행복하게 살
게 되었다.

스스로가 정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정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
는다. 정의는 종종 사라지는 듯이 보이지만 그 자체가 결코 사

사람의 본분

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른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마음과 마음의 갈등은 그야말로 무서운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조그마한 오해도 결국 커다란 재난을 불러온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 런 점은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6. 가정생활에서 매일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가족들은 누구나 개미나 벌처럼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질없이 남의 힘에 의지하거나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안된다.

한편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재산은 자기 한 사람의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중 얼마간은 타인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또 얼마간은 저축하여 비상용으로 대비하고, 사회를 위하여, 가르침을 위하여 쓰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엄밀하게 말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다 오직 인연에 의하여 자기에게 온 것이며, 잠깐동안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라도 중요하게 여

겨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7. 아난다가 우다야나왕의 아내인 사마바티 왕비로부터 500 벌의 옷을 공양받았을 때에 아난다는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혹시 아난다가 탐욕으로 받은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였다. 왕은 아난다를 찾아가 물었다.

“존자는 500 벌의 옷을 한꺼번에 받아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라고. 아난다는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많은 비구들이 떨어진 옷을 입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이 옷을 나누어 주겠소.” 라고.

“그렇다면 떨어진 옷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 옷으로 이불을 만들지요.” “그러면 헌 이불은?” “베갯이로.” “헌 베갯이는?” “방바닥에다 깔지요.” “그 헌것은?” “발걸레를 만듭니다.” “낡은 발걸레는 어떻게 합니까?” “걸레를 만들겠소.” “헌 걸레는?” “대왕이시여! 우리들은 그 걸레를 조각으로 만들어서 진흙과 섞어 집을 지을 때에 벽속에다가 넣지요.”라고 하였다.

사람의 본분

물건은 중하게 써야 한다. 아껴서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내것이 아닌 즉 맡겨 놓은 것을 쓰는 방법이다.

8. 부부의 관계는 오직 좋은 대로 맺어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육체가 같은 곳에 사는 것만으로 다한 것도 아니다. 부부는 함께 하나의 가르침에 의하여 마음을 기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찌기 부부의 귀감이라고 칭찬받던 어느 노부부는 세존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게 되어 부부가 되었으나, 지금까지 마음의 어느 구석에도 정조의 흐림을 깃들여 본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부부로서 일생을 보낸 것처럼, 후세에 가서도 부부로서 만날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세존은 대답하기를, “둘이 다 신앙을 함께 하라.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똑같이 마음을 기르고, 똑같이 보시하고 지혜를 같이 하면 후세에 가서도 똑같이 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9. 깨달음의 길에서 남과 여의 구별은 없다. 여자도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깨달음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프라세나지트 왕의 딸이며 아요디아 왕의 비인 말리카부인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구하는 자로서 세존의 가르침에 깊이 귀의하여 세존 앞에서 다음의 열 가지 서원을 세웠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부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① 받은 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② 손위의 분들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③ 모든 사람들에게 성내지 않겠습니다.

④ 사람의 모습이나 형상, 소유하는 것에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⑤ 어떤 물건에도 인색하지 않으며 절대로 아까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⑥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지 않고, 받은 것은 모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겠습니다.

⑦ 저는 모든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고, 보시하고, 상냥하게 말하며,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되 결코 자신만의 편익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며, 차별없는 마음으로 모든 사

사람의 본분

람들을 이롭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⑧ 가족이 없어 기댈 곳 없는 사람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또는 병들어 괴로워 하는 사람이나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바른 도리와 이치를 설하여 들려 주고 고통에서 구해 주겠습니다.

⑨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여러가지 계를 범하는 사람을 보면 내 힘이 닿는 한 꾸짖을 일은 꾸짖고 타이를 것은 타일러서 그 잘못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⑩ 바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잊은 자는 모든 것에 퍼져가는 진실한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져 깨달음의 언덕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한 이 불행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세가지의 원을 세웠다. ① 저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 지도록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근으로써 어떠한 생을 받아도 그곳에서 바른 가르침의 지혜를 얻게 될 것 입니다.

② 바른 가르침의 지혜를 얻고 나서는 싫증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설하여 들려 주겠습니다.

③ 제가 얻은 바른 가르침은 제 육신과 생명과 재산을 다 던져서라도 꼭 지키겠습니다.

가정생활의 참된 뜻은 서로 손잡고 도를 닦아나가는 데에 있다. 평범한 여성이 도를 닦아나가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 말리카 부인처럼 큰 원을 갖는다면 진실로 훌륭한 불제자가 될 것이다.

제 2 장 불국토의 건설

제 1 절 화합하는 법우들

1. 황량하기 그지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별판에 아무 빛도 비치지 않는데 무수한 생물들이 우글거리며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나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부딪치기라도 하면 겁에 질려 달아나고 각자 홀로 외로움에 떨면서 꾸물거리고 있다. 이 얼마나 가련한 광경인가.

그 때 갑자기 빛이 비쳐 왔다. 홀연히 나타난 위대한 사람이 햇불을 비추었던 것이다. 캄캄하던 들판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다.

그러자 지금까지 어둠을 더듬으며 고독 속에 방황하고 있던 생물들은 주변을 바라보더니 제 주위에 자기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크게 안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우정을 나눌 것이다.

지금 이 ‘별판’이라는 것은 무지의 암흑 속에 사는 인생이요, 암흑은 바로 지혜의 빛이 없는 것을 말한다. 마음에 지혜의 빛이 없는 자는 고독과 공포 속에서 헤맨다. 서로 만나도 알아보고 화합할 줄 모르므로 홀로 태어나 외롭게 죽는다. 그런 자들이 의기소침 하고 겁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위대한 사람이 햇불을 들고 나타났다.” 라는 것은 부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지혜와 자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시는 것을 말한다.

이 빛으로 인해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발견하고서 기뻐하며 인류애와 화합하는 정신을 깨닫는다.

수 천만의 사람들이 한 사회에 모여 살고 있어도 서로 잘 지내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으로 우정이 있는 사회는 아니다.

참된 공동체 사회란 믿음과 지혜가 빛나서 서로 알고 믿으며 화합하는 곳을 말한다.

불국토의 건설

실로 화합이 참된 사회나 단체의 생명이며 또 참된 뜻이다.

2. 그러나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단체가 있다. 첫째는 권력이나 재력이나 힘있는 지도자의 권위에 기초하여 모이게 되는 단체이다.

둘째는 이해관계가 같아서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익을 만족시켜 주는 한 다투지 않아도 되는 단체이다.

셋째는 훌륭한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고, 화합을 생명으로 삼는 단체이다.

이 세 단체 가운데 셋째가 가장 참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마음이 하나 되어 생활하고 있어서 그 속에는 한 마음으로 사는 화합정신과 여러 가지 공덕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화합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

깨달음은 산에 내린 빗물이 흘러서 계곡의 물이 되고 차례로 큰 강으로 이어지다 드디어는 대해에 흘러드는 것과 같다.

거룩한 가르침의 비는 못사람들의 조건이나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린다. 여러 가지 수준과 환경의 사람들도 똑 같은 가르침의 비에 젖어서 작은 모임에서부터 점차로 보다 더 큰 조직과 사회로 흘러들어 드디어 깨달음의 대양에 자신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물과 젖처럼 융합하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형제애가 있는 단체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바른 가르침은 실로 이 지상에 아름다운 참 단체를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요건이며,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로를 발견하게 하는 빛이요, 서로 적응하면서 사람들의 온갖 굽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화합시키는 힘이다.

진실한 이런 단체는 부처님의 완벽한 가르침을 근본적인 힘으로 하기 때문에 승단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에서는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이 가르침에 의지하여 길러내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승단은 원칙적으로는 지상의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해야 한다. 하지

불국토의 건설

만 현실적으로는 믿음을 함께 하는 사람들 뿐이다.

3. 믿음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승단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재가자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자와 이런 스승들에게 필요한 옷과 음식을 제공하여 성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둘은 서로 손잡고 승단을 유지하고 확장하여 가르침을 널리 보급하고 오래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승단을 완벽하게 하려면 구성원들 모두가 완벽하게 화합해야 한다. 승려는 재가자를 가르치고, 재가자는 가르침을 주는 승려들을 믿고 공경해야 이 둘 사이에 화합이 있게 되는 것이다.

승단의 구성원들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여 믿음을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행복을 기뻐하며,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4. 승단화합의 여섯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성실한 말을 하며, 둘째, 성실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며, 셋째, 성실함과 자비의 뜻을 지키며, 넷째, 공동으로 얻은 것은 서로 똑같이 나누어 가지며, 다섯째, 똑같이 청정한 계를 지키며, 여섯째, 서로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다.

이 가운데 올바른 견해가 중심이 되며 다른 다섯 가지를 포섭하는 것이다.

승단을 번영시키는 두 종류의 일곱 가지 원칙이 있다. 첫번째는 단체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다.

- (1) 서로 자주 모여서 가르침을 듣고 토론한다.
- (2) 위 아래가 마음을 터놓고 서로 화합하며 서로 존경한다.
- (3) 가르침을 존중하고 규율을 존중하여 함부로 고치지 않는다.
- (4) 나이든 이나 젊은이나 서로 예로써 대한다.
- (5) 성실성과 존경심을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
- (6) 고요한 곳에서 마음을 맑게 하고,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불국토의 건설

뒤로하여 진리를 따른다.

(7)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오는 자를 정중하게 대접하고, 병든 자를 정성으로 간호한다.

이 일곱 가지를 지키면 승단은 결코 쇠퇴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는 각 개인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1) 청정한 마음을 잘 지켜서 너무 많은 일들을 원하지 않는다.

(2) 성실한 마음을 간직하고 탐욕을 버린다.

(3) 인욕을 지켜서 다투지 않는다.

(4) 침묵을 지켜서 잡담하지 않는다.

(5) 규범을 지켜서 거만하지 않는다.

(6) 하나의 마음을 지켜서 이교도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

(7) 일상생활을 질박하고 검소하게 해야 한다.

이 일곱 가지 원칙을 지키면 승단은 쇠퇴하지 않는다.

5.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승단은 화합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며 화합이 없는 승단은 승단이라 부를 수 없으므로 각자는 불화가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만일 불화가 생길 경우에는 재빨리 불화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불화는 머지 않아 조직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피는 피로써 지울 수 없고, 원한은 원한으로써 갚을 수 없다. 원한을 잊어버리는 길만이 원한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다.

6. 옛날에 장재라는 왕이 있었는데, 호전적인 이웃나라의 브라흐마닷타 왕에게 나라를 빼앗겼다. 장재왕은 왕자와 왕비가 있었는데 한참 동안 이 둘을 숨겨 두었다가 붙잡혔지만 다행히 왕자는 도망칠 수가 있었다.

왕자는 부왕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엿보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부왕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 왕자는 변장을 하고 형장에 갔으나 굴욕을 참고 불운한 부왕의 불쌍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왕은 군중 속에 있는 왕자를 발견하고서 “오래 추적해서는 안 된다. 서둘러서도 안된다. 원한의 마음을 없애야만 원한은 사라

불국토의 건설

지는 것이다.” 라고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그 뒤에 왕자는 오랫동안 복수할 길만을 찾으며 지냈다. 그런 왕자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왕궁에서 시종자리를 얻게 되어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신임까지 얻게 되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가게 되었을 때 왕자는 복수할 기회를 노리다가 피를 내어 왕을 군사들로부터 떼어내고 외진 곳으로 인도하여 둘이서만 온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다가 피로에 지친 왕은 휴식을 취하다 신임하는 이 왕자의 무릎을 베고 잠깐 잠이 들었다.

다시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왕자는 칼을 빼서 왕의 목을 겨누었다. 하지만 그 순간 끌려갔던 부왕이 처형되던 순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찌르지 못하고 망서리고 있던 차에, 돌연히 왕은 눈을 뜨며 하는 말이 방금 장재왕의 왕자에게 목을 찔릴 뻔한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자 왕자는 황급히 왕을 잡아 누르고 칼을 휘두르며

이제야 비로소 오랜 원한을 풀 때가 왔다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내 칼을 버리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왕은 왕자에게서 죽음을 앞둔 장재왕의 말을 전해 듣고 크게 감동하였고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였다. 그 뒤로 왕자에게는 예전의 나라를 돌려주었고 오래도록 두 나라는 친교를 이어갔다.

장재왕의 유언 중에 “오래 추적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은 원한을 길게 이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서둘러서도 안된다.”라는 것은 서둘러 우정을 저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원한은 본래 원한에 의하여 진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한을 잊었을 때만이 진정된다.

화합의 올바른 가르침에 기초를 둔 승단에서는 우애를 위한 이 이야기에 담긴 정신을 두고 두고 음미할 필요가 있다.

승단의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세상살이를 하며 사는 모든 사람

불국토의 건설

들도 이 이야기에 담긴 정신을 거둬 되새기고 실천해야 하리라.

제2절 부처님의 나라

1. 앞에서 말했듯이 화합을 바탕으로 하여 생활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명을 잊지 않을 때에 승단은 차차 그 반경을 넓히면서 가르침을 보다 더 널리 펼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수양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 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것은 무명과 애욕의 마왕이 이끄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마군이었다. 이제 이들이 물러나고 여기에 지혜와 광명과 믿음과 환희가 그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악마의 영토는 탐욕과 어둠이며, 다툼과 전쟁, 칼과 유혈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또한 편견, 질투, 증오, 시기, 아부, 은닉, 비방이 판치는 곳이다.

이제 거기에 지혜가 빛나고 자비의 빔줄기가 고루 적시며 신앙의 뿌리가 뻗어 환희의 꽃이 피고 향기를 퍼뜨리면 악마의 영토는 일순에 불국토가 된다.

상쾌한 미풍과 나무가지에 핀 한 떨기 꽃이 봄이 왔음을 알리듯이 한 사람이 깨달음을 열면 산천초목, 산하대지, 모두가 자연히 새로운 생명을 얻어 맥박치는 불국토가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정하면 그가 있는 주변도 역시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2. 가르침이 퍼져있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순박하고 평온하게 된다. 참으로 부처님의 자비는 지치는 줄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해 주시고, 부처님의 대비심의 광명이 마음에 차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이 순박하고 청정한 마음은 깊은 마음, 고귀한 진리의 길을 따르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 계를 지키는 마음, 참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 고요한 마음, 지혜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되며 또 다시 여러 방편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도를 닦게 하는 마음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불국토가 훌륭하게 세워진다.

처자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도 훌륭하게 부처님이 깃드는 가정이 되고, 사회적 차별을 받아 고통을 면할 수 없는 국가라도

불국토의 건설

가족에 정신을 지닌 화합체로 바뀐다.

탐욕에 더럽혀진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궁전은 부처님이 머물 곳은 못 된다. 천정으로 달빛이 스며드는 허술한 집이라도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주인이라면 그 곳이 바로 부처님이 깃드는 곳이다.

단 한 사람의 청정한 마음 위에 세워진 불국토는 믿음을 함께 하는 이들을 불러 들여서 차츰 그 수를 더해간다. 가정으로, 마을로, 거리로, 도시로, 나라로 나아가 전 세계로 차례차례로 퍼져나간다.

법의 가르침을 넓혀가는 열의와 성실성은 바로 부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마음이다.

3. 이 세계는 어느 한쪽에서만 보면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차고 피로 얼룩진 세계로 보이지만 부처님의 진리를 믿게 되면 피는 젖으로 변하고 탐욕은 자비로 바뀌어져 악마의 나라가 마침내 청정한 불국토로 변한다.

한 자루의 국자를 들고 큰 바다의 물을 다 퍼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로 보이겠지만,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며 영겁에 걸쳐서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고야 말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자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피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피안은 깨달음의 세계이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고뇌가 없는 나라이다. 그곳에는 지혜의 빛만이 빛나고 자비의 빗물만 촉촉히 내리고 있다.

그곳은 고통받고 슬픔에 빠진 자들의 피난처이며, 불법의 가르침을 펼치는 데 지친자가 들어가 되는 휴식처이다.

이 청정한 나라는 무한한 빛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 휴식처에 도달한 사람은 두 번 다시 미혹한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게 된다.

실로 이 청정한 나라는 꽃이 지혜의 향기를 하늘에 뿜어내고 새들이 거룩한 법문을 노래하는 곳이며, 모든 사람들이 최후에 돌아가야 할 바로 그곳이다.

불국토의 건설

4. 그러나 이 나라는 휴식처이기는 하나 느긋하게 게으름을 피울 곳은 아니다. 향기로운 화원은 태평스레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 있는 놀이터가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 전파의 사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정력과 열의를 회복하는 휴식처이다.

부처님의 일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살아가고,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인류가 이기적이고 더러운 마음을 지니고 제멋대로의 세상과 상황을 만드는 한 부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 부처님의 위대한 힘에 의하여 피안의 정토에 들어간 불자들은 또 다시 각자의 인연있는 세계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일에 참여하여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하나의 등불이 켜지면 차례차례로 다른 등에 불이 옮겨지듯이 부처님의 자비의 등불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잇따라 붙여져서 영원히 꺼질 줄을 모를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심을 체득한 불자들도 사람들의 마음에 광명을 놓고 청정하게 하는 부처님의 일을 맡아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

대로 계속 전하여 영원히 부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빛나도록 일해야 한다.

제 3 절 불국토를 떠받치는 것

1. 우다야나 왕의 아내인 샴마바티 왕비는 깊이 세존에게 귀의하고 있었다.

왕비는 궁궐의 깊은 곳에 살며 외출하지 않았다. 시녀인 곱추 웃다라는 기억력이 좋아서 언제나 세존의 법좌에 끼어 가르침을 받으면 세존의 말씀을 그대로 왕비에게 전하여 이것에 의하여 왕비의 지혜와 신앙은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갔던 것이다.

그런데 후궁인 둘째 왕비 마간디야는 샴마바티 왕비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우다야나왕에게 온갖 중상모략을 하였다. 결국 이에 넘어간 왕은 샴마바티를 죽이려고 하였다.

샴마바티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고요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 그러자 왕은 자비가 넘쳐나는 왕비의 모습에 질려서 그만 살의를 잃어버려 죽일 수가 없었다. 자제력을 회복한 왕은 왕비에게 자신의 불신과 무례한 행동을 사과하였다.

불국토의 건설

마간디아는 질투가 점점 더 심해져서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왕이 출타한 어느날 어느 못된 자들과 일을 꾸며 샤마바티의 궁실에 불을 질렀다. 왕비는 조금도 평온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겁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시녀들을 다독이며 세존의 가르침을 깊이 마음에 담고서 두려움 없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시녀인 웃타라도 불 속에서 함께 죽었다.

부처님의 재가 여인들 중에 샤마바티는 자비로운 마음이 으뜸가는 사람이고, 웃타라는 법문을 가장 성실하게 들은 여인으로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2. 석가족의 왕자 마하나마는 세존의 사촌동생인데 세존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이 참으로 두터웠고 가장 성실한 제자 중의 한 사람이다.

어느 날 이웃한 코살라국의 포악한 바이루다카왕이 석가족을 공격해 왔다. 마하나마 왕자는 석가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이자 직접 그 왕을 만나 자기 백성들만은 살려달라고 청하였다. 하지만 포악한 왕이 들어주지 않자 적어도 자기가 이 근처에 있는 연못 속에 잠겨있을 테니 그 동안 성문을 열어 달아날 수 있

는 자들만이라도 도망치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이 물 속에 가라앉아 있을 동안이라면 아주 짧은 시간이겠거니 생각한 왕은 이것을 허락하였다.

마하나마는 연못 속으로 들어가고 성문은 열려 사람들은 안전하게 도망쳤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하나마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못 속으로 들어가 머리를 풀어 버드나무 뿌리에 묶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구했던 것이다.

3. 옷팔라바르나는 그 지혜가 으뜸가는 비구니며 지혜에 관한 한 마우드갈야야나(목건련)에 견줄 만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비구니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서 비구니들을 거느리고 교화하기를 잠시도 쉬지 않았다.

데바닷타는 사악하고 잔인해서 아자타사트루 왕의 마음을 어지럽혀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반역하도록 충동질하였지만 나중에 아자타사트루 왕은 정신을 차려 뉘우치고 우호관계를 끊고 부처님의 겸손한 제자가 되었다.

불국토의 건설

그 뒤 어느 날 데바닷타가 아자타사트루 왕을 만나려고 성을 찾아 갔다가 성문에 이르렀으나 들여보내 주지 않아 성문 앞에 어찌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는 때마침 웃팔라바르나가 성문을 나오는 것을 보고는 불같이 화가 나서 무서운 힘으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웃팔라바르나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참아가며 승방으로 돌아왔다. 이 때 여러 비구니들이 몰여와서 위로하자. “자매들이여! 사람 목숨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무아이다. 깨달음의 세계만이 고요하고 의지할 곳이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 써서 도를 이루도록 하여라.” 라고 가르치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4. 앙굴리말라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본래 끔찍한 살인마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으나 세존에게 구원을 받아 불제자가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 탁발하러 나갔다가 지난날 출가하기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생했다.

거리에서 탁발하던 중에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

를 넘어뜨리고 마구 때려 그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가까스로 승방으로 돌아와서 세존의 발에 절을 하며 지난날 지은 악행에 대한 업보를 받을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무해(無害)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고, 그 사람들의 피가 떨어지는 수많은 손가락을 모았기 때문에 지만이라는 이름을 얻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존의 자비로 지혜를 얻게 되어 삼보에 귀의 하였습니다. 우마를 부릴 때는 고삐나 채찍을 씁니다마는 세존은 고삐나 채찍도 갈고리도 쓰지 않고 제 마음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과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때가 이르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5. 마우드갈야야나는 샤리푸트라와 함께 세존의 2 대 제자

불국토의 건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세존의 가르침이 물과 같이 촉촉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배어들고 사람들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을 보자 이교도의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마우드갈 아야나의 설법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방해도 진실한 가르침이 널리 퍼져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결국 이교도들은 세존의 손발인 목련을 죽이려 했다.

한 번, 두 번, 다행이도 그 사람들의 습격을 피할 수 있었던 목련도 결국 세 번째에는 수 많은 이교도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의 폭력에 쓰러졌다.

목련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폭력을 평온하게 받아들여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이지러지는 가운데서도 깨달음의 마음에 조금도 방해 받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에 들었다.

앙곳따라 니카야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고 세간을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이며, 인간의 천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바로 여래, 응공,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이 분이야말로 그 한 사람인 바로 그 분이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는 여래, 응공,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이 분이야말로 그 한 사람인 바로 그 분이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의 희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는 여래, 응공,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이 분이야말로 그 한 사람인 바로 그 분이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시니 많은 이들이 비통해 하였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는 여래, 응공,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이 분이야말로 그 한 사람인 바로 그 분이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니 비할 데 없는 분이 탄생하신 것이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는 여래, 응공,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이 분이야말로 그 한 사람인 바로 그 분이다.

비구들이여!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셨으니 위대한 눈, 위대한 밝음, 위대한 빛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 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는 여래, 응공, 정등각이다. 비구들이여! 이 분이야말로 그 한 사람인 바로 그 분이다.

각 장절의 전거

각 장절의 전거

붓다

제 1 장

제 1 절

1 불전	2	3
3 팔리, 증지부 3~38	4	15
3 팔리, 중부 3~26, 성구경	5	6
4 불전	5	15
5 팔리, 중부 9~85, 보리왕자경	6	15
5 불전	7	4
5 팔리, 경집 3~2, 정근경	7	11
5 불전	7	15
6 팔리, 율장대품 제 1 품	8	9
7 장아함경 제 2, 유행경	9	9

제 2 절

1 장아함경 제 2, 유행경	10	13
2 반니원경	11	12
4 유교경	13	13
5 장아함경 제 2, 유행경 등	14	3

제 2 장

제 1 절

1 관무량수경, 유마경	16	3
--------------	----	---

각 장절의 전거

	頁	行
1 수능업경	16	6
1 유마경, 대반열반경	16	10
2 법화경 제 16, 수량품	17	4
2 심지관경	17	15
3 대반열반경	18	7

제 2 절

1 법화경 제 3, 비유품	20	6
2 법화경 제 4, 신해품	21	7
3 법화경 제 5, 약초유품	23	8

제 3 절

1 법화경 제 16, 수량품	24	12
-----------------------	----	----

제 3 장

제 1 절

1 화엄경 제 5, 여래광명각품	28	3
2 대반열반경	29	1
2 화엄경	29	5
3 금광명경 제 3, 삼신품	29	12

제 2 절

1 화엄경	32	5
1 화엄경 제 34, 입법계품	32	10
1 아미타경	32	13
2 화엄경	33	1
2 잡아함경 35 권 5	33	6
3 대반열반경	33	9

각 장절의 전거

제 3 절	頁	行
1 팔리, 중부 8~77, 선생우타이대경	35	8
2 대반열반경	36	6
2 능가경	36	15
3 화엄경 제 32, 여래성기품	37	6
4 법화경 제 25, 보문품	38	1
4 대반열반경	38	5
5 법화경 제 2, 방편품	38	14
5 법화경 제 3, 비유품	39	1

가르침

제 1 장

제 1 절

1 팔리, 율장대품 1~6, 팔리, 상응부 56~11~12, 전법륜경	42	3
2 팔리, 본사경 103	43	13
2 팔리, 중부 2, 일체루경	44	6
3 사십이장경	44	12
3 승만경	45	10

제 3 절

1 화엄경	47	6
-------------	----	---

제 2 장

제 1 절

1 팔리, 중부 4~35, 살차가소경	51	3
3 팔리, 증지부 5~49	53	10

각 장절의 전거

	頁	行
3 팔리, 증지부 4~185	54	5
3 팔리, 증지부 3~134	54	10
제 2 절		
1 능가경	54	15
1 화엄경 제 2, 노사나불품	55	1
1 화엄경 제 16, 야마천공품	55	8
2 화엄경 제 22, 십지품	55	16
2 능가경	56	9
2 팔리, 증지부 4~186	56	12
3 법구경 1,2,17,18	56	15
3 수능엄경	57	11
제 3 절		
1 화엄경 제 16, 야마천공품	58	2
1 능가경	58	7
2 팔리, 중부 3~22, 사유경	59	2
2 능가경	59	14
3 능가경	60	2
제 4 절		
1 팔리, 율장대품 제 1~6, 전법륜경	62	12
1 능가경	63	4
2 잡아함경 권 43	63	7
2 능가경등	63	15
2 팔리, 중부 2~18, 밀환경	64	8
3 능가경	64	12
4 능가경	65	10
5 유마경, 입불이품	66	7

각 장절의 전거

	頁	行
6 화엄경 제 34, 입법계품	68	3
7 능가경등	69	1
 제 3 장		
제 1 절		
1 팔리, 율장대품 1~5	70	3
1 팔리, 율장소품 5~21	70	14
2 수능엄경	71	3
제 2 절		
1 수능엄경	76	8
3 대반열반경	78	8
4 법화경 제 7, 화성유품 및 수능엄경	78	13
4 화엄경 제 32, 여래성기품	79	7
4 대반열반경	79	11
5 범망경	79	15
6 대반열반경	80	6
제 3 절		
1 대반열반경	81	3
 제 4 장		
제 1 절		
1 승만경	86	3
2 팔리, 증지부 2~11	87	4
2 팔리, 본사경 93	87	9
2 팔리, 율장대품	87	14
3 팔리, 증지부 3~68	88	4

각 장절의 전거

	頁	行
4 팔리, 증지부 3~34	88	14
5 방광대장엄경	89	9
5 팔리, 율장대품 1~6, 전법륜경	89	14
5 팔리, 중부 2~14, 고온소경	90	1
6 대반열반경	90	12
7 팔리, 본사경 24	91	12
제 2 절		
1 팔리, 중부 51, 칸다라카경	93	15
2 팔리, 증지부 3~130	94	10
2 팔리, 증지부 3~113	95	4
제 3 절		
1 팔리, 본사경 100	95	13
1 잡보장경	96	8
2 대반열반경	97	10
3 팔리, 증지부 3~62	99	5
4 팔리, 증지부 3~35	100	2
5 팔리, 장로니계주	101	6
제 4 절		
1 무량수경 하권	102	10
제 5 장		
제 1 절		
1 무량수경 상권	110	3
3 무량수경 하권	114	8
4 관무량수경	116	3

각 장절의 전거

제 2 절	頁	行
1 아미타경	120	2

정진

제 1 장

제 1 절

1 팔리, 중부 2, 일체루경	126	3
2 팔리, 중부 26, 성구경	127	10
3 팔리, 상응부 35~206	128	3
4 사십이장경	129	6
7 팔리, 중부 19, 쌍고경	131	14
8 팔리, 법구경주	132	14

제 2 절

1 팔리, 증지부 3~117	133	12
2 팔리, 중부 3~21, 거유경	134	4
5 팔리, 중부 3~23, 의총경	137	10
6 팔리, 본생경 4~497, 마탕가 차타카	139	1
8 사십이장경	142	14
9 사십이장경	143	4
10 사십이장경	144	1
11 팔리, 증지부 2~4	144	23

제 3 절

1 잡보장경	145	7
11 대반열반경	156	4
12 잡보장경	157	2

제 2 장

제 1 절	頁	行
1 팔리, 중부 7~63, 전유경	161	3
2 팔리, 중부 3~29, 대수심유경	163	8
3 불승도리천위모설법경	165	3
4 팔리, 장로계주	165	10
5 팔리, 중부 3~28, 대상적유경	167	10
5 대반열반경	168	6
6 백연경	168	16
7 대반열반경	170	9
8 대품반야바라밀경 88, 상제품	172	8
9 화엄경 34, 입법계품	173	14
제 2 절		
1 팔리, 증지부 3~88	175	17
1 팔리, 증지부 3~81	176	10
1 팔리, 증지부 3~82	177	2
2 반니원경 상권	177	14
3 팔리, 중부 14~131, 분별성제경	178	12
4 반니원경 상권	180	4
6 팔리, 증지부 5~16	181	1
7 화엄경 6, 명난품	181	8
7 대반열반경	182	4
7 잡보장경	182	15
8 금광명경 26, 사신품	183	10
9 대반열반경	184	7
10 팔리, 장로계주	185	9
11 팔리, 본생경 55	186	7

각 장절의 전거

	頁	行
12 팔리, 본사경 39,40	187	13
12 대반열반경	188	3
12 대반열반경	188	5
12 팔리, 증지부 5~12	188	9
13 반니원경	188	14
13 수능업경	189	6
제 3 절		
1 팔리, 상응부 55~21,22	190	10
2 팔리, 증지부 5~32	191	7
2 유마경	191	13
2 수능업경	192	2
3 무량수경 하권	192	9
4 팔리, 상응부 1~4~6	193	4
4 화엄경 33, 이세간품	193	6
5 화엄경 24, 십인품	194	4
5 금광명경 4, 금고품	194	12
5 관무량수경	195	5
5 무량수경	195	7
6 대반열반경	195	12
7 팔리, 중부 2~16, 심화야경	196	13
7 무량수경 권하	197	10
제 4 절		
1 법구경	198	6
7 팔리, 상응부 1~4~6	207	7
7 증일야함경	208	5
7 대반열반경	208	8

승가

제 1 장

제 1 절	頁	行
1 팔리, 본사경 100, 중부 1~3, 법사경	210	3
1 팔리, 본사경 92	210	6
2 팔리, 율장대품 1~30	210	13
3 팔리, 중부 4~39, 마읍대경	211	14
4 팔리, 중부 4~40, 마읍소경	213	3
5 법화경 제 19, 법사품	214	5
5 법화경 제 19, 법사품	214	9
6 법화경 제 14, 안락행품	214	16

제 2 절

1 팔리, 상응부 55~37	216	7
1 팔리, 증지부 3~75	216	15
1 팔리, 상응부 55~37	217	5
1 팔리, 상응부 55~54	217	8
2 화엄경 제 22, 십지품	217	13
3 대반열반경	219	4
5 화엄경 제 7, 정행품	222	4
6 불승도리천위모설법경	225	8
7 화엄경 제 21, 금강당보살십회향품	226	8
8 대반열반경	227	8

제 3 절

1 육방예경	228	11
3 팔리, 증지부 2~4	234	14
4 팔리, 증지부 3~31	235	13

각 장절의 전거

	頁	行
5 팔리, 본생경 417, 가전연본생	236	2
6 육방예경	238	6
6 법구비유경 4	239	2
8 버마불전	240	3
9 승만경	241	1

제 2 장

제 1 절

1 대반열반경	244	3
2 팔리, 증지부 3~118	246	2
3 팔리, 상응부	248	2
4 팔리, 율장대품, 10~1~2	248	13
4 장아함경 제 2, 유행경	249	4
5 팔리, 율장대품, 10~1~2	250	15

제 2 절

1 팔리, 상응부	254	3
1 증음경	255	1
2 유마경	255	6
3 대반열반경	256	12
3 아미타경	257	8
4 무량수경	258	1
4 유마경	258	12

제 3 절

1 팔리, 법구경주 1	259	4
1 증일아함경 34~2	259	10
2 증일아함경 34~2, 팔리, 법구경주	260	10

각 장절의 전거

	頁	行
3 증일아함경 5~1	261	9
3 유부율과승사 10.....	261	13
4 앙굴마경	262	12
5 증일아함경 26.....	263	16

불교통사

-인도로부터 일본에 이르기까지-

1. 인도

중인도에서 아시아의 빛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을 때, 혹은 바뀌 말해서 대지혜와 대자비의 샘물이 그곳에서 분출되었을 때, 그것은 인류의 정신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수세기에 걸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왔다.

고타마 싯달타가 고향을 떠나 출가하여 탁발수도승으로서 남쪽 마가다국으로 가서 보리수 밑에서 정각을 이룬것은 기원전 5 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정각을 얻은 그를 후세 학자들은 석가모니라부르며 추앙하게 된다. 그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45 년 동안 그는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걸머지고 설 새 없이 설법전도의 삶을 이어갔다. 그 결과 5 세기 말엽까지 위대한 불교도들이 중부인도 여러 나라와 부족들 사이에 계속하여 꾸준히 출현했다.

마우리아 왕조 제 3 대 왕인 아쇼카왕 재위(서기전 268-232년)에 이르러서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나아가 붓다의 가르침은 인도를 넘어서 멀리 국외에까지 전파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불교통사

마우리아 왕조는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였다. 제 1 대 찬드라굽타왕 재위(서기전 317-293 년) 때, 그 지배영역은 이미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동쪽으로는 벵갈만 서쪽으로는 힌두쿠시 산맥 그리고 남쪽으로는 빈디아 산맥 남쪽까지 펼쳐졌으며, 아쇼카왕은 다시 남쪽 칼링가와 그 밖의 지역을 정복하여 그 영역을 데칸고원까지 확장하였다.

아쇼카왕은 찬다쇼카(무서운 아육왕)라고 불릴 정도로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칼링가를 정복하면서 자행된 살육의 참상을 본 이후부터는 마음을 크게 돌려 역대의 왕 그 누구보다도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신봉자가 되었다. 그 후 이 왕은 불자가 되어 수많은 불사를 이루었는데, 이 중 다음 두 가지가 가장 눈길을 끈다.

첫째는 아쇼카왕의 석주인데, 이것은 불교정신에 입각한 자신의 정치철학을 석주나 매끄러운 절벽에 새겨서 영내의 각지에 세운 것이다. 둘째는 인도 전역에 붓다의 교법을 펼침과 동시에 인도를 넘어 전 세계에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절을 보낸 것이다. 특히 사절들 중에는 멀리 시리아, 이집트, 마케도니아, 에페이로스까지 파견된 자도 있었으며, 바로 그 때 불교가 서방세계에 전해졌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한 당시 탐라파르니 즉 스리랑카로 파견된 사절 마هند라는 아름다운 랑카드비파에 아름다운 가르침을 수립하는 데 성공하여 남방불교의 기점을 이 섬에 세웠다.

2. 대승불교의 흥기

후대의 불교신자들은 불교동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기원전의 불교는 분명하게 서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략 서력기원 초기가 되자 불교의 얼굴은 동쪽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에 관해 언급하기에 앞서 우리는 불교내부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대승이라 불리는 새로운 파도가 뚜렷한 존재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 새로운 파도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생겨났는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 첫째, 이 경향은 다만 진보주의 성향의 비구들, 다시말하면 대승 또는 대중부의 사상적 계보 속에 생겨났다는 추측과, 둘째는 기원전 1, 2 세기에서 기원 후 1 세기 경에 걸쳐서 대승경전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승경전들을 배경으로 하여 나가르주나(용수)의 훌륭한 사상적 활약이 전개되면서 대승불교는 선명하게 불교사의 무대 전면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장구한 불교의 역사 속에 대승불교가 완수한 역할은 매우 크다.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우, 거의 대승불교의 영향 아래 불교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낮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승불교는 대중의 구제라는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고 있고, 그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보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고안해 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보살들을 지탱하는 원리로서 대중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형이상학 또는 심리학적 영역에서의 지적 성과는 참으

불교통사

로 훌륭한 것 이었다. 이렇게 대승불교는 뚜렷하게 고타마 붓다의 교법의 계보를 따라가는 한편 지혜와 자비로 가득찬 가르침의 물길 속에 새로운 자양분을 풍부하게 쏟아 부었다. 이로써 불교는 차츰 에너지가 풍부해지고 더욱 열정에 넘쳐서 큰 강이 도도하게 돌진하는 물결처럼 동방의 나라들을 적시게 되었다.

3. 서역

서역은 중국이 불교를 처음으로 만나는 관문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빼놓고 인도에서 중국에 이르는 불교의 흐름을 설명할 수 없다. 서역의 실크로드가 중앙아시아의 황량한 지역을 뚫고 동서양을 잇는 무역로로 열린 것은 기원전 2세기 말경 한무제(기원전 140-87년)시대였다. 그 즈음 한의 영토는 멀리 서방까지 미쳐 있었고, 그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서방의 나라들 즉 대완, 강거, 대월씨, 안식과 같은 나라에는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이 불어넣은 상업정신이 여전히 활발하게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잇는 고대 무역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상품은 중국의 비단이었으므로 이 길은 실크로드라 불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기원전후경부터 불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인도와 중국간의 문화접촉도 이 무역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실크로드는 무역의 길이면서 또한 불교의 길이었던 것이다.

4. 중국

중국의 불교 역사는 경전의 도입과 그 번역사업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후한 명제의 영평년간(서기 58-76 년)에 가섭마등 등이 번역한 사십이장경이 그 최초의 경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 대신 148 년경에서 171 년경에 걸쳐 낙양에서 번역업에 종사하였던 안세고의 불사는 확실한 자료적 뒷마침을 가지고 있다. 그로부터 북송(960-1129 년)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불경번역사업은 거의 천년에 걸쳐 계속되었다.

초기에 경전을 가져와 번역의 중심역할을 한 사람은 대부분 서역에서 온 승려들이었다. 예를 들면 안세고는 안식국 즉 파르티아에서 온 사람이며, 3 세기경 낙양에 와서 무량수경을 번역한 강승개는 강거 즉 사마르칸은 월씨 출신으로 3 세기 후반부터 4 세기 초기까지 낙양 또는 장안에 있었다. 그리고 5 세기 초기에 구자에서 온 구마라즙에 이르러 중국의 역경은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 무렵 인도로 건너가 범어를 배우고 법을 구하는 입축 구법승들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 선구자로 법현(339-420 년)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융안 3 년(399)에 장안을 출발하여 15 년 뒤에 귀국하였다. 이런 입축 구법승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단연 현장(602-664)이다. 현장은 정관원년(627)에 출발하여 정관 19 년(645)에 귀국하였다. 실로 19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또 의정(635-713)은 함형 2 년(671)에 해로를 따라 인도로 건너가서 25 년 후에 해로를 통하여 귀국하였다.

그들은 제 힘으로 인도로 가서 범어를 배우고 역시 혼자 힘으로 경전을 선택하여 가져왔으며, 귀국 후에는 거의 역경의 중심적 역할을

불교통사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현장의 어학능력은 매우 뛰어나 그의 정력적인 번역불사에 의하여 중국의 경전번역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정점을 맞이 하였다. 학자들이 구마라집으로 대표되는 예전의 번역을 구역이라 부르고, 현장 이후의 새로운 번역을 신역이라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렇게 역출된 방대한 양의 불교경전을 바탕으로 중국의 불교는 차츰 사상적, 종교적으로 강하게 중국화되어 간다. 중국 민족의 자질이나 요구, 그리고 강한 자신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시절부터 반야부경전에서 말하는 공의 형이상학에 그들이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이 하나의 실례가 될 수 있다. 후에 그들이 이른바 소승을 버리고 오로지 대승에 마음을 기울이게 된 것도 또 하나의 예가 된다. 이와 같은 중국화 경향은 천태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선종의 출현에 이르러서는 극치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천태종은 6세기 후반 천태대사 지의(538-597, 천태종 제3조)에 의해서 대성되었다. 그는 중국이 낳은 불교사상가 중의 대표적인 명석한 두뇌였고, 그가 뛰어난 감식안으로 석가가 50여년간 행한 설법을 오시팔교로 분류해서 엮은 교판은 그 후 오래도록 동북아시아의 불교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중국에서는 경전들이 그 성립 순서와 관계없이 들어왔고, 들어오는 대로 번역되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방대한 양의 번역 경전들이 쌓여갔다. 바야흐로 그 경전들의 성립과 가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불교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설명해야 했고, 나아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생겼다. 경전을 평가

하는 데는 우선 중국 사상의 경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 중에서도 지의의 사상이 가장 정연하고 훌륭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의 불교연구가 출현하면서 그것의 지배적인 영향은 마침내 종말을 고하였다.

중국불교사에서 대미를 장식한 것은 선종이다. 그 초조는 남인도의 사문인 보리달마(-528)이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제 6 조 혜능(638-713) 이후 중국불교의 정수로서 만개하였고, 8 세기 이후 쉬지 않고 인재를 배출하는 등 수세기에 걸쳐 선은 크게 번성하였다.

중국불교에는 중국인의 존성에 깊이 뿌리내린 새로운 사고 방식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불교가 중국사상으로 윤색된 것임을 뜻한다. 인도에서 발원한 붓다 고타마의 가르침의 흐름은 이처럼 신선한 물결을 보태어 더욱 큰 강이 되어 동양인의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5. 일본

일본불교의 역사는 6 세기에 시작한다. 538 년 흠명왕의 조정에 백제의 성왕이 사신을 통해 불상과 경전을 보내온 것이 일본에 불교가 전래된 시초이다. 그로부터 일본은 1400 년이 넘는 불교역사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일본불교는 세가지에 초점을 두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7, 8 세기의 불교이다. 이 시기는 법륜사의 건립(607)에서부터 동대사의 건립(752)에 이르는 시대이다. 당시 아시아는 전체

불교통사

가 예사롭지 않은 고도의 문화적 흐름을 타고 있었다. 서방문명이 깊은 암흑 속에 묻혀있던 바로 이때 동방의 문명은 괄목할 만큼 활발하고 웅대한 움직임의 열풍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과 서역 그리고 인도와 남태평양의 국가들에서도 지적이고 종교적이며 예술적인 활동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불교는 그와 같은 움직임과 서로 맞닿아서 광대한 휴머니즘의 물결을 이루어 동방세계를 휩쓸고 있었다. 그리고 법륜사와 동대사의 건립과, 이것을 둘러싼 다채로운 종교적, 예술적 활동 등과 같은 이 무렵에 일어난 새로운 일본문화의 움직임은 모두 저 광막한 아시아 전역에 걸친 문화의 물결을 동쪽 끝에서 흡수하는 포용력을 보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미개한 사회에서 살아온 일본인은 바야흐로 거대한 문화의 물결에 몸을 담겼다. 문명의 꽃은 아주 갑자기 피었다. 이것은 당시에 일본인이 맞은 큰 행운이었고, 이 행운을 베푼 것은 다름아닌 불교였다. 따라서 그 시대의 사원은 국제적인 문화의 중심지였고, 승려는 새로운 지식의 지도자였으며, 경전은 훌륭한 사상의 수레였다. 이 속에는 하나의 종교라기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화 그 자체가 들어있었다. 일본에 처음 전래되던 시절의 불교의 모습은 이와 같았다.

9 세기에 들어오면서 최징(最澄 767-822), 공해(空海 774-835)라고 하는 위대한 두 불교인이 등장한다. 이들은 이른바 일본불교의 시초라 할 수 있는 헤이안불교라고 불리는 두개의 계파를 창설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칭 귀족들의 소일거리로 흐를 뻔한 불교를 수행을 중요시하는 본래의 입장으로 이끌었고, 도시 중심이었던 종래의 불교를 산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수행의 근본도량을 확립하였다. 그 후 가마쿠라 시대까지 300 년동안 이 두 사람의 계파인 천태종과 진언종이 주로

조정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하여 변영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12, 13 세기의 불교를 들 수 있다. 이 시절에는 법연(法然 1133-1212), 친란(親鸞 1173-1262), 도원(道元 1200-1253), 일련(日蓮 1222-1282) 등 일본이 낳은 훌륭한 승려들이 있었다. 오늘날에 일본불교를 말할 때 이들을 빼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쩌서 이 시기에만 이와 같이 훌륭한 승려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커다란 공통의 과제 하나가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공통의 과제란 바로 불교의 일본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는 “불교는 훨씬 이전에 이미 있지 않았던가”라며 물을지도 모른다. 역사적 사실은 그렇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변용하여 완전히 자기 것으로 수용하기까지는 수 백년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결국 7-8 세기에 시작된 불교수용의 노력이 이제야 겨우 봄을 맞이하여 백화가 만발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2-13 세기에 등장한 승려들의 공적이었다.

그 후 일본불교는 그 탁월한 승려들이 닦은 기반 위에서 옛 영광을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즉 그 때 일군의 훌륭한 불교인을 배출한 이후 일본불교의 역사에서는 더 이상 눈부신 태양이 비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일본불교의 역사에도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대의 불교학이 이론 원시불교에 대한 연구 성과이다.

일본의 불교는 처음 전해질 때부터 오늘날까지 중국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거의 다 대승불교였다. 특히 12-13 세기의 훌륭한 불교인들이

불교통사

배출된 이후는 종조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승의 가르침이 그 주류를 이룬 채 오늘에 이른다. 그와 같은 일본 불교의 역사 속에서 원시불교의 연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대략 메이지(明治) 중엽에 속한다. 그로써 종조 이외에 교조(敎祖)가 있음을 잊고 있던 사람들 앞에 고타마 붓다의 모습이 선명하게 재현되고, 따라서 대승의 가르침밖에 몰랐던 사람들 앞에 정연한 불타의 교법이 본래 모습을 환히 드러내게 되었다. 비록 이것이 학문의 영역에 머물러 새로운 종교적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본이 갖는 불교지식은 크게 변화해가고 있다. 이것이 세번째 초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

우리나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이다. 372년에 진나라 왕 부견이 고구려에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전을 전해주었다. 그 이후 약 2년 뒤에는 승려 아도가 건너왔다. 고구려왕은 이 두 승려들을 위해서 '성문사'와 '이불란사'라는 절을 세웠다. 이 절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불교사원이다. 6세기 말 무렵 헤자는 일본에 건너가 성덕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담징은 나라에 있는 법륜사의 벽화를 그리는 등, 고구려의 승려들은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백제에는 384년에 인도출신의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하기 위해 동진에서 건너왔다. 그 다음해에 비로소 한산에 불교사원이 건립되었다. 동명성왕의 재위시기(523-554)에는 백제의 승려 겸익이 인도로 부터 인도의 승려와 함께 율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전을 가져와 백제불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동명성왕은 처음으로 일본의 천황에게 불상과 경전을 전해주었다.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도 불교를 늦게 받아들였다. 신라는 눌지왕의 재위시기(417-457)에 고구려의 승려 목호자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신라에서 불교가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라에서 불교가 국가종교로서 공인된 것은 이차돈이 527년에 순교한 이후의 일이다. 또한 진흥왕(재위 540-576)은 미륵신앙에 입각하여 귀족출신들로 구성된 청소년들의 수련단체인 화랑도를 창설하는 등 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라는 삼국시대에는 가장 약했고, 고립된 나라였으나, 호국불교의 영향으로 676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자장

한국불교

(7세기), 원측(613-696), 원효(617-686), 의상(625-702) 등과 같은 지혜와 덕을 겸비한 다수의 학승들이 배출되었다. 원측과 의상은 당에 건너가 유학하게 되는데, 원측은 현장에게 사사하여 유식법상학을 배우고, 당에 머물러 서명사 계통이라는 법상종의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다. 의상은 화엄교학의 대성자인 법장과 함께 지엄에 사사하여, 유학을 마친 뒤 신라에 돌아와 화엄교학을 확립하였다. 이들의 활약은 신라불교가 중국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전개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원효는 교학상의 여러 다른 입장들을 조화시키는 ‘화쟁사상’을 설하였고, 이것이 후대의 한국불교의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대중들 사이에 이런 가르침이 널리 전해진 데에는 혜숙, 혜공, 태현, 원효와 같은 승려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특히 원효가 퍼뜨린 염불을 중심으로 한 정토교의 실천사상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한편 신라의 후대에는 선불교가 유력한 가르침으로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고려시대(935-1392)에도 불교는 국가종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였다. 태조왕(재위 918-943)은 고려의 건국이 부처의 가호에 의한 것으로 믿고, 불교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많은 사탑을 건립하였다. 이 시대에는 선불교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최절정기를 이루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성격을 이루고 있다. 1190년에 지눌(1158-1210)은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넓게 한국이나 중국에서 반복되었던 주장이다. 또한 이 시대에 『고려대장경』이 조판되었고, 이것은 세계 최고의 대장경 가운데 하나이다.

1392년에 고려왕조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운 조선(1392-1910)은 유교를 숭앙하였고, 불교는 점차로 쇠퇴하게 된다. 제3대 태종왕(재위 1410-1418)은 사원을 철폐하고, 사찰에 속한 토지

등을 국유화하였으며, 도첩제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등 배불정책을 폈다. 이러한 박해는 조선왕조의 500년간 계속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을이나 도심에서 불교는 사라지고, 불교의 사원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영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1910년에는 일본의 침탈이 시작되고, 불교교단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이 선포한 사찰령에 의해 사원제도는 재조직되고, 주지의 임명도 허가를 필요로 하는 등 대혼란이 야기된다. 특히 승려에게 결혼이 강제적으로 장려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불교는 세속화되는 등 출가중심의 전통이 흔들리게 된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일제의 잔재인 승려의 대처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되어, 한국불교는 크게 출가중심의 조계종과 대처승들을 중심으로 한 태고종으로 분립하게 된다. 그 이후 출가중심의 조계종이 한국불교에서 최대의 종파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현재는 태고종이나 재가 중심의 진각종 등 다양한 종파가 새롭게 형성되어 있다.

불교성전 유전사(流傳史)

불교는 석가모니가 45 년동안 베푼 설법을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이다. 그러므로 석가모니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비록 팔만사천가지 법문과 수많은 종지종파가 있다해도 어느 것이든 석가모니의 설법을 떠나서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그리고 이런 설법을 기록한 것이 대장경이라 불리는 경전이다.

석가모니는 강력하게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누구든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말로 아주 쉽게 가르침을 설한 것이다. 그리고 80 세로 열반에 들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가르침을 설하였다.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각자가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구전되어 오는 도중에 잘못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항상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으면 안되며, 누구나 평등하게 그 가르침을 접할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본래 모습 그대로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장로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것을 결집이라고 한다. 결집에는 수많은 장로 비구들이 모여 각자가 듣고 전해온 말씀이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혹시 한 곳이라도 잘못 전해질까 우려하여 몇 달을 두고 토의하였다. 그 만큼 경건하고 신중하게 석가모니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썼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된 가르침은 마침내 문자로 기록되었고, 세월이 지나면

서 문자로 쓰인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고승들이 주석을 붙이거나 해석을 내리게 되었다. 이것을 논장이라 한다.

붓다의 가르침 즉 경장과 훗날 고승들이 쓴 주석이나 해설서인 논장, 그리고 교단의 규범 즉 율장, 이 세가지를 삼장이라 한다. 이 장이란 무언가를 담는 그릇을 말하는 데, 붓다의 가르침을 담아두었다는 뜻이다. 이 삼장은 거의 모든 부파가 제 각각의 전통에 따르는 것을 담지하고 있지만, 현재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남방상좌부의 빠리어에 의한 것 뿐이다. 이 빠리어 삼장은 남방에 전해진 불교 여러 나라의 공통된 성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해진 때는 후한 명제의 영평 10년(67)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전이 입수되어 번역된 것은 그 보다도 84년 뒤인 후한 환제의 원가원년(151)이었다. 그 당시에 이미 인도에서는 대승불교가 성립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는 초기의 불전과 대승의 불전이 구별없이 전해져서, 그로부터 약 1700년 이상에 걸쳐서 불교경전들은 중국어로 번역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렇게 번역된 경전은 1440책 5586권에 달한다. 이러한 번역경전들을 한 곳에 모아 보존하려는 노력이 일찍이 위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북송무렵이 되어야 경전을 인쇄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중국 고승의 저술도 삼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더 이상 삼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되어, 수나라로 들어오면서 일체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당나라 때에는 대장경이라 불리게 되었다.

불교성전 유전사(流傳史)

한편 티벳에서도 7세기경 불교가 전래된 이래 9세기부터 11세기에 걸쳐서 약 150년 동안 꾸준히 경전을 번역하여 마침내 불전의 거의 대부분이 번역되었다.

이 밖에 한국, 일본, 스리랑카, 캄보디아, 터키를 비롯한 기타 동양의 모든 언어는 물론이요, 라틴어와 불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각국의 말로 번역되었다. 실로 석가모니의 은혜가 온 세계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되었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번역본의 질과 불교 발달의 역사와 원전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양적으로는 1만권이 넘는 번역본이 나왔지만, 비록 대장경을 참고하더라도 이 전부가 석가모니의 참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대장경에서 중요한 것을 발췌하여 자기 믿음의 규범으로 삼고 의지처로 삼을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의지처이다. 그러므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우리의 현실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진 것이요, 아주 친밀한 것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감동시키지 못한 채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적어도 언제나 몸에 지녀야 할 성전은 양적으로는 간결해야 하고, 질적으로는 치우치지 말고 전체를 대표하고 정확해야 하며, 용어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상용어를 채택하여 친근감을 주어야 한다.

이 불교성전은 이와 같은 경건하면서도 신중한 배려에서 만들어졌다. 이 성전은 석가모니가 설한 가르침의 바다 속에서 이천 수백년 동안

불교성전 유전사(流傳史)

전해져 온 대장경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이 불교성전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석가모니의 말씀은 무한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그 덕행은 가없으니 아무나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을 함께 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불자의 따끔한 꾸짖음을 청하며, 판을 거듭할 수록 더욱 좋고 진실하고 존귀한 것으로 완성해나가고 싶을 따름이다.

합장

불교성전의 역사

이 불교성전은 1925년 7월에 木津無庵씨를 대표로 하는 신역불교성전보급회에서 출판된 신역불교성전을 바탕으로 하여 개정 편집한 것이다. 이 초판본이 편찬되기까지는 山邊習學박사와 赤沼智善박사를 중심으로 널리 불교학계 여러 선지식들의 감수와 편집의 노고가 모여져 약 5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에 불교전도협회는 木津無庵씨를 비롯하여 원 신역불교성전을 편집하신 선생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보은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소화시대에 들어와서 동 보급회에서는 국민판 불교성전을 출판하여 전국에 보급하였다.

1934년 7월에 범태평양불교청년대회가 일본에서 개최되었을 때에 그 기념사업의 하나로써 앞서 언급한 국민판불교성전의 영어판 불교성전인 *The Teaching of Buddha*가 D. 고다드씨의 도움을 받아 전일본불교청년연맹에서 간행되었다. 1962년 불교동점 70주년을 기념하여 주식회사 미즈토요 창업자이신 沼田惠範씨가 동 역역불교성전을 간행하였다.

1965년 동씨가 재산을 회사하여 동경에 재단법인 불교전도협회를 설립하자 이 협회의 사업으로서 이 성전을 전세계에 보급하는 일이 기획되었다.

이 기획에 따라서 1966년에 새롭게 불교성전을 편집하기 위한 결집이 거행되었다. 紀野一義, 金岡秀友, 石上善應, 佐伯眞光, 松壽弘道, 坂

불교성전의 역사

東性純, 高瀬武三 일곱 분이 주요 구성원이었고, 増谷文雄, N.A. 워델, 清水俊輔 등 세 분의 협력을 얻어 현대에 부합되는 일영대역불교성전이 간행되었다.

1972년 이 성전을 바탕으로 하여 金岡秀友, 石上善應, 花山勝友, 田村完誓, 高瀬武三의 스탭진들이 편집작업을 진행시켜 영문불교성전을 간행하였다.

이어서 鹽入亮達, 高瀬武三, 立川博, 田村完誓, 坂東性純, 花山勝友(편집책임자)의 스탭들이 결집하여 1973년에 일문불교성전을 간행하였다.

나아가 이듬해인 1974년, 영문불교성전 재편집을 위하여 R. 스타이너씨의 협력하에 松濤弘道, 坂東性純, 佐伯眞光, 徳永道雄, 田村完誓, 花山勝友(편집책임자)씨들의 결집이 이루어져, 앞서 간행된 일문불교성전과 합해서 일영대조불교성전이 간행되었다.

본 한국어 불교성전은 대한전통불교연구원 원장 김지건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한국어 번역과 편집을 담당하여 간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용곡대학 김재권(박사과정수료)이 불교성전의 새로운 개정방침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진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틀린 부분을 수정하였다. 또한 한문체의 알기 어려운 문장은 한영대역불교성전(조일제역)과 김지건 박사의 번역을 대조하여 원문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옮기도록 노력하였다.

1978년에는 鎌田茂雄, 奈良康明 두 분을 편집부 위원으로 맞이했

불교성전의 역사

다. 한편 2001년에는 石上善応、奈良康明、松濤広道、坂東性純、ケネス田中、渡辺章悟、米澤嘉康、前田専学(편집위원대행)을 구성원으로 하여 새롭게 불교성전편집위원회가 조직되었고, 현대에 적합한 성전으로 하기 위해서 결집이 매년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생활색인

인생	頁	行
인생의 의의.....	5	12
현실의 세계.....	103	15
이상적인 삶.....	254	3
잘못된 인생관.....	49	6
바른 인생관.....	45	10
치우친 인생관.....	62	12
미혹된 사람에게(비유 이야기).....	137	8
사람의 생활(비유 이야기).....	96	8
애욕에 빠져 지내면(비유 이야기).....	95	13
노인과 병자의 죽은 자가 가르쳐 주는 것 (이야기).....	100	2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야기).....	101	6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다섯 가지.....	53	10
세상의 네 가지 진리.....	54	5
미혹과 깨달음은 마음에서 나타난다.....	54	15
범부가 이룰 수 없는 일이나 이루면 존귀한 스무 가지.....	144	1

믿음

믿음은 부처님이다.....	193	4
믿음은 세 가지 마음을 함께 한다.....	194	12
믿음은 불가사의한 것.....	196	4

생활색인

	頁	行
믿음은 진실의 표현	195	5
진실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비유 이야기)	80	6
불성은 올바른 스승에 의하여 그 있는 곳이 알려진다 (비유 이야기)	82	13
불성은 번뇌에 싸여 있다(비유 이야기)	78	13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의심	196	13
부처님은 아버지, 중생은 그 자식이다	38	14
부처님의 지혜는 바다처럼 넓고 깊다	37	9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비다	16	1
부처님의 자비는 영원한 것이다	17	4
부처님은 욕신이 아니다	14	3
부처님은 몸으로써 가르침을 설하였다	25	14
부처님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죽음을 보였다	25	14
부처님은 방편으로 사람들을 번뇌에서 구제하신다 (비유 이야기)	20	10
깨달음의 세계	257	5
불·법·승에 귀의한다	191	13
계·정·혜 세 가지를 배우라	175	7
여덟 가지 바른 도	178	12
깨달음을 얻는 여섯 가지 길	181	8
네 가지 바른 노력	180	12
네 가지 바른 견해	180	4
깨달음을 얻는 다섯 가지 힘	181	1
네 가지 큰 마음	184	7
인생을 깨달은 사람	43	13
인간의 죽음과 무상	13	6

	頁	行
염불자는 정도에 태어난다	122	10
스스로 등불이 되고 언덕이 되어라	11	1

수양

무엇이 자신의 첫 번째 문제인가(비유 이야기).....	161	9
첫걸음을 신중하게	143	13
초심을 잃지 말라(비유 이야기)	163	8
그 길에서 성공하려는 자는 많은 고난을 견디라(이야기)	170	9
몇 번 넘어져도 분기하라(이야기)	186	7
경우에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이야기)	134	4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등불을 들고 어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37	6
인생 어느 곳이나 가르침이 있다(이야기).....	173	14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는대로 움직이기 쉽다	131	14
가르침의 요체는 마음을 닦는 데에 있다.....	11	15
먼저 마음을 닦아라	228	11
마음을 기르면.....	132	2
마음의 모습(비유 이야기).....	128	3
마음은 자아가 아니다	51	12
마음에 얽매이지 말라	11	5
자기 마음을 이겨라	165	10
마음의 주인이 되라	12	1
모든 악은 몸과 입과 뜻에서	92	3
말과 마음.....	135	14

생활색인

	頁	行
이 몸은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야기).....	154	11
이 몸은 더러움에 넘쳐 있다	139	10
탐내지 말라.....	11	5
몸·입·뜻의 세 가지를 맑게 가져라	133	12
치우치지 말고 노력하라(이야기).....	185	9

번뇌

번뇌는 집념에서 일어난다	47	6
번뇌를 막는 방법	13	13
미혹은 깨달음의 입구	64	12
미혹에서 벗어나는 길	126	1
번뇌의 불길을 끄면 청량한 깨달음이 얻어진다.....	153	4
애욕이야말로 미혹의 근본	90	12
애욕을 독사로 생각하라	90	15
불 타오르는 집에 집착하지 말라 (비유 이야기).....	21	3
욕망은 과오의 근본	126	3
이 세상은 불길 속에 있다	87	14
사람은 명리에 스스로를 불태운다.....	129	6
재색을 탐함으로써 사람은 제 몸을 망친다.....	129	10
현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	144	23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악을 알지 못한다(비유 이야기).....	152	8
어리석은 자는 결과만을 보고 남을 부러워한다 (비유 이야기)	152	11
어리석은 자에게 있을 수 있는 일(비유 이야기).....	158	8

일상생활

	頁	行
베푼 뒤에는 베풀었다는 생각을 잊어라	182	8
무재의 칠시	182	15
부를 얻는 방법(이야기)	157	2
행복을 낳는 방법	143	4
은혜를 잊지 말라(이야기)	150	1
사람의 성격	94	10
양값음을 하려는 자에게는 재난이 따르기 마련이다	142	14
원한을 가라 앉히는 방법(이야기)	251	7
남의 비방에 흔들리지 말라(이야기)	132	14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지 말라	126	14
즐기기 위하여 입거나 먹지 말라	126	14
식사의 마음가짐	224	9
추위에 더위에 대한 마음가짐	223	8
일상생활의 마음가짐	222	10

경제

물건의 사용법(이야기)	239	2
재물은 영원히 자기 것은 아니다	238	6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말라	241	11
부를 얻는 방법(이야기)	157	2

생활색인

가정	頁	行
가정은 마음끼리 접촉하는 곳.....	235	12
가정을 파괴하는 행동	229	12
부모의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	234	14
부모와 자식의 도	230	9
부부의 도.....	231	10
부부는 신앙을 같이하라(이야기).....	240	13

출가의 길

승복을 걸치고 경을 윈다고 다 승려는 아니다	213	7
승려는 사찰과 그 재물의 상속자는 아니다.....	210	3
욕심 많은 자는 참된 승려가 아니다.....	210	6
승려가 가져야 할 진실한 생활이란	212	4

사회

사회의 의의.....	245	15
사회의 현실상.....	103	15
사회 집단의 유형	246	2
참된 공동사회.....	246	9
어둠의 들판에 비치는 빛.....	244	6
화합하는 인간관계.....	247	6
사회단체의 화합.....	248	13
승단의 이상.....	247	12

	頁	行
불교도의 사회적 이상	256	12
질서를 어지럽히면 함께 멸한다(비유 이야기)	151	6
시기하여 다투는 자는 함께 멸한다(비유 이야기)	151	6
노인을 존경하라(이야기)	145	7
스승과 제자의 길	231	1
벗의 길	231	17
벗을 가리는 법	233	14
고용주와 고용인의 마음가짐	232	9
죄인에 대하여	242	2
교사의 마음가짐	214	16

불교 용어 풀이

경(經)

구체적인 말뜻은 원래 날줄이며, 학문적으로는 방대한 내용을 종적으로 관통하는 개요를 뜻하는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으로 삼장중의 하나이다.

공(空)

존재하는 것에는 실체도 없고 ‘영원불멸한 나’ 라는 존재도 없다는 사상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기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속에 실체로서 불변한 자아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실체가 있다고 집착해서는 안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집착해서도 안된다. 사람이나 그 밖의 모든 존재는 상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하나의 존재와 주의, 주장에 집착하거나 절대시 해서는 안된다. 반야계통 경전의 근본사상이다.

교단(승가)

같은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교리를 설하는 성직자 부류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신자로 구성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승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승가는 초기불교 시절에는 출가자 교단을 가리켰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보살이라는 인간상을 지향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자들까지도 승가에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대승불교

불교유전사에 두 큰 흐름이 생겼는데, 그것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이다. 대승불교는 티벳, 중국, 한국, 일본에 퍼지고, 소승불교는 버마, 스리랑카, 태국 등지에 퍼졌다. 대승불교는 이 세상에서 생과사의 고힬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모두 평등하게 받아들여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교리이다.

무명

바른 지혜가 없는 상태. 미혹의 근본인 무지, 어리석음을 말한다. 불교의 학파마다 이 단어에 대한 해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가장 근원적이며 번뇌를 번뇌이게 하는 원동력과 같은 것이라는 설명은 일치한다. 존재가 생겨나게 된 단계를 밝힌 12 연기설의 제일 처음에 무명이 들어있다. 생존 욕망의 맹목적인 의지로 이해해도 좋다.

무상

덧없음. 모든 존재가 변화하고 생멸하며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무상에 대한 이해는 불교를 다른 종교와 뚜렷하게 구분 짓는다. 모든 것은 생하고 지속하고 변해가다 마침내는 멀하게 되며, 이런 단계를 관찰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진실하게 느끼고 종교적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덧없다고 하여 단순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의 어두운 면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 생성과 발전도 모두 덧없음의 한 면이기 때문이다.

무아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이 세계의 모든 존재나 현상에는 영원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인도의 종교는 모든 존재에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아트만을 설해왔는데, 이에 비해 제행무상을 주장하는 불교가 영원한 존재일 수 없는 이 세상의 존재나 현상에 실체가 없다고 설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아트만)는 다른 종교의 영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바라밀

파라미타라는 범어의 음사. 도 또는 도피안이라 번역한다. 미혹으로 가득찬 이편 언덕인 현실세계로부터 깨달음의 저편 언덕인 부처

님의 세계로 건너게 하는 실천행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여섯 가지 구체적인 실천항목이 들어있어서 이것을 육바라밀이라고 한다.

번뇌

깨달음의 실현을 방해하는 인간의 모든 정신작용을 말한다.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많은 욕망은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며 번민하게 한다. 그 근원은 아욕, 아집이며, 생명을 있게 하는 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번뇌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며, 이로부터 수많은 번뇌가 파생하고 있다. 이것들은 깨달음을 실현하는 데에 방해가 되므로 수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멀해버려야 한다. 그러나 중생을 살아있게 하는 힘과 직결되는 이상 번뇌는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도약이 될 수 있다고 긍정하는 사상도 있다.

범어(Sanskrit)

고대 인도의 고전적인 문어체 언어로 인구어족에 속하며, 베다어와 고전적 범어로 나누어진다. 대승불교의 경전은 불교적 범어라고 알려진 이 말로 기록해 왔다.

법

깨달아진 것이나 붓다가 설한 진실한 가르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경, 율, 론의 삼장을 말한다. 이것은 깨달은 자인 붓다와 불제자의 모임인 승가와 함께 불교의 기본적인 바탕인 삼보를 구성하고 있다.

보살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래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열기 이전에 수행하던 시절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일어난 뒤에는 이 말이 확대 해석되어 대승불교도를 가리키

게 되었다. 즉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지향하면서 아래로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상을 보살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 부처님의 자비나 지혜의 활동 가운데 한 부분을 지니고 있으면서 부처님을 보좌하여 사람들의 고뇌에 응하여 나타나는 관세음이나 지장이나 문수와 같은 위신력이 있는 구세주도 보살이라 불린다.

부처

깨달은 자라는 범어를 음사한 것이다. 붓다 혹은 줄여서 불이라고도 한다. 한역으로는 ‘각자’ 혹은 ‘정각자’ 라고도 한다. 본래는 35세 때 깨달음을 얻은 인도의 불교 창시자인 석가모니불을 가리켰다. 불교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다 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 수단이나 기간 등의 차이에 따라서 종파가 나뉘어져 있다.

대승불교의 경우 역사적으로 실재한 부처인 석가모니불의 배후에 여러가지 영원한 부처의 존재를 설하고 있다. 이를 테면 아미타불, 대일여래, 비로자나불, 약사여래, 구원실성의 석가모니불과 같은 부처가 각 종파의 숭배대상이나 교주로서 설해지고 있다.

불성

부처가 될 씨앗을 말한다. 모든 존재에는 불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 불교의 특징이 있다.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 가능성 또는 불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체중생실유불성’이라는 구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모든 존재에 차별없이 이런 불성을 인정한 데에 불교의 평등성을 엿볼 수 있다. 내재하는 불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부처라 부른다.

삼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세 가지 그릇이란 뜻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를 그대로 실은 경장과 승단의 계율을 실은 율장, 그리고

고승들의 주석과 논문들을 실은 논장을 말한다.

소승불교

전통적 남방불교를 일컫는 이름이다. 테라는 연장자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뒤에 전통불교를 반대하고 북방불교인 대승불교를 창시한 진보적 승려들과 맞서 계율을 철저히 고수해 온 보수적 장로 집단이다. 불교체제에 이처럼 대립적 경향이 일어난 것은 불타가 서거한 지 불과 수세기 뒤인 초기의 일이라고 한다. 그 무렵의 진보적인 스님 마하데바가 불교계율의 다섯 가지 범주 안에서 불교교리를 자유롭게 해석하기를 주장했는데, 이것이 소승불교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 뒤에 대승불교의 근원이 되었다.

승단

비구승, 비구니와 불제자로 구성된 집단으로 불교의 삼보 가운데 하나이다. 원래는 출가한 비구, 비구니의 집단이었으나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보살상을 그리워하는 자는 모두 수용했다.

업

본래의 뜻은 행위인데 인과관계와 결합하여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로서의 잠재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행위는 반드시 선악, 고락을 과보를 가져오며 그런 행위의 영향력을 업으로 보기도 하는 데, 예를 들어 숙업이란 말은 전생에 지은 행위의 과보로서 받게 된 윤회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착한 행위를 되풀이하여 쌓아 가면 그 영향력은 미래에까지 미쳐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업에는 몸과 입과 뜻의 세 가지 행위가 있다.

연기

인연생기의 준말로 모든 존재가 서로 관계하여 생겨나는 이치를 말한다.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이다. 모든 존재가 생멸을 시작하게 된 이치를 설명하는 교리이면서 동시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연기사상은 교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조직을 지니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찰이나 불상의 유래나 전설을 가리킬 때도 쓰인다.

열반

범어의 ‘불어서 끈다’ 라는 뜻의 ‘니르바나’ 를 음사한 말로 멸, 멸도, 적멸 등으로 옮겨진다. 촛불을 불어서 끄는 것처럼 욕망의 불을 불어서 끈 자가 도달하는 경지. 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열반에 든다라고 하고 도달한 자를 붓다라고 한다. 석가모니가 입적한 순간을 입열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체가 멸했을 때에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다는 견해에서 나온 말이다. 석가모니가 35 세에 그런 상태에 도달해 부처가 됐지만, 사람의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얼마쯤의 부정함 잔재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지금은 80 세로 서 거해서 완전히 평온에 들어간 순간에 비로소 열반했다고 믿는다.

유식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긴 것으로, 실체로 있는 것은 오직 이 마음 뿐이라는 대승불교의 학설. 즉 눈, 귀, 코, 혀, 몸, 의지라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각기 그 대상을 식별하는 여섯 가지 식 외에 제 7 말나식과 제 8 아뢰야식이라는 두가지 식을 세워 이들 여덟 개의 식의 작용이 이 세상에 존재와 현상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윤회

과거세에서 현재세로 그리고 또다시 미래세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어가는 것이 마치 수레바퀴 도는 것과 같음을 비유한 말. 인간이 이 미혹한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탈출하지 않는 한,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나 거기에 아수라, 인간, 천상을 보던 욕도의 세계로 영원히 나고 죽는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이 윤회

회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온 자를 붓다라고 부른다.

인연

인과 연, 즉 인은 결과를 생기게 하는 직접적 원인이요, 연은 그것을 돕는 외적인 조건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생멸하는 것이며, 이것을 인연소생이라고도 한다. 이 이치를 고스란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에 들어가는 중요한 조건이다.

자비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항목이다. 자는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것, 비는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자비란 상대방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을 말한다. 온전히 이런 마음으로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다가가는 이가 붓다이며,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과 같은 존재이다.

중도

편견을 떠난 바르고 치우치지 않은 도를 말하는데, 이것이 불교의 입장이다. 불교의 모든 종파와 학파에서는 중도사상을 존중하고 고취해 왔다. 집착을 떠나고 공평하게 현실을 꿰뚫어 보는 입장을 표현하는 말로서, 양극단을 부정하고 지양하는 사상을 담고 있다. 이를 테면 유와 무의 양극단, 단과 상의 두 가지 견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일종의 변증법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바른 판단력을 말한다. 이것을 완전히 갖춘 자가 붓다이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얻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을 반야바라밀이라 한다.

출가

가정과 세속의 생활을 버리고 오로지 진리의 길을 걸어 가는 일

또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에서는 수도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종교적 실천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다. 석가모니도 그에 따라 출가하여 사문(바라문 이외의 수행자)이 되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 붓다가 되어 불교의 개조가 되었다.

팔리어

소승불교에서 쓰는 말인데, 최고의 불교 계율은 이 말로 썼다고 한다. 이말은 범어의 한 방언인 프라크리트어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범어와 팔리어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범어로 쓴 Dharma 와 팔리어로 쓴 Dhamma 는 똑 같이 법을 뜻하고, 범어로 쓴 Nirvāṇa 와 팔리어로 쓴 Nibbana 는 똑 같이 열반의 뜻이다.

해탈

윤회하는 미혹한 세계의 속박에서 풀려나 열반이라 불리는 깨달음의 경지로 탈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미혹한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영원한 깨달음의 상태에 머무는 자가 붓다이며, 이곳은 모든 속박을 떠나 있으므로 자유자재하다.

회향

자기의 착한 행위에 따라오는 좋은 결과를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자기 자신의 미래의 깨달음에 돌리는 경우와 타인에게 그 공덕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불교전도협회에 대하여

불교전도협회에 대하여 말하자면 먼저 사업가인 沼田惠範씨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1934 년에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이래, 사업의 변영은 천지인에 의하고, 인간의 완성은 지혜와 자비와 용기가 갖추어져야만 이루어진다는 신념아래, 기술개발과 마음개발을 지향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세계의 평화는 인간의 완성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인간의 완성을 지향하는 종교가 불교이다. 그는 반세기가 넘도록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불교를 포교하고자 불교음악을 보급하고, 근대화를 지향하였으며 불교성화와 불교성전의 보급에 힘써 왔다.

그러다가 1965 년 12 월에 이 모든 불교포교사업을 조직화하여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사재를 기부하였다. 이리하여 불교전도협회는 공식적인 불교전도기관으로 발족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만물에 널리 미치게 하고 모든 동포가 대지와 대비의 이 빛을 함께 쬐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교전도협회는 창설자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문제를 영원히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서 불교보급을 위한 모든 노력이 불교전도협회가 하는 사업의 전부라는 말이다.

이 성전은 일본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불교문화를 자랑하면서도 딱히 일본인의 경전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음을 반성하여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 성전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읽어서 마음의 양식이 되며, 누구나 책상 위에 놓아두고, 또 외출할 때에 휴대함으로써 생생한 부처님의 위대한 빛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비록 이 불교성전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불교를 소개하고 많은 대중들이 쉬고 정확한 내용으로 읽어서 일상생활의 정신적 지침이 되고 진리를 깨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집필 관련자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이 있었다.

불교전도협회는 이 성전이 한 집이라도 더 많은 가정에 들어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포와 모든 인류들의 손에 건네져서 인류세계의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가르침의 빛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합장